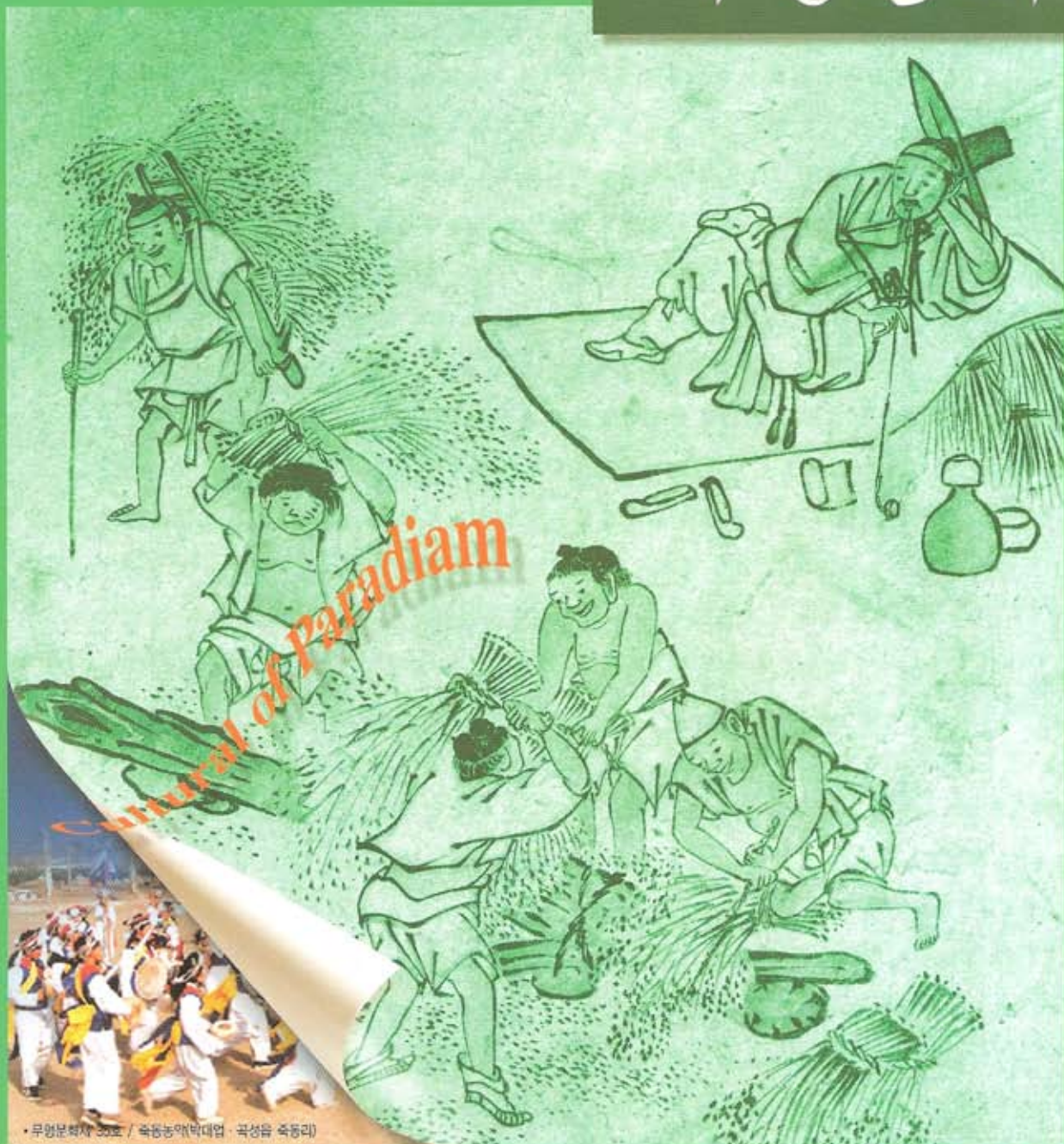


GOKSENG CULTURAL MAGAZINE

곡성문화



• 무영문화사 33호 / 곡성농악박물관, 곡성읍 주동리



곡성문화원

www.gokseong-culture.or.kr

곡성문화원

곡성문화원은「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지방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관광부 산하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곡성군민들의 향토 문화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증진시키며 군민의 문화 예술적 감성을 개발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의 사업

1. 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7.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곡성문화원 문화예술진흥추진 사업

주요사업

문화행사의 개최

- 유명예술인 초청 강연회
- 효녀심청 유치부 사생 대회
- 효녀심청 전국 청소년 예술공모전
- 선진생활문화 강연회
- 청소년 향토문화 강연회

지역 문화교실

- 다도강좌
- 시예강좌
- 외국어 회화 강좌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 지역향토자료 조사
- 내 고장 곡성 발간
- 어린이 신문 발간
- 내 고장 인물 및 유적지 안내도 제작
- 곡성역 관광안내도 제작

향토자료 발간

- 곡성의 세시풍속
- 곡성의 문화재
- 월비집
- 청계동사
- 곡성누정록
- 국역 조선현여승람 곡성편
- 충정공 마천목상군
- 곡성실록(조선왕조실록 곡성편)
- 사찬 곡성군지
- 곡성의 지리지
- 이의 20여종 발간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 교육 활동

- 향토 문화 유적지 순례
- 가훈 및 휘호 써주기
- 전통차 보급 및 시음회
- 고대인물 알리기 및 서화 전시회

곡성문화원 에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투고안내: ☎516-805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76-4 곡성문화원
전화: 061) 362-0890 전송: 061) 363-7300 인터넷 홈페이지: www.gs-culture.or.kr

곡성문화

곡성문화 동지 통권 제5호

- 발행인 / 김영희
- 편집 / 조준환
- 감수 / 박수경
- 디자인 / WITH DESIGN
- 발행처 / 곡성문화원
- 발행일 / 2004년 7월 31일
- 권별 곡성군 일대리 776 - 4
- 전화 / 061) 362 - 0800
- 전술 / 061) 363 - 7300
- 홈페이지 / www.ge-culture.or.kr



표지이야기 / 즉흥농악

무형문화재 제35호인
즉흥농악(박대업·곡성읍 즉흥리)

CONTENTS

- 04_ 문화의 뜰 / 명사산책
- 07_ 문학속의 곡성 / 김주영 「아라리 난장」
- 09_ 문화의 창 / 입을 열 생각하며
- 12_ 곡성의 전설 / 두계천의 도깨비와 마천목장군
- 13_ 삼국사기에 나타난 곡성의 사료
- 14_ 지명유래 / 석곡면
- 16_ 역사적 현장 / 정해박해의 진원지(천주교 곡성교회)
- 18_ 곡성의 문화재 / 천년고찰 태안사
- 23_ 곡성의 문화유산 / 태안사 귀중품
- 31_ 곡성지역의 독립운동
- 35_ 곡성의 자연 / 곡성의 진산 봉두산의 심림군림에 대하여
- 37_ 곡성의 농요 / 곡성을 모심기 노래
- 38_ 문화원탐방 / 대나무는 담양의 상징(담양문화원)
- 40_ 곡성문화원 중국어 강의를 받으며
- 41_ 호기심이 만든 중국어 소녀
- 42_ 곡성에서 만난 아름다운 이웃
- 43_ 곡성의 세시풍속 / 곡성의 목도놀이
- 44_ 화보 / 일본 문화유적탐사
- 48_ 문화시설탐방 / 섬진강 자연학습원
- 51_ UNESCO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 54_ 지역기업 순례 / (주)한국콘크리트
- 56_ 미아 찾기 /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 58_ 곡성의 역사적 인물 / 조통
- 59_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문화원의 입장
- 60_ 지역문화 활성화대책 / 문광부
- 62_ 「창의한국-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 / 문광부
- 69_ 2003 심청축제
- 81_ 2004 심청축제
- 86_ 제5회 호녀상형 전국 어린이 예술공모전
- 89_ 21세기 지도력은 한국에서
- 90_ 추억의 사진 / 1982년 곡성군 관공서
- 94_ 신간도서 / 곡성의 지리지
- 95_ 2004년 상반기 전국 문화원 신간 안내
- 96_ 곡성의 문화재 안내지도
- 98_ 지역문화선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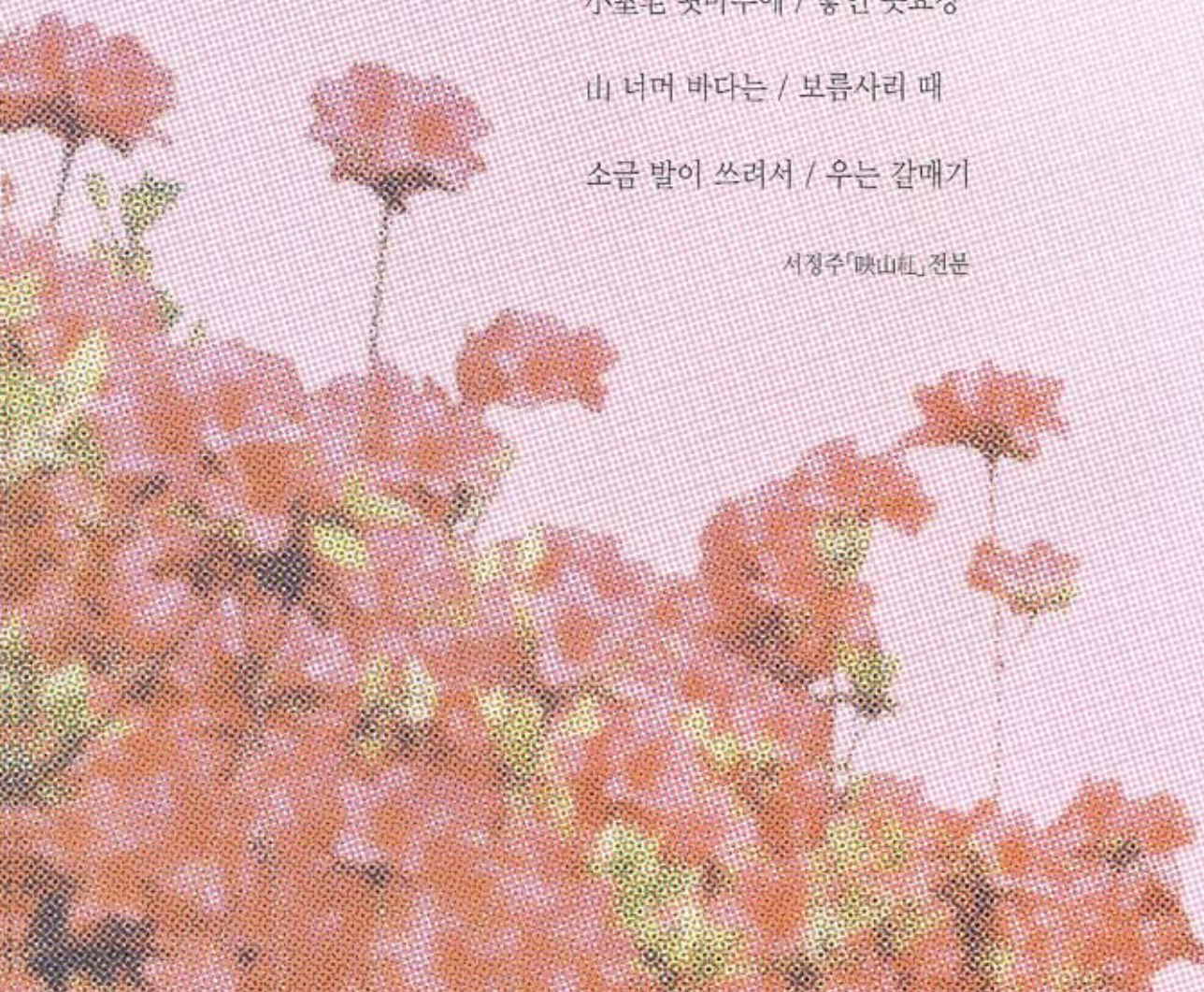
명시산책

임보강의 가을꽃대교수

「映山紅」

영산홍 꽃잎에는 / 山이 어리고
山자락에 낮잠 든 / 슬픈 小室宅
小室宅 뒷마루에 / 놓인 늦요강
山 너머 바다는 / 보름사리 때
소금 발이 쓰러서 / 우는 갈매기

서정주「映山紅」전분



시「영산홍」은 『文學』(1966.11.)에 발표된 뒤, 시집『冬天』(1968.11.)에 수록되어 전한다. 미당이 1915년 생이니 지천명의 원숙한 나이에 접어들어 쓴 작품이다. 전 5연으로 이루어진 2행시인데 7·5조의 율격에 담긴 아름다운 소품이다. 얼른 보기엔 별로 대단한 작품 같지 않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서정의 구조가 그렇게 단순치 않음을 알게 된다. 쉽게 이해되는 작품이 아니다.

제1연 시작부터 잘 풀리지 않는다. ‘영산홍 꽃잎에는/ 산이 어리고’의 정경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 작 은 영산홍 꽃잎에 어떻게 산이 어린다는 것인가. 산 그림자가 영산홍 꽃잎에 드리운다는 표현인가. 그러나 이러한 상상은 별로 흡족하지가 못하다. 그러면 어떤 정황을 그렇게 그리고 있던 말인가.

영산홍의 한자 표기 ‘映山紅’의 ‘映’은 ‘비추다, 비치다, 덮어 가리다’ 등의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映山紅’이라는 말은 ‘산이 어른거리며 비치는 빨간(紅) 꽃’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킬지 모른다. 아마 그랬으리라. 그러나 이 구절이 이런 단순한 이미지만을 서술하는 데 그쳤다면 별로 대단할 것도 없다. 이 구절은 제2연으로 이어지면서 복합적인 의미망을 새로이 형성하게 된다. 우선 제2연을 살펴본 다음 그 복합적인 의미망을 따져보도록 하자.

제2연은 산자락에 낮잠 든 슬픈 소실댁을 제시하고 있다. ‘슬픈’으로 미루어 보아 그 소실댁은 아마도 님의 사랑을 이제 제대로 받지 못한 불행한 여인으로 짐작된다. 간밤에 이제나저제나 혹 님이 찾아올까 잠 못 이루며 전전반측 기다리다 지냈을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지금도 님 생각에 젖어 있다가 낮잠 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산자락’의 그 ‘산’은 님의 상징물로 볼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제1연에서의 산도 새로운 의미로 다가선다. 이 역시 님의 상징어로 본다면 영산홍은 여인 곧 소실댁이 된다. 영산홍처럼 아름답고 젊은 소실댁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므로 제1연은 겉으로는 영산홍을 그린 것 같지만, 사실은 님 생각에 젖어 있는 아름다운 한 여인을 거기에 포개어 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시의 은근한 감춤의 멋이 있다.

제3연에서는 대상을 바꾸어 뒷마루에 놓인 요강을 등장시킨다. 원래 요강이 놓일 장소는 은밀한 방안이다. 그런데 지금 이 요강은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마루에 나와 있다. 그것도 원마루에 잇대어 달아낸 뒷마루다. 뒷마루는 잉여적 공간이다. 마치 본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뒷붙어 둘째 아내로 살고 있는 소실댁과 흡사한 처지다. 잉여적 공간에 방치된 요강은 다름 아닌 님의 사랑으로부터 소외된 소실댁을 상징한다. 여기서의 요강은 T.S.엘리엇이 말한 객관적 상관물의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으리라.

제4연부터서는 이제까지 전개해 오던 소설의 주변의 정경과는 달리 시선을 180도 돌려 엉뚱하게 바다를 끌어들이고 있다. 보름사리는 보름 무렵의 조수 곧 가장 충만한 만조(滿潮)를 이루는 시기다. 제5연은 소금 밭이 쓰러 우는 갈매기를 클로즈업시키고 있다. 여기에 이르러 우리는 다시 당황하게 된다. 도대체 갈매기 얘기는 무엇이란 말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해 온 의미구조로 본다면 갈매기도 분명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 것 같다.

우선 갈매기가 소금 밭이 쓰러서 우는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소금 밭이 쓰러다'는 것은 밭이 소금기에 절여서 아프다는 뜻이리라. 왜 소금기에 절였을까. 바닷물에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이리라. 밀물을 타고 몰려오는 고기떼들을 잡아먹기 위해 정신없이 바다에 밭을 담그다 보니 절였으리라. 그러니 여기서의 갈매기의 울음은 괴로워서라기보다는 즐거운 비명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갈매기의 정체는 떠오른다. 갈매기는 곧 님이 아니겠는가. 소설의 돌아본 척도 않고 외지에 나가 여성편력에 여념이 없는 님을 물고기 사냥에 빠져있는 갈매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의 의미 구조는 제3연까지 각 연의 제1행과 제2행이 배경과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와는 달리 제4연과 제5연에서는 연 단위로 배경과 대상이 나뉘어 있다. 그러니 의미 구조로 본다면 제4, 5연은 한 부분으로 묶일 수 있어서 전체 작품은 기승전결의 4단으로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3연까지는 앞말의 꼬리를 이어받는 연쇄구조인 것도 재미있다. 행 단위로 사, 나, 스, 브 등이 빚어낸 압운적인 효과도 조화롭다. 한 여성의 애잔한 삶을 아름답게 승화시킨 작품이다. 미당의 많은 작품들 가운데 유수한 수작의 하나로 평가할 만하다.

미당은 산문 「영산홍 이야기」에서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는데 재미있다. 그는 이 작품을 쓸 무렵까지도 영산홍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고백한다. 소학교 시절 친구의 집에 놀러갔었다. 그 친구의 어머니는 한때 승지의 소설이었다. 그 집 뜰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었기에 그 꽃의 이름을 물었더니 영산홍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꽃은 영산홍이 아니라 산단(山丹)이었던 것을 선이 넘어서야 알게 된다. 그러면서 그는 잘못 아는 것이 때로는 괜찮은 결과를 낳기도 한다고 변명한다. 사실 미당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빨간 산단꽃과 친구의 젊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썼을 것이다. 만일 그 꽃의 이름이 영산홍이 아니라 산단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작품의 첫 연과 같은 구절은 얻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 작품 「영산홍」은 아예 탄생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아라리 난장

김주영(소설가)

중략.....

창범이네 일행은 광양과 하동에서부터 남원, 곡성까지 남쪽에서 북쪽으로 장터를 거슬러 오르는 여정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섬진강의 정취를 올곧게 터득하려면, 곡성에서부터 하동 쪽으로 내려오는 여정을 찾아볼 일이었다.

섬진강에는 계절의 티울이 없다. 겨울의 차디찬 삭풍을 이겨내는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강물의 힘찬 몸부림에도 고운 자태를 지키는 모래사장이 있고, 강변에 늘어서 휘청거리는 대나무밭도 겨우내 그 푸르름을 지킨다.

하동 포구까지 80리를 슝 가쁘게 내달아 노량물목으로 빠져 바다와 어우러지기까지 무수하게 박힌 나루에도 겨우내 쉬지 않고 사람들이 넘나들고, 매화와 산수유는 삭풍 속에서도 먼저 맞이할 봄을 위하여 결코 움츠리지 않는다. 그래서 메마르고 적막한 한겨울에도 섬진강은 유장한 호흡으로 살아, 아기가기한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강으로 남아 있다. 뺨을 스치는 강바람에는 언제나 향긋한 노래가 실려 있어 스산하지 않다. 지난해 비가 적어 수량은 줄어들었으나 천년을 흘러온 물굽이는 손색없이 그대로였다.

돌실나이와 낙죽장도 그리고 약대추와 단감과 딸기, 고사리, 토란대, 취나물, 가죽자반, 두릅, 영지버섯, 표고버섯, 산수유, 매실, 검정쌀과 청결미와 토하젓, 새우젓, 멸치액젓이 특산품인 곡성에서 출발하면, 곡성군 고달면 호곡리에서 강 건너 오곡면의 침곡리를 이어주는 호곡나루의 줄배가 강가에 고즈넉이 떠 있다.

바로 아래쪽 고리실에도 한가한 즐나루가 기다린다. 그리고 강과 나란히 달리는 철길이 보이면서 은어와 참게탕으로 소문난 압록역(鴨綠驛)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데, 그곳엔 보성에서 발원하여 승주를

거쳐 곡성의 남쪽을 관류하는 보성강의 여울을 거두어 안고서 태안사로 가는 길이 풀려 있다.

태안사는 1천 2백년이나 되는 고찰로 남녘의 소림(少林)이었다. 사람들은 이 압록역 부근까지를 섬진강의 상류로 가름하였다.

압록은 지리산과 백운산의 산그늘과 강변에 도열한 대나무숲으로 사철이 푸르러 그 빛깔이 청둥오리의 모가지 빛깔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강은 그곳에서 북으로 이마를 쳐들어 화엄사 앞마당, 구례에 닿는다. 오이와 산수유, 우리밀, 작설차, 토종꿀, 고로쇠와 거자수약수, 약초와 죽도가 특산물인 구례에서 왼쪽으로 지리산 노고단과 오른쪽으로 광양의 백운산을 바라보며 기력을 보탠다. 그리고 수락폭포와 가미소폭포를 허둥지둥 곤두박으며 달려와 피아골의 계곡물과 합치니, 섬진강의 물살은 그로써 강의 기세와 위엄을 갖춘다.

그 계곡 속에 있는 산동면 상위와 위안리에선 매화꽃을 시샘하는 산수유가 3월 중순을 넘기지 못하고 피어나기를 다룬다.

3월 중순에 이 마을을 찾아가면, 계곡과 돌담 사이에 흐드러진 산수유 때문에 눈부시고 애절하다. 산동의 열아홉 살 처녀가 여순 사건 때 국군에 끌려가면서 불렀다는 “산동애가”는 지금도 이마을에 전해 오는 피맺힌 노래다.

산수유는 성인병과 요실금(尿失禁)에 특효가 있어 옛날에는 텃밭에 몇 그루만 세워두어도 피붙이를 대학까지 교육시켰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산과 물은 항상 어우러져 존재한다. 섬진강은 더욱 그렇다. 좋은 산에는 반드시 좋은 물이 있게 마련이고 물이 좋으면 산 또한 좋은 법이다. 지리산자락 마을에는 약수가 흘러 넘친다. 석벽 사이에서 흐르는 약수뿐만 아니라 나무에서도 약수를 채취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로쇠 약수다.

이른봄의 상위마을은 외지인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지리산 고로쇠 약수를 마시러 모이는 사람들 때문이다. 이들은 오징어나 명태를 고추장에 찍어 먹으며 절절 끓는 구들장에 허리를 지지고 밤새 고로쇠를 마신다.

그러나 강은 다시 남으로 고개를 틀고 쌍계사 들머리 화개골에 이른다. 고로쇠와 녹차 그리고 토종꿀, 터덕과 표고버섯과 영지버섯과 흑염소가 특산이라는 화개골은 바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경계에 스스럼 없이 걸쳐 있는, 지금은 한적한 장터이다.

중략.....

(아라리 난장 2권 228p-230p에서 발췌)

압록을 생각하며

이재범(경기대 교수)

곡성은 작은 고을로 알려져 있다. 군세가 현재 대한민국의 시군 가운데 아래로부터 꼽아야 한다고 하니 가히 규모를 짐작할만 하다. 언제부터 곡성이 그렇게 되었을까? 그 연원을 따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 같아 보이지 않는다. 곡성은 언제나 작기만 했던 것일까? 이 점을 생각해 보는 것이 오히려 낯을 것 같다. 그런데 곡성의 과거를 돌이켜 보니 그렇게 작았던 것 같지 않다.

신라말·고려초에 곡성군에는 태안사(太安寺)라는 큰 절이 들어섰다. 지금도 남아 있어 곡성의 자랑거리이다. 태안사는 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불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곳에서 배출된 스님들의 면모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왕건의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도선국사를 이곳에서 배출하였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렇다. 언제부터인가 폐찰이 되었고, 특히 한국전쟁때 많은 피해를 입어 전혀 옛 모습을 알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렇더라도 태안사 경내에 있는 보물로 지정된 부도는 과거의 영화를 드러내 준다.

태안사가 번창할 때의 인물로 장절공 신승겸(申崇謙)이 있다. 장절공은 고려 태조 왕건의 최고 공신인 4공신 중 한분이다. 장절공은 대구 공산전투에서 왕건을 대신해 죽은 인물이다. 후백제군에게 쫓겨 왕건이 죽게될 지경에 이르자 옷을 바꾸어 입고 자신이 왕건 대신 장렬한 죽음을 당하였다. 그를 애도하여 장절공이란 시호가 붙여졌다. 그리고 그 모습은 팔관회 때마다 재현되었는데, 어찌나 애처러웠던지 고려의 예종은 그것을 보고 도이장가(悼二將歌)라는 노래를 지어 부르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크고 많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자랑거리라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앞의 이야기는 곡성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자랑스러워하는 역사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말한다면 정말 싱거운 이야기가 되고 말 것이다. 곡성인이면 어린 아이까지도 잘 알고 있는 이

야기를 증언부언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말이다.

그래서 이 지면을 빌어서는 곡성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을 좀 더 찾아 보려고 한다. 흔히 들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가,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가, 라는 명제로 감론을박 하는 것을 본다. 그 대답은 어렵다. 양자가 서로 잘 어울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태안사와 신승결과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당시 곡성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압록의 역사적 위치

태안사에서 하류로 가면 압록이 나온다. 지금은 명승지로만 알려진 지역이지만 한때는 한나라를 대표하는 지명으로 일컬어질 만큼 번성했던 도시였다. 바로 후삼국시대의 압록이 그렇다. 당시 압록은 후백제의 대명사로 일컬어졌던 것이다. 이를 알려주는 내용이 『고려사』에 나타난다.

先操 後搏鴨者王侍中御國之後先得 林後收鴨緣之意也(『고려사』, 권 1, 태조세가 1.)

한자로 표기된 위의 내용을 해석하면 “먼저 닭을 잡고 뒤에 오리를 친다”라는 것은 왕시중이 임금인 뒤에 먼저 계림을 얻고 뒤에 압록을 거둔다는 뜻이다”로 풀이된다. 위의 내용은 ‘고경문’의 내용 중 일부인데, 고경문은 왕창근이라는 인물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거울에 글자가 새겨진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왕시중은 왕건, 계림은 신라, 압록은 지금의 후백제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은 왕건이 먼저 신라를 잡고, 다음에 후백제를 친다는 의미로 왕건의 후삼국 통일을 증언하는 일종의 예언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계림은 신라의 상징이며, 압록은 후백제의 상징이 되고 있다. 압록은 신라말·고려초에 후백제를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이 압록을 지금의 수풍담이 있는 북한과 중국의 경계가 되는 압록강으로 해석해 왔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된 해석인 것이다.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려고 했던 당시에 압록강은 우리의 판도가 아니었다.

압록이 압록강과 달랐다는 예는 여럿 발견되고 있다. 일반인들도 자주 이용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신증』으로 약함)에는 압록과 압록강이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압록이라는 단어와 관련되는 사례들을 찾아 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얻게 된다. 북한의 압록강은 언제나 압록강으로만, 곡성의 압록은 압록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다. 압록이 압록강으로 사용된 예는 한번도 없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鴨綠江行城(『신증』 권49 삼수군 성곽조, 『신증』 권53 의주목 개설조, 『신증』 권53 의주목 형승조)
- 압록강사 : 구룡연 위에 있다. - (『신증』 권53 의주목 사묘조)
- 압록강진 : 고려 현종 13년 비로소 설치하였고, 압록강 구당을 설치(『비고』 의주목 진도조)

위의 내용들을 보면 행성이건 사당이건 진이건 간에 북한에 있는 압록은 모두 압록강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곡성의 압록은 압록강으로 표현한 예를 찾을 수 없다. 같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압록에 관한 예를 살펴 본다.

- 압록원 : 압록진의 언덕에 있다.(『신증』 권39 곡성현 역원조)
- 압록진 : 동남쪽으로 30리에 있으며 구례와의 경계인 큰 길에 있다.(『비고』 곡성현 진도조)
- 압록진 : 현의 서쪽 29리 곡성현 경계에 있다.(『신증』 권40 구례현 산천조)
- 압록진 : 현의 서쪽 29리 곡성군과 통한다.(『비고』 구례현 진도조)

위에 열거한 내용들은 모두 압록에 관한 것들이다. 여기서의 압록은 곡성 소재지이다. 원과진의 이름도 압록만 붙이고 있다. 이처럼 압록과 압록강은 뚜렷이 구분되는 명칭이었다. 그러므로 압록을 압록강이라고 할 하등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대에 압록을 압록강으로 잘못 이해하여 많은 역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압록의 입지조건과 중요성

그렇다면 왜 당시의 압록은 후백제를 상징할만한 지명이 될만큼 중요하였을까? 그 설명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바로 섬진강의 수운때문이다. 고대로 갈수록 바다나 강을 교통으로 의존하는 비중은 컸다. 특히 섬진강은 한반도의 중심부를 가르는 큰 강으로 중요도가 높았다. 주변에 연한 도시들도 굽직하게 많다. 남원만 하더라도 섬진강을 타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를 수가 없는 곳이다. 그리고 그 중간에 압록이 위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북쪽으로 왕건과 대치하고 있던 후백제의 견훤은 필요한 물자를 남쪽으로부터 공급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 더욱이 당시의 상황이 영산강 일대는 왕건이 점령하고 있었으므로 더욱 섬진강의 용도가 절박한 지경이었다. 당시 후백제의 견훤은 중국의 남조와 많은 외교와 교역을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섬진강의 주요 수운상의 요충인 압록은 후백제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후백제의 인후와 같은 역할을 하였던 압록은 그 지리적 잇점에 의하여 당연히 후백제 최고의 고장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 후기의 학자 이제현(李濟賢)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우리 태조(왕건)가 왕이 된 뒤, 김부가 아직 항복하지 않고 견훤이 사로잡히지 않았는데도 여러번 서경을 행차하고 직접 북방을 순찰하였으니 그 뜻은 역시 동명(고구려)의 옛 강토를 우리나라의 귀중한 유산으로 확신하고 반드시 이것을 모두 차지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니 어찌 그 뜻이 닭(鷄)을 잡고 오리(鴨)를 치는데 그쳤다고 하겠는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참으로 우리 태조의 도량과 계략은 크고 원대한 것이었다. (『고려사』 권2 태조 26년 이제현찬)

위의 내용을 보면 이제현은 왕건의 북진은 서경, 정복 대상은 먼저 신라(新羅), 그리고 후백제(후리)와 관련지어 말하고 있다. 오리, 즉 압록은 지금의 압록강이 아닌 곡성의 압록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곡성은 과거의 어느 한때 한 나라의 상징이랄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곡성은?

이러한 과거의 곡성은 오늘날 어떤 연유로 규모가 축소되고 말았을까? 그 까닭은 정확히 알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앞에서 말했다. 그러나 그것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오늘날 곡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과거의 압록과 같이 거듭 날 수 있을까 하는데 관심을 더 가져야 하지 않을까?

최근 마스크에는 곡성이 자주 등장한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촬영을 한 장소가 구곡성역이었던 점이다. 또 청정지역으로서의 섬진강과 배단지로서도 각광을 받는다. 시대가 바뀌면 주제도 바뀐다. 과거는 정치와 군사가 제일 주제였다면, 현대에 들어서 경제와 문화가 더 부각이 된다. 어찌면 곡성은 이제 바로 현대에 있어서 가장 알맞은 주제로 이제 대한민국의 상징지역으로 세계에 이름을 휘날려야 할 것 아닌가? 또한 가장 적합한 지역인 것은 아닐런지.

두계천의 도깨비와 마천목장군

조선초 좌명공신 충정공 마천목 장군은 오지면 당산촌에서 살면서 남다른 기개와 효성으로 세간에 칭송을 받았다. 그 대표적인 일화가 바로 그의 지극한 효성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기록이다.

『東國輿地勝覽』남원부 두계천조에 보면

두계천은 남원부 남쪽 60리 순자강 하류에 있다. 장흥부원군 마천목이 강을 가로막아 만든 발로 그후 남원부에서 수축하였다. 는 기록이 보인다.

당산촌으로 이사한 소년 마천목은 부모에 대한 효성이 매우 지극하였다. 그러나 생활이 넉넉지 못하여 순자강 하류 두계천(杜溪川)에서 매일 몸소 고기를 낚아서 부모를 공양하였다고 하는데, 이 기록은 바로 그 같은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위의 기록과 관련한 전설이다.

전설의 내용을 소개하면

부친을 따라 곡성의 오지면 당산촌으로 이거하였으나, 순자강 하류 두계천에서 몸소 고기를 낚아 어버이를 공양하였다. 그러다가 소년 마천목은 어느날 낚시보다는 어살(밭)을 막아 고기를 잡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밭을 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강폭이 넓고 흐름이 급하여 이런 저런 궁리를 하고 있었다.

하루는 강뚝을 거닐며 형세를 살피다가 날이 저물어 돌아오는 길에 둥글게 생긴 작은 돌이 푸르고 기이하기에 주워 왔더니 그 날밤에 수천의 귀신 무리들이 뜰 아래서 절을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강가에 있는 범산의 도깨비입니다. 대감께서 오늘 석양에 주워 오신 돌이 바로 우리들의 장수이오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청하였다. 이에 마 소년은 말하기를 “내가 두계천에 어살을

막으려 하는데 너희들이 밭을 막아 준다면 너희 장수를 돌려주리라”하였다. 그러자 잡귀들이 즉시 “예! 예!”하고 물러가더니 잠깐 후에 돌아와서 다 막았다고 하였다. 이에 마천목은 “너희들이 비상한 재주가 있다하나 어찌 그토록 잠깐 사이에 밭을 다 막을 수 있단 말이나”하자 도깨비들은 “대감께서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하므로 마천목은 돌을 내어주며 “나같은 곤궁한 서생을 대감이라 부르는 것은 무슨 뜻이나”고 물으니 귀졸들이 말하기를 “장차 부원군 대감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예언했다.

라는 것이다. 도깨비의 도움으로 효성을 다할 수 있었던 마천목 장군, 그리고 후일 나라의 동량이 될 것을 예견한 이 일화는 아직도 곡성지역에 널리 전해지고 있는 유명한 전설이다.



도깨비살 유래비(1999년 곡성문화원 건립)



충정공 마천목장군 영정

삼국사기에 나타난 곡성의 사료

삼국사기(三國史記)

곡성군(谷城郡)

곡성군(谷城郡)(294)은 본래 백제 옥내군(欲乃郡)(295)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 [고려]도 그대로 쓴다. 영현이 셋이었다. 부유현(富有縣)(296)은 본래 백제 둔지현(遁支縣)(297)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 [고려]도 그대로 쓴다. 구례현(求禮縣)(298)은 본래 백제 구차례현(仇次禮縣)(299)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 [고려]도 그대로 쓴다. 동복현(同福縣)(300)은 본래 백제 두부지현(豆夫只縣)(301)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 [고려]도 그대로 쓴다.

(삼국사기 권36 잡지 제5-지리3/신라 무주 곡성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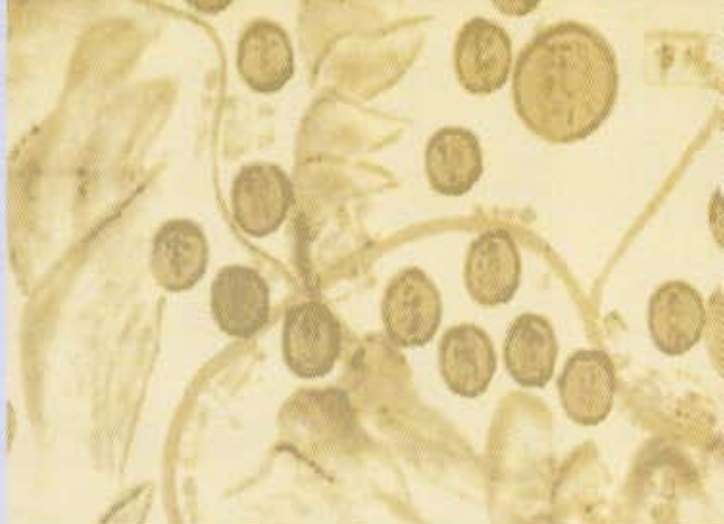
옥과현(玉菓縣)

추성군(秋成郡)(250)은 본래 백제 추자혜군(秋子兮郡)(251)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 [고려]의 담양군(潭陽郡)(252)이다. 영현이 둘이었다. 옥과현(玉菓縣)(253)은 본래 백제 과지현(菓支縣)(254)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 [고려]도 그대로 쓴다. 율원현(栗原縣)(255)은 본래 백제 율지현(栗支縣)(256)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 [고려]의 원율현(原栗縣)(257)이다.

(삼국사기 권36 잡지 제5-지리3/신라 무주 추성군)



우리마을의 地名由來 - 석곡면



월봉마을(月峰) - 석곡1리

마을터가 하천변이어서 돌이 많다. 그래서 돌산(석곡)이라 했다. 마을 동쪽 달봉산 이름을 따서 1914년 월봉이라 했다. 문화재자료 제28호인 석조여래입상이 있다. 6.25전란 중 희생된 면민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탑이 세워져 있다.

흥지마을(興旨) - 석곡2리

마을 남쪽에 옛 역원이 설치된곳이라 원촌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1914년 옛부터 마을의 부흥을 꾀한다는 뜻의 흥지마을로 다시 바꾸었다. 석곡돼지불고기로 이름난 마을이다. 음력 7월 20일이면 스무날 장이라 해서 씨름판등이 벌어져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고 한다. 1970년대 이후 이러한 풍경은 사라졌다.

능파마을(凌波) - 능파1리

마을 뒤 달봉 기슭에 보성강이 굽이쳐 흐른다. 평산 신씨 선대년이 정자를 세워 능파정이라 했다. 1914년 마을 이름을 능파라 했다. 선대년과 친분이 있는 충무공 이순신이 백의종군, 여수로 가던 도중 능파정을 찾아와 신씨 5형제와 나라 걱정을 하며 밤을 새웠다는 얘기가 전한다. 지금은 능파정 자리만 남아 있다.

능암마을(凌岩) - 능파2리

마을앞을 가로질러 보성강이 흐른다. 강 암석이 많아 절경이어서 1914년 능암이라 했다.

덕동마을(德洞) - 덕흥1리

마을 뒤에 덕망산이 솟아 있고 옆으로 기동굴이 있다 해서 덕동이라 불렀다. 대흥이란 마을과 마을뒤 마당제에 있는 풍차리를 합해 1914년 덕동과 대흥의 한글자씩 따서 덕흥리로 부르게 되었다.

대흥마을(大興) - 덕흥2리

대흥마을 1997년 덕흥2리로 다시 분리되었다. 마을 뒤 죽곡면경계에 2백여m의 석성터가 남아 있다. 예봉중턱에 산재를 지내는 바위가 있는데 안팎천이라 불린다. 안씨부인이 백일기도를 올려 아들을 얻었는데, 서울로 가서 팔천량을 벌어들여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당지마을(當旨) - 당월1리

이 마을은 당머리라 불렀다. 산마을은 (산의 옛말중의 하나)+마을 > 단말 > 덕말 > 당말 > 망말 > 망말이 > 당머리로 변화되었다. 이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당지라 했다. 1914년 당지와 월계의 한 글자씩 따서 당월리라 했다.

월계마을(月桂) - 당월2리

마을 뒤에 달봉이 있고 마을 형국이 달에 있는 계수갈다 해서 월계라 했다고 한다. 예로부터 장수마을로 알려져 왔다.

마산마을(馬山) - 당월3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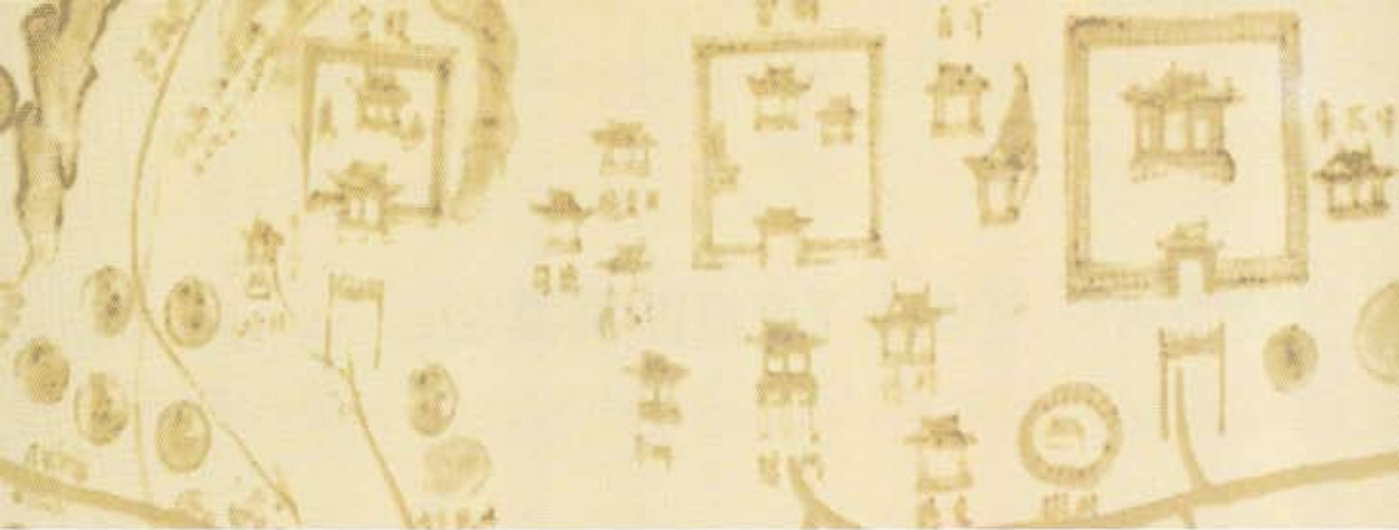
1979년 취락구조 개선사업 때 당지마을 12가구와 다른 마을 3가구가 새터를 잡아 마을을 이뤘다. 신사이의 골=외+사이+골 > 외사이골 > 외새골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마산으로 된 것이 아닌가한다.

용주마을(龍珠) - 방송1리

마을 주변에서 무쇠가 나와 무수골이라 불렀다. 이 마을 지형이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국이라해서 1914년 용주라 했다.

방주마을(芳州) - 방송2리

조선개국공신이자 정란공신인 마천목장군이 통명산 기슭인



석곡면 당상전을 중심으로 사방십리를 허사반아 후손들이 번창한 마을이다. 마을 가까이 큰 방죽이 있어 마을 이름을 방죽물, 방죽굴 또는 방연물이라 부르다 1914년 방주로 개칭했다. 마장군의 영정을 모신 충정공영각, 마천목장군 신도비, 마천목장군 묘소가 있다.



상송마을(上松) - 방송3리

소나무가 많은 곳인 솔정(송정)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송정리라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송정리라 불렀다. 이 마을은 웃돛, 아랫돛으로 갈라져 있었다. 1914년 웃돛인 송정리를 상송이라 했다.

하송마을(下松) - 방송4리

아랫돛, 즉 아랫송정리여서 하송이라 한 것이다. 고창에 살던 송흥경이 양반이 거만하다며 말에 매달아 이끌이 죽게 하여 후환이 두려워 이곳으로 피신 정착했다고 한다. 마을 서북쪽 통명산에 은흥사의 절터가 남아있다. 어떤 사람이 선천묘를 쓰려고 절에 불을 질렀다는 얘기가 전한다.

여운마을(如雲) - 연반1리

양천 허씨 허식이 징유재란 때 순천에서 국사봉 아래 절터

가 있는 이곳으로 피난해왔다. 국사봉 중턱에 암자가 있었는데 지형이 높아 구름이 끼어 있을 때가 많아 여운암이라 불렀다. 이 마을이 해발 4백고지를 넘어 6.25전란 중 마을 전체가 소실되어 폐허가 되다시피했다.

용반마을(龍盤) - 연반2리

금산 김씨가 마을터를 잡았다. 약 200년 전 제주 양씨 양제거라는 사람이 담양 수북에서 살다가 고을 수령과 불화로 가산을 잃고 연동마을로 들어와 서당 훈도를 하면서 이곳에 마을을 이뤘다. 마을 뒤 운룡 반용이라는 명당이 있다는 풍수지리설에 따라 1914년 용반이라 칭했다. 마을 뒷산에 있는 넓고 큰 바위를 매신비위라 한다. 국상이 나면 기처에서 유림들이 모여 북쪽을 향하여 곡을 했다고 한다.

연동마을(蓮洞) - 연반3리

마을앞에 창터가 있어 장골이라 불렀다. 연하도수혈의 명당이라 연하동이라 했다한다. 1914년 연동과 용반의 한 글자씩 따서 연반리라했다.

정해박해 진원지(丁亥迫害 震源地)

천주교 옥성교회

● **순교자**란 신앙의 증거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을 일컫는 말로 그리스어의 “증인”에서 유래한 말이다. 플리카르포 주교가 165년경 처음으로 증인을 순교자라 칭한 이후 많은 교부들은 그리스도를 증인한 많은 순교자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였다.

테르툴리아노는 순교는 모든 죄를 없애주는 행위이므로 제2의 세례라고 하였으며, 알렉산드리아의 글레멘스는 순교자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므로 순교자는 죽은 후 바로 천국의 영광을 누린다고 역설하였다.

순교자는 완덕에 이른 자이며 이들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순교자는 그리스도교인의 씨앗이다”라고 테르툴리아노는 힘주어 말하였다. 그러므로 순교자의 삶을 본받는 일은 당연한 것이다.

순례란 하느님과 관련된 성스런 땅 - 성지(聖地) -을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는 경신행위를 말한다. 순례의 기원은 아마도 유대교의 유월절·오순절·초막절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순례는 신에 대한 흠숭의 의미뿐 아니라 회개·성인공경·은혜에 감사 등의 의미로 인식되었다.

초대교회에서는 주로 예수그리스도께서 생활하시던 팔레스티나를 순례하였고 그 후 순교자들의 피로 물들여진 로마의 순례도 성행하였다.



정해박해 진원지 곡성천주교 안내판(2000년 곡성문화원 설치)

정해박해와 천주교 곡성교회 춘향 고을 남원에서 20킬로미터 떨어진 거리, 수려한 섬진강과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곡성교회는 1827년 정해박해의 진원지로 교우들이 불잡혀와 갇힌 옥터가 있는 곳이다. 전남 곡성지방에 복음이 전래된 시기는 1815년경, 을해박해를 피해온 신자들이 이일대에 정착하고 부터이다. 덕실(송법리)마을에는 옹기집이 있었는데 일꾼은 모두 천주교 신자들이었다. 1827년 2월 어느 날 가마를 여는 축하연 자리에서 순교자 한덕운(토마스)의 아들 한백겸이 지나하게 취해 행패를 부리고 주막집 여주인에게 손찌검을 하자 남편 전씨가 홧김에 천주교서적을 가지고 그들을 고발하여 곡성현감은 한백겸과 교우들을 잡아들였고 재산을 몰수하였다. 신자들은 박해를 피하여 더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고 포졸들은 피신한 신자들을 잡기 위하여 순창·용담·임실·장성·전주까지 탄압의 손길을 확대하였다. 이때 잡힌 교우들은 전주에만도 240여명이 되었다고 한다.

정해박해는 여느 박해와 달리 그 기간은 짧았지만 탄압의 정도는 매우 심하였다. 특히 전라감사 이광문의 추위·더위·기갈 등을 동반한 고문은 악명 높아 500명의 신자 중 대부분이 배교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이 바오로의 누이이며 이명이의 어머니인 이 막달레나는 온갖 고초에도 굴하지 않고 황해도 백천으로 귀양가 4년의 유배생활 끝에 1830년 53세의 나이로 선종하였고, 이성지(세례자 요한)는 무려 9년의 옥고 끝에 1835년 선종하였다고 전해진다. 또 그의 셋째 아우인 이성삼(요한) 역시 옥중에서 사망하였다고 한다.

광주교구는 순교의 현장인 이곳에 본당을 설립키로 결정하고 1950년경 박해 당시 감옥터였던 곳에 대지를 마련, 1958년 4월 6일 허 미카엘 초대본당 신부를 맞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천년고찰 태안사



1) 머리말

태안사는 현재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동리산 서쪽 능선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교구 화엄사의 말사이다.

신라시대에는 지방호족이 대두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선종산문이 하나씩 개창되어 갔다. 선종은 기존에 신라사회에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던 교종의 논리를 부정하고 새로운 이념인 교외별전, 적지십인, 불립문자 등의 종지를 내세우며 혼란한 신라시대 사회 속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 당시 중앙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지방 호족 세력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해 갔다.

태안사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해철선사에 의해서 840년경 동리산에 개창된 선문 중에 하나이다. 이후 태안사는 수많은 한국불교사의 중요한 인물들을 배출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태종의 둘째아들인 효령대군이 원찰로 삼으면서 다른 사원들이 꺾박받고 통합되는 가운데서도 발전을 거듭해 나갔다.

1592년 임진년에 일어난 전란으로 인하여 전국토가 초토화되던 분위기 속에서 태안사 역시 전란의 화를 피하지는 못하였으며, 전쟁이 끝난 이후 몇몇의 스님들께서 중창의 의지를 불태워 다시 사찰을 일으키고 가람중건에 앞장섰다. 제2의 중흥기를 맞은 태안사는 근래까지 사찰이 잘 유지되어 오다 한국전쟁시 몇 동의 옛 건물만 남겨두고 전소되는 불운을 맞이하게 된다.

이후 사찰의 재건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거두어서 지금은 옛 모습은 많이 사라져 있지만 그런 대로 사격을 갖추고 있다.

태안사에는 창건기부터 근래까지의 기록인 태안사사적기가 잘 남아 있어 옛 모습을 유추하기에 더할나위 없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2) 동리산문 태안사의 개창

태안사의 초창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태안사 사적기』에 따르면 신라 경덕왕 원년 이름을 알 수 없는 三箇神僧에 의해서 창건되었다고 전한다.¹⁾

태안사에 남아 있는 유물을 통해서 볼 때 재고의 여지가 있지만 이후 혜철선사가 당나라에 유학하고 돌아와 동리산에 선문을 개창하기 전 이곳에는 조그마한 초암 정도의 사찰이 있었다고 일단 추정해 볼 수 있다.

중대신라의 안정기는 경덕왕을 고비로 사라지고 하대신라가 시작되었는데, 특히 9세기 2/4분기는 신라통일 이후 가장 심각한 혼란기였다. 822년 金憲昌의 난 에 뒤이어 825년 그의 아들 梵文이 다시 난을 일으키고, 그 후 836년에 흥덕왕이 돌아가자 잇따라 4년 동안(836-840)에 네 왕이 무력으로 교체되는 극도의 혼란이 중앙정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김현창과 범문의 대대적인 반란 이후 중앙정부의 권력은 지방을 통제할 힘을 거의 잃었고, 이때부터 지방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地方分權化가 정착되었다. 이러한 역사의 변혁을 가능케 한 것은 선종의 대두이다. 선종의 본격적인 전래는 821년 도의의 귀국으로 시작되는데 그는 크게 빛을 보지 못하고 전진사에 은거하고 만다. 선종이 전국적으로 기반을 잡기 시작한 것은 9세기 중엽 경부터였다.²⁾ 거의 모든 선종 조사들이 이때 중국에서 귀국하여 지방에서 성장한 호족의 지원을 받아 각지에서 선문을 개창하기에 이른다. 태안사 역시 이러한 신라학대의 시대적 분위기를 타고 전라남도 곡성 동리산에 산문을 열게 되었다.

태안사를 개창한 혜철선사의 성은 박씨, 시호는 적인이며 자는 체공, 법명은 혜철로 신라 원성왕 원년(785)에 경주에서 태어났다. 스님은 열네살에 출가하여 부석산에서 화엄학을 공부하고 스물 두 살때에는 구족계를 받았다. 814년(헌덕왕 6) 보다 폭넓은 공부를 하기 위하여 중국으로의 유학길에 올랐다. 스님은 중국에서 건너가 지장선사로부터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아 심인을 얻고, 지장선사가 돌아가자 이곳저곳을 3년간 유유하다 서주 부사사에 이르러 3년동안 열심히 대장경을 공부하고 경전의 오묘한 이치에 통달하였다. 중국에서 통달한 법을 고국에서 펼치고자 신무왕 원년(839)에 귀국하여 무주 쌍봉사에 주석하였다. 쌍봉사에 이어 理巖에도 머물렀으며 대략 860년경에 동리산으로 와서 동리산문을 부흥시켰다.

개창 당시 태안사의 위상과 관련하여 적인선사조문청정탑 비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文聖大王이 이를 듣고 像法和 末法시대에 걸쳐 많은 몸을 나타냈다고 이르고, 자주 글을 내려 위문하면서 겸하여 머물고 있는 절의 사방 밖에 살생을 금하는 幢을 세우기를 허락하였다. 이에 사신을 파견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를 물거늘 禪師가 封事 약간의 조항을 올리니, 모두 당시 정치에 급한 일인지라 왕이 매우 가상하게 여겼다.」³⁾

문성왕대에는 문성왕이 직접 글을 내려 혜철스님을 위로하고 사찰의 사방에 살생을 금하는 당을 세우기를 허락하여 사찰을 보호하고 있다.⁴⁾ 더불어 사신을 보내어 국정에 긴급한 사항들을 자문하고 선사는 이에 답하니 왕은 가상히 여겼다고 비문에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당시의 태안사의 위상과 혜철스님의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특히 혜철스님은 문성왕에게 封事를 올릴 정도로 시대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었는 데, 아쉽게도 그 이상으로 신라왕실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는 추정이 불가능하다.⁵⁾ 여하튼 혜철은 신라왕실에서 국정자문을 요청해 올 만큼 신라사회에서는 고승으로 추앙받고 있었고, 동리산문 역시 중요한 사찰로 급부상 했음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1) 『天寶元年壬午(新羅景德王元年)二月日不知東所三箇神僧來次開創』(『泰安寺誌』, 亞細亞文化社, 1984, p.112)

2) 備柄進, 『新羅下代 禪宗九山派의 成立』, 『韓國史研究』7(1972), pp.79~114, / 『韓國佛教史』(佛敎堂, 1989), pp.230~231.

3) 文聖大王開之謂 理多身於象末 頻顯慈悲願 兼所住寺四外 許立禁殺之幢 仍遣使問國之要綱 上封事若干條 隨時政之急務 王甚嘉賞(李智冠, 『校勘 歷代高僧碑文(新羅篇)』(佛山文庫, 1994), p.77, p.90.)

4) 김두선 교수는 “兼所住寺四外 許立禁殺之幢” 문장을 “아울러 住持하는 절 4곳 이외에 禁殺하는 당을 세우도록 허락하였다” 라고 번역하고 혜철이 주지한 절이 4곳이나 있었는데, 이들이 모두 동리산문을 이루고 있었다고 보았다. 곧 이들 4곳의 사찰이 현재 정확히 어떠한 사찰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흔히 이 4곳 중의 동리산문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찰은 혜철선사의 禪法弟子인 道統이 구족계를 받은 穿道寺와 주지로 머물렀던 광양 백계사의 玉龍寺, 그리고 도선에 의해서 창건된 구례 상곡사, 영암의 미우사 등도 동리산문으로 분류하고, 동리산문에 소속된 사원은 곡성을 중심으로 구례, 광양, 영암 등지에 퍼져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金柱珍, 『羅末禪初 桐裏山門의 成立과 그 思想 - 風水地理思想에 대한 再檢討-』, 『東方學』(1988), pp. 3~6.) 태안사의 내 곳에 금살 당을 세웠던 태안사 사방에 금살 당을 세웠던 간에 당시 동리산문은 태안사 이외 곡성과 영암, 구례, 광양 등지에 퍼져 있었다는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

5) 추만호, 『나말여초의 동리산문』, 『선각국사 도선의 신연구』(명안군, 1988), p.256.

혜철은 도선이 동리산문으로 들어오는 문성왕 8년까지에는 이미 대안사에 주석하고 있었다. 그의 입적은 경문왕 원년이며 비는 경문왕 12(872)에 崔賀 의해 쓰여져 건립되었다.

혜철 당시의 규모와 어떠한 건물들로 가람이 구성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어 판단할 수 없으나 사찰의 정제력에 관해서는 그의 비문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당시 태안사는 소유전답이 494結 39畝이며 자지는 143결, 염분이 43결이었으며, 사원의 노가 10구 비가 13구로 모두 23구로 기록되어 있다. 이때 동리산문은 500결에 달하는 거대한 사원으로 성장해 있었다.

혜철의 문하에는 W如, 幸宗, 道誥 등 수백이 있었다고 한다. W여가 혜철 입적 이후 대안사의 住持를 맡아 동리산문을 이끌자 도선은 옥룡사를 중심으로 道場을 삼았다. 동리산문을 이끈 W여스님에 대해서는 그의 행적을 알려주는 비문이나 기록이 없어 정확히는 알 수 없다. 따라서 W여스님 주지 당시의 태안사의 가람의 규모나 사세 등은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W여스님의 다음으로 允다가 법을 계승하여 동리산문을 이끌게 된다. 혜철 입적 후 동리산문의 법맥은 혜철의 전통법맥을 이은 대안사계와 도선의 법맥을 이은 광양의 옥룡사계로 분파되면서 발전하여 나갔다.⁶⁾

3) 고려시대의 태안사

고려 건국에 일조를 한 공으로 선종은 왕실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교종과 더불어 불교계의 양대산맥으로 발전해 나간다. 고려시대 동리산문 태안사를 이끈 주요 인물은 광자스님이다. 광자스님은 혜철 - 의 정통 법맥을 잇는 태안사의 중흥조이다. 혜철 스님을 이은 W여스님에 대한 기록은 비문이나 기타 문헌자료에 등장하지 않는 관계로 파악은 힘들다. 그러나 광자스님에 대한 기록은 금석총람 등과 사적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 스님의 행장을 상세히 파악 할 수 있다.

광자 운다의 字는 法身으로 姓은 미상이며 경문왕 4년(864) 경주에서 태어났다. 8세에 출가하였고 그후를 四海를 修歷하다가 桐裏山의 W如대사 문하에 들었다. 이어 伽鄜岬의 신부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다시 동리산으로 돌아온 운다는 그곳의 산적들을 교화하고는 주지로 있었다. 다만 이때가 언제 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태안사에 주석한지 얼마 되지 않아 운다는 왕건에게 來附하였고, 왕건은 랑관을 보내어 운다를 개경으로 맞이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왕건의 禪問을 답하였고, 개경에서 운다는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은 光宗의 돈독한 귀의를 받았다. 또한 운다는 載宗인 旭의 귀의를 받는 등 黃州의 皇甫氏 세력과 밀착되어 홍왕사에 주석하였다. 뒤에 그가 태안사로 귀산할 때에도 內議論인 皇甫忠良이 그를 모시고 있다. 이 때 고려왕실은 동리산문에 대해 많은 토지와 노비를 내렸다. 태안사로 돌아온 운다는 혜종 2년(945)에 입적하였는데, 그의 나이 82세이고 승납은 66세였다.⁷⁾ 그의 비는 그가 입적한지 6년 뒤인 광종 2년(951)에 세워졌다.

광자 운다 주석 당시 태안사는 고려왕조의 歸附와 지원속에 번영을 지속하였다. 태안사 사적기에 기록된 당시의 가람현황을 보면 모두 126칸에 이르는 대규모 사원으로 성장해 있었으며, 또한 이때 고려 왕실의 지원을 받아 증창되는 건물들도 꽤 있다. 더구나 이 기록에는 건물의 규모뿐만 아니라 방향, 전각내에 봉안된 불상, 불화류 등을 대체로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 특히 사적기 잡록의 「광자시 대중」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당시 태안사의 사세가 대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때 복전이 40이었으며 3천석 가까운 곡식과 5백결에 달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들 토지는 인근 보성, 승주, 나주, 영광에서부터 진주, 합천에 이르기까지 모두 여덟 곳에 나눠져 있었으며 사원 소속의 노비도 23명이나 되었다. 따라서 고려초기 태안사는 광자대사를 중심으로 사세가 왕성하게 번창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초 광자대사를 지나면서 동리산문의 법맥은 쇠퇴하여 갔다. 그러다가 고려후기 무신집권으로 인하여 개경문벌과 결탁된 교종세력을 약화시키는 대신 선종과 천태종을 후원하였다. 더불어 불교계의 중요한 지위인 국사, 왕사도 이 두 종파에서 독점하였으며, 중앙불교적인 성격을 띤 지방불교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다.⁸⁾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광자대사 이후 별다른 중흥의 기회를 찾지 못하던 동리산문은 무신정권의 후원을 받고 다시 한번 중창불사가 일어난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으로는 후기 무신집권기에 활동하던 文士 이규보가 쓴

6) 추민호, 「나말여초의 동리산문」, 『선각국사 도선의 신연구』(영암군, 1988)

7) 추민호는 13세 경에 출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민호, 「나말여초의 동리산문」, 『선각국사 도선의 신연구』, 영암군, 1988.), p.258.)

8) 金杜珍, 「羅末麗初 桐裏山門의 成立과 그 思想 - 風水地理思想에 대한 再檢討-」, 『東方學誌』(1988), pp. 14~15.

9) 許興植, 「13세기 高麗 佛敎界의 새로운 傾向」, 『高麗中後期佛敎史論』, 民族社, 1992), pp.69~98.

「大安寺 談禪榜」이 있다. 이규보의 문집인 『東國李相國集』 卷25에 실린 것을 옮겨 실은 것인데 대안사가 삼한의 근저인데도 절이 오래 되어 퇴락하였으므로 당시 집권자 崔瑀가 지원하여 새롭게 중창하고 담선대회를 열자 승려와 士庶들이 많이 모여들어 성황을 이루었음을 적고 있다. 원래 문집에서는 어느 때의 글인지 알 수 없으나 사적기에는 고종 15년(1228)경의 글이라고 밝히고 있다.¹⁰⁾ 즉 고려후기의 무신집권의 선종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동리산문도 번성할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태안사 입주문

4) 조선시대의 태안사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치는 동안 불교는 국가적인 지원과 일반 백성들의 열렬한 신앙을 받으면서 성장하였지만, 유교이념을 숭상하는 조선의 건국으로 인하여 일단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데, 태종 2년 密記에 불인 외방의 사사전을 혁파하자는 상소를 시작으로,¹¹⁾ 태종 6년에는 전국 사찰의 수와 토지, 노비의 수를 제한하고, 각 종파의 사찰 132개만을 남겨두게 된다. 같은 해 사간원에서 그 동안의 사찰의 폐단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찰 통폐합 등 시책에 관한 상소를 올리고, 태종은 이를 그대로 따랐다.¹²⁾ 그 다음 해에 의정부에서 전국의 명찰들을 선별하여 88개 사찰을 마을의 자복사로 대신하였으며, 태안사는 이때 조계종 소속사원으로 명맥을 유지하였다.¹³⁾ 세종 6년에는 불교의 모든 종파를 통폐합하여 선·교 양종으로 나누고 36개 사찰만을 남겨두게 된다.¹⁴⁾ 이때 선종에 포함된 사원이 18개소, 교종에 포함된 사원 역시 18개소인데 태안사는 선·교종 36개 사찰에는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 후 조선조의 불교탄압의 분위기 속에서 태안사는 태종의 2왕자로 불심이 깊어 여러 사찰을 유력하면서 인연을 남겼던 효령대군의 원당이 되면서 국가적 비호를 받게 된다. 현존하는 「宗文」을 보면 절로 하여금 祇役 등 일체의 잡역을 영구히 제거하도록 한다든지, 鄉約輩들의 절에 대한 훼손을 금지하고 전 토내의 벌목 등과 함께 병영 運力이나 산성 운력 그리고 관아에 바치는 각종 세금을 면제해 준 내용등을 볼 수 있다. 조선초기 불교가 탄압 받는 가운데 왕실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 태안사의 사격을 짐작할 수 있다.¹⁵⁾ 이런 비호 속에 효령대군은 1447년 세종과 왕비, 왕세자의 수복을 빌기 위하여 태안사에 국내 최대의 大鉢을 발원하고 제작하였다.

이후 1530년에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 谷城縣 佛宇條에 “泰安寺在桐裏山”라고 기록되어 있어 사찰이 존속여부를 알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중에는 선조 14년(1581)에 주조된 동종이 남아 있다.

임진왜란시에는 태안사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선조 26년(1593)년에 전라도 지역중 전란의 피해를 입은 곳은 珍山, 鎭山등의 군과 龍潭, 茂州 등이며 곡성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¹⁶⁾ 이후 왜적과 토적으로 돌변한 백성들에 의해 이 지역은 人家는 물론 官舍 등이 모두 焚蕩되고 급기야는 중국 청나라 군대가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왜적들을 토벌하기 위하여 급파되기도 하였다.¹⁷⁾

위의 기록에서 알수 있듯이 곡성 지역이 왜적과 토적들에 의해 분탕되는 상황 속에서 태안사도 전란의 화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것은 역으로 태안사지에 기록된 대부분의 중창, 재건된 건물들이 임진왜란 이후에 이루어

10) 『泰安寺誌』(亞細亞文化社, 1984), pp.123~126 / 崔完榮, 『名刹雜編』3(대원사, 1994), pp.389~390.

11) 『太宗實錄』卷3, 太宗 2年 4月 22日 甲戌 條.

12) 『太宗實錄』卷12, 太宗 6年 7月 1日 戊午 條.

13) 『太宗實錄』卷14, 太宗 7年 12月 2日 辛巳 條 條 條.

14) 曹溪, 天台, 總南 3종을 합쳐서 禪宗으로 하고, 華嚴, 慈恩, 中神, 始興 4종을 합쳐서 教宗으로 하였다. 『太宗實錄』卷24, 世宗 6年 4月 5日 庚戌.

15) 사적기에 증진부가 직상해 보낸 두 건의 宗文이 있는데 하나는 숙종 39년(1713)의 것이고 또 하나는 영조 23년(1747)의 것이다. 『泰安寺誌』(亞細亞文化社, 1984), pp.127~133 / 寺刹文化研究院, 『태안사』(『전통사찰총서-경주·전남의 전통사찰』-7, 1996), p.92.

16) 『宣祖實錄』卷39, 宣祖 26年 6月 5日 戊子 條 條 條.

17) 『宣祖實錄』卷41, 宣祖 26年 8月 3日 甲申 條 / 『宣祖實錄』卷41, 宣祖 26年 8月 9日 庚寅 條 / 『宣祖實錄』卷42, 宣祖 26年 9月 6日 丁巳 條 條 條. (이외 전경의 피해상황을 『신조실록』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태안사 농파각

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의 태안사의 상황에 대해 현존하는 사적기에 기록된 내용을 시대순으로 살펴보면,¹⁸⁾ 우선 숙종 28년(1702)에 봉서암과 삼일암을 중건하기 위하여 송광사의 명승 無用, 秀演이 新建募緣文을 썼음을 알 수 있다.¹⁹⁾

이때 봉서암은 覺玄 上人이 중심이 되어 법당을 짓고 아미타 삼존을 봉안하였으며 신건기는 無用이 썼다. 성기암은 숙종 33년(1707)에 釋卜上人을 중심으로 중창하고, 무용대사가 상량문을 지었다.

영조 원년(1725)에 會一, 穎明 등이 대웅전의 오른쪽 모퉁이 기둥과

후면 기둥을 고쳐 세우고, 영조 13년(1737)에는 농파각을 중수하였다. 영조 14년에는 향적전을 중건하였으며, 영조 20년(1744)에는 명부전을 중수 및 단청하였다. 영조 25년(1755)에는 대선사 桐坡 定心대사가 원력을 세워 대웅전을 중창하고, 같은 해에 寂默堂도 중수된다. 영조 40년 7월 28일 밤에 큰비가 내려 농파각이 붕괴되었으며, 2년 뒤인 영조 42년(1766)에는 무너진 농파각을 보수하였다. 영조 50년 12월 밤에 적묵당이 화재를 입었으나 다음해 주지 卓日스님의 주도하에 중건되었다.

정조 20년(1796)에는 보제루가 雲谷 閔甫, 龍波 謹坦, 臥月 教萍 등의 도움으로 도편수 조덕진에 의해 중창되며, 정조 22년(1798)에는 미타전을 중수하고 중건기는 선암사 문중인 월파가 썼다.

순조 9년(1809)에는 퇴락한 농파각을 중수하고 순조 21년(1821)에는 명부전을 중수 단청하였으며, 순조 31년(1831)에는 東日庵을 중건하였다. 철종 6년(1855)에는 동일암 王關을 중건하고 철종 12년(1861)에 다시 농파각을 중수하였다.

고종 10년(1873)에는 미타전 오른쪽에 응진당을 새로 건립하고 이미 폐허가 된 인근 대흥사에서 16나한상을 옮겨다 봉안하였다. 그런데 이로부터 분쟁이 일어나고 승려들이 흩어지며 재물이 손상되니 객불을 모신 때문이라는 여론이 비등하여 10년만인 1883년에 대중의 의견에 따라 이 16나한상을 아미산 천태암에 이관하였다가 1904년에 성기암으로 옮기고 이듬해에 승탑전에, 다시 이듬해에는 해회당에 그리고 4년 뒤에는 동일암에 옮겼다가 다시 이듬해에 해회당 또 다음해에는 관음전을 응진전으로 환원하여 다시 모셨다. 관음전은 나한상을 천태암으로 옮겨가고 나서 1903년에 응진전 건물은 산의 정맥인 구법당 터에 이관하고 관음상을 봉안하여 새로 붙인 이름이다. 고종 14년(1877)에는 惠微庵이 화재를 입었다.

일제강점기에도 태안사는 지속적으로 중건과 중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정 5년에는 성기암 주지 영월스님에 의해 칠성각이 중수되었고, 같은 해 대웅전과 응진당을 기와를 같이 이었다. 대정 6년(1917) 적묵당과 동일암, 일주문, 해회당을 중수하였고, 대정 9년(1920)에는 봉서암을 중수하였다. 대정 11년(1922)에는 농파각과 적묵당을 중수하고, 다음해에 대지전을 중건하였다. 대정 13년(1924)에는 명적암을 중수하고 같은 해에 應接室을 새롭게 건립하였다. 소화 2년(1927)에는 성기암이 중건되었다.

태안사는 신라시대 해철스님의 개창 이래 고려, 조선을 거쳐 민족의 수난시기인 일제 강점기에도 법맥이 단절되지 않고 건물이 중창, 중건되는 등 구산선문의 전통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태안사지는 조선 숙종 이후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태안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태안사의 가람과 연혁을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5) 근대 · 현대기의 태안사

이후 태안사는 한국전쟁시 격심한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건립된 몇 동의 건물을 제외하고 많은 건물들이 전소하게 된다. 이후 1969년대에 곡성군의 보조로 대웅전을 재건하고 다시 1991년에 신건하였다. 1985년 청하스님이 주석하면서 사세를 확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사찰 일원은 전남문화재자료 제23호로 지정되어 있다.

18) 『泰安寺誌』(亞細亞文化社, 1984)와 최완수 「名刹巡禮」 중 정병성이 기술한 「태안사」 내용을 참조하였다.

19) 『泰安寺誌』(亞細亞文化社, 1984) pp. 49~51

태안사 귀중품(조선총독부 관보 / 1933)

아래 도표에 나타나는 귀중품은 일제 강점기인 1933년 조선총독부에서 조사한 귀중품 현황을 기재한 "동리산 태안사" 태안사 지표조사 보고서, 「대한불교 조계종 동리산 태안사 발행 2001」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조선총독부 관보 태안사(泰安寺) 귀중품(1933년 4월 19일, 제1881호)

NO	명 칭	개수	품 질	형 태	크 기	현존유무
1	아미타불	1	목제도금	좌상	높이 6척5촌(197.3cm)	×
2	관세음보살	1	·	·	높이 4척6촌(139.4cm)	×
3	대세지보살	1	·	·	높이 4척6촌(139.4cm)	×
4	석가여래	1	석제도분	·	높이 2척1촌(63.9cm)	×
5	미륵보살	1	·	·	높이 1척7촌(51.5cm)	×
6	가라보살	1	·	·	높이 1척7촌(51.5cm)	×
7	나한	1	·	·	높이 1척8촌(54.5cm)	×
8	사자	2	·	·	높이 2척2촌(66.7cm)	×
9	지장보살	1	목제도금	·	높이 3척9촌(118.2cm)	×
10	도명존자	1	목제도분	·	높이 5척8촌(175.7cm)	×
11	무독귀왕	1	·	입상	높이 5척8촌(175.7cm)	×
12	시왕	10	·	거상(踞像)	높이 5척3촌(160.6cm)	×
13	관관	6	·	·	높이 4척2촌(127.3cm)	×
14	동자	10	·	입상	높이 2척2촌(66.7cm)	×
15	사자	2	·	·	높이 2척3촌(69.7cm)	×
16	관세음보살	1	목제도금	좌상	높이 1척2촌(36.4cm)	×
17	아미타불	1	·	·	높이 3척(90.9cm)	○
18	관세음보살	1	·	·	높이 2척(60.6cm)	○
19	대세지보살	1	·	·	높이 2척(60.6cm)	×
20	관세음보살	1	·	·	높이 2척4촌(72.7cm)	×
21	아미타불	1	·	·	높이 2척5촌(75.8cm)	×
22	관세음보살	1	·	·	높이 2척5촌(75.8cm)	×
23	대세지보살	1	·	·	높이 2척2촌(66.7cm)	×
24	관세음보살	2	·	·	높이 8촌(24.2cm)	×
25	독성존자	1	목재도채	·	높이 2척5촌(75.6cm)	×
26	석가여래탱	1	건제	괘도	세로 10척6촌, 가로10척9촌(321.2×330.8cm)	×
27	삼장탱	1	·	·	세로7척6촌, 가로 12척(230.3×363.6cm)	×
28	신장탱	1	·	·	세로 7척8촌, 가로 2척 3촌(236.3×69.7cm)	×
29	산신탱	1	·	·	세로 3척6촌, 가로3척 7촌(109.1×12.1cm)	×
30	산신탱	1	·	·	세로 4척2촌, 가로 6척7촌(127.3×203cm)	×

NO	명 칭	개수	품 질	형 태	크 기	현존유무
31	독성탱	1	견제	*	세로 2척, 가로 1척2촌(60.6×36.4cm)	×
32	석가여래탱	2	*	괘도		×
33	신장탱	1	*	*	세로 7척8촌, 가로 6척3촌(236.3×190.9cm)	×
34	지장탱	1	*	*	세로 6척8촌, 가로 6척3촌(206×190.9cm)	×
35	아미타불탱	1	*	*	세로 5척3촌, 가로 4척7촌(160.6×142.4cm)	×
36	산신탱	1	*	*	세로 3척2촌, 가로 2척2촌(96.7×66.7cm)	×
37	조사영정	11	*	*		×
38	신장탱	1	*	*	세로 4척2촌, 가로 2척9촌(127.3×87.9cm)	×
39	아미타탱	1	*	*	세로 6척, 가로 4척5촌(181.8×136.4cm)	×
40	신장탱	1	*	*	세로 3척2촌, 가로 1척8촌(96.7×54.5cm)	×
41	현왕탱	1	*	*	세로 3척2촌, 가로 2척8촌(96.7×84.8cm)	×
42	산신탱	1	*	*	세로 2척3촌, 가로 2척6촌(69.7×78.8cm)	×
43	지장탱	1	*	*	세로 3척2촌, 가로 1척8촌(96.7×54.5cm)	×
44	칠성탱	1	*	*	세로 3척8촌, 가로 3척9촌(115.1×118.2cm)	×
45	미타탱	1	*	*	세로 4척8촌, 가로 2척5촌(145.4×75.75cm)	×
46	신장탱	1	*	*	세로 6척, 가로 5척4촌(181.8×163.6cm)	×
47	석가탱	1	*	*	세로 5척5촌, 가로 6척5촌(166.7×197cm)	×
48	신장탱	1	*	*	세로 4척6촌, 가로 3척1촌(139.4×93.9cm)	×
49	산신탱	1	*	*	세로 3척3촌, 가로 2척4촌(100×72.7cm)	×
50	석가탱	1	*	*	세로 5척3촌, 가로 5척8촌(160.6×175.7cm)	×
51	지장탱	1	*	*	세로 8척5촌, 가로 3척8촌(257.6×115.1cm)	×
52	현왕여래탱	1	*	*	세로 4척8촌, 가로 3척8촌(145.4×115.1cm)	×
53	신장탱	1	*	*	세로 6척8촌, 가로 5척1촌(206×154.5cm)	×
54	산신탱	1	*	*	세로 2척9촌, 가로2척4촌(87.9×72.7cm)	×
55	하단탱(下壇幀)	1	*	*	세로 8척, 가로 3척8촌(242.4×115.1cm)	×
56	칠성여래탱	1	*	*	세로 4척5촌, 가로 3척6촌(136.4×109.1cm)	×
57	신장탱	1	*	*	세로 4척3촌, 가로 2척4촌(130.1×72.7cm)	×
58	독성탱	1	*	*	세로 1척5촌, 가로 1척6촌(45.5×48.5cm)	×
59	산신탱	1	*	*	세로 2척3촌, 가로 1척6촌(69.7×48.4cm)	×
60	아미타탱	1	*	*	세로 4척5촌, 가로 4척4촌(136.4×133.3cm)	×

NO	명 칭	개수	품 질	형 태	크 기	현존유무
61	지장탱	1	·	좌상	세로 6척1촌, 가로 6척2촌(184.8×187.9cm)	○
62	찰성탱	1	·	·	세로 6척1촌, 가로 6척2촌(184.8×187.9cm)	○
63	산장탱	1	·	·	세로 2척5촌, 가로 3척9촌(75.8×118.2cm)	○
64	산신탱	1	·	·	세로 3척3촌, 가로 3척9촌(100×118.2cm)	○
65	독상탱	1	·	·	세로 3척5촌, 가로 2척4촌(106.1×72.7cm)	○
66	조사석탑	3	석제	입형		○
67	승탑	5	·	·	높이 5척(151.5cm)	○
68	조사석비	1	·	·	높이 6척 5촌(197cm)	○
69	태안사사적	1	지제	제본	세로 1척2촌, 가로 8척5분(36.4×26.6cm)	○
70	해철국사비명	1	·	·	세로 1척2촌, 가로 8촌(36.4×24.2cm)	○
71	광자국사비명	1	·	·	세로 1척1촌, 가로 8촌(33.3×24.2cm)	○
72	법화경	134	·	·	세로 1척, 가로 7촌(30.3×21.2cm)	×
73	금강경	6	·	·	세로 1척, 가로 7촌(30.3×21.2cm)	×
74	설화	5	·	·	세로 1척, 가로 7촌(30.3×21.2cm)	×
75	회현기	9	·	·	세로 1척, 가로 7촌(30.3×21.2cm)	×
76	원각경	4	·	·	세로 1척1촌, 가로 7촌(33.3×21.2cm)	×
77	불명경	1	·	·	세로 1척, 가로 7촌(30.3×21.2cm)	○
78	화엄경	163	·	·	세로 1척, 가로 7촌(30.3×21.2cm)	○
79	별행경	4	·	·	세로 1척, 가로 7촌(30.3×21.2cm)	×
80	천자판	17	목제	판본	세로 1척 7촌, 가로 7촌(51.5×21.2cm)	×
81	청로집판	38	·	·	세로 1척7촌, 가로 7촌(51.5×21.2cm)	×
82	은중경판	15	·	·	세로 1척, 가로 7촌(30.3×21.2cm)	×
83	장명경판	20	·	·	세로 1척, 가로 7촌(30.3×21.2cm)	×
84	금강경소기판	117	·	·	세로 1척, 가로 7촌(30.3×21.2cm)	×
85	운수집판	17	·	·	세로 1척, 가로 7촌(30.3×21.2cm)	×
86	산신탱	1	·	·	세로 3척3촌, 가로 3척9촌(100×118.2cm)	×
계		664				11(1.7%)

松廣寺本末財産臺帳 中 泰安寺 (1940년)

불교조각(佛敎彫刻)

NO	명 칭	재 질	수 량	현존유무(%)	비 고
1	조아미타불좌상(造阿彌陀佛坐像)	목제도금	5	×	1구 유존
2	조관음보살좌상(造觀音菩薩坐像)	·	5	×	
3	조대세지보살좌상(造大勢至菩薩坐像)	·	3	×	1구 유존
4	석가불좌상(釋迦佛坐像)	옥체도분	1	×	
5	미륵보살좌상(彌勒菩薩坐像)	·	1	×	
6	가나보살좌상(迦羅菩薩坐像)	·	1	×	
7	나한좌상 (羅漢坐像)	·	18	×	
8	사자상(使者像)	·	4	×	
9	지장보살좌상(地藏菩薩坐像)	목제도금	1	×	
10	도명존자상(道明尊者像)	·	1	×	
11	무독귀왕상(無毒鬼王像)	·	1	×	
12	독성상(獨聖像)	목제도분	1	×	
13	십왕상(十王像)	목제도금	10	×	
14	판관상(判官像)	·	6	×	
15	동자상(童子像)	·	10	×	
소계			68	2(2.9)	91.7% 소실

불교회화

NO	명 칭	재 질	수 량	현존유무(%)	비 고
1	석가여래정(釋迦如來幀)	명주	5	×	
2	삼장불화(三藏佛畵)	·	1	×	
3	신장화(神將畵)	·	5	×	
4	신장화(神將畵)	·	4	×	
5	산신화(山神畵)	·	4	×	
6	산신화(山神畵)	·	2	×	
7	산신화(山神畵)	백지	1	×	
8	아미타불화(阿彌陀佛畵)	명주	4	×	
9	지장보살화(地藏菩薩畵)	·	4	×	
10	혜철국사화(慧徹國師畵)	·	1	×	

NO	명 칭	재 질	수 량	현존유무(%)	비 고
11	사명대사화(泗冥大師畫)	목제도금	1	×	
12	무용대사화(無用大師畫)	·	1	×	
13	서산도일대사화(西山都一大師畫)	·	1	×	
14	풍암대사화(風岩大師畫)	·	1	×	
15	도암대사화(道庵大師畫)	·	1	×	
16	금운대사화(錦雲大師畫)	·	1	×	
17	월곡대사화(月谷大師畫)	·	1	×	
18	현왕화(賢王畫)	·	1	×	
19	칠성화(七星畫)	·	1	×	
20	칠성여래화(七星如來畫)	·	1	×	
21	독성화(獨聖畫)	·	1	×	
22	현왕여래화(賢王如來畫)	·	1	×	
23	하단화(下壇畫)	·	1	×	
24	칠성여래화(七星如來畫)	·	2	×	
계			46	1(2.2)	97.8% 소실

탑(塔)/석조(石造)

NO	명 칭	재 질	수 량	현존유무(%)	비 고
1	석탑(石塔)	석	5	○	삼축석탑 1기 유존 屋臺石면 1점 유존
2	석룡(石龍)	·	1	×	
3	부도(浮屠)	·	3	○(7)	해탈탑, 관자탑 및 말각원당형승 탑 2기, 석종형 승탑 3기 유존
계			9	8(88)	

전적류(典籍類)/경판(經板)

NO	명 칭	재 질	수 량	현존유무(%)	비 고
1	태안사사적(泰安寺寺蹟)	백지	1冊	○	
2	광자선사비명(廣慈禪師碑銘)	·	1冊	○	
3	법화경(法華經)	·	135冊	×	
4	금강경(金剛經)	·	6	×	
5	설화경(說話經)	·	5	×	

NO	명 칭	재 질	수 량	현존유무(%)	비 고
6	회현기(會玄記)	백지	9	×	
7	별행록(別行錄)	·	4	×	
8	화엄경(華嚴經)	·	163	×	
9	원각경(圓覺經)	·	4	×	
10	불명경(佛名經)	·	1	×	
11	잡경(雜經)	·	9	×	
12	법화경책판(法華經冊版)	목	30枚	×	
13	금강경책판(金剛經冊版)	·	149枚	×	
14	지장경책판(地藏經冊版)	·	38枚	×	
계			555	2(0.36)	99.6% 소실

불교공예(佛敎工藝)/불구(佛具)

NO	명 칭	재 질	수 량	현존유무(%)	비 고
1	법고(法鼓)	우피삼목(牛皮杉木)	3	○	
2	식장(食鼎)	수철(水鐵)	1	○	
3	원경(圓鏡)	백은철(白銀鐵)	2	×	
4	촉대(燭台)	·	2	×	
5	촉대(燭台)	진철(眞鐵)	2	×	
6	경금(擘金)	·	7	×	
7	요령(搖鈴)	·	6	×	
8	불경지경(佛磬脂鼎)	수철(水鐵)	6	×	
9	배병징(排瓶鼎)	·	6	×	
10	불반(佛盤)	진철(眞鐵)	6	×	
11	광금(光金)	·	5	×	
12	목탁(木鐺)	괴목(槐木)	1	×	
13	향로(香爐)	진철(眞鐵)	12	×	
14	불기(佛器)	황철(黃鐵)	42	×	
15	범종(梵鐘)	진철(眞鐵)	4	○	현존명 동종 10유존
16	발나(鉢羅)	·	1	○	효령대군 시주 1회
17	운판(雲板)	·	1	×	

NO	명 칭	재 질	수 량	현존유무(%)	비 고
18	소종(小鐘)	·	4	×	
19	양개(良蓋)	황철(黃鐵)	6	×	
20	차기(茶器)	진철(眞鐵)	8	×	
21	불발개(佛鉢蓋)	진철(眞鐵)	1	×	
22	초관(草灌)	황철(黃鐵)	4	×	
23	갱정(羹鼎)	수철(水鐵)	4	×	
24	세의정(洗衣鼎)	·	3	×	
25	화로(火爐)	진철(眞鐵)	1	×	
26	유병(鑰瓶)	수철(水鐵)	1	×	
27	벌해(伐海)	·	1	×	
소계			140	2(1.4)	98.6% 소실
총계			818	15(1.8)	98.2% 소실

한국전쟁 전·후의 태안사 건축물 현황(산내암자 포함)

NO	건 물 명	연 대	현존유무(%)	비 고
1	대웅전	1779 중창 1725 보수 1902 번와 1916 번와	×	· 한국전쟁때 소실 · 1969년 봉서암 극락전 건물을 이건 · 1993년 신건
2	미타전	1800 중건 1924 중수	○	· 한국전쟁때 소실 · 현 영학실
3	경금(鑿金)	1800 중건 1924 중수	×	· 한국전쟁때 소실
4	경금(鑿金)	1903 이건	×	· 한국전쟁때 소실
5	응진당	1873 신건 1916 번와	×	· 한국전쟁때 소실
6	대지전	1923 신간상량	×	· 한국전쟁때 소실
7	향적전	1738 중건	×	· 한국전쟁때 소실
8	적묵당	1774 화재 1775 중건 1917 중수 1922 중수	×	· 한국전쟁때 소실

NO	건 물 명	연 대	현존유무(%)	비 고
9	해회당	1917 중수 1924 중수	○	
10	미타전	1894 증건	×	• 한국전쟁때 소실
11	보제루	1796 중창	○	
12	공루	1917 중수	×	• 한국전쟁때 소실
13	고사(庫舍)	1683 신건 1718 이건	×	• 한국전쟁때 소실
14	응접실	1924 신건	×	• 한국전쟁때 소실
15	각요사	1902 변와	×	• 한국전쟁때 소실
16	임주문	1917 중수	○	• 한국전쟁때 소실
17	농파각	1737 상량 1764 붕괴 1766 중수상량 1773 증건 1809 중수상량 1861 중수상량 1922 중수 1923 중수상량	○	• 한국전쟁때 소실

독립유공자 공훈록

본 내용에 게재된 독립유공자들은 곡성지역을 배경으로 활동한 독립유공자들이며, 지속적으로 본 지를 통해 게재코저 합니다.

곡성지역을 배경으로 활동한 독립유공자

1. 강진원(姜震遠) 의병
출생 : 1881. 7. 30 사망 : 1911. 7. 19 독립장(77)
2. 고광문(高光文, 光述) 의병
출생 : 1864. 4. 7 사망 : 1945. 5. 12 건국포장(2002)
3. 고광순(高光洵, 光旭) 의병
출생 : 1848. 2 사망 : 1907. 10 독립장(62)
4. 고광재(高光彩) 의병
출생 : 1876. 8. 4 사망 : 1942. 12. 30 애국장(90)
5. 고광훈(高光勳) 의병
출생 : 1862. 4. 7 사망 : 1930. 10. 26 애국장(90)
6. 고석진(高石鎭) 의병
출생 : 1856. 1. 11 사망 : 1924. 12. 26 애국장(90)
7. 고예진(高禮鎭) 의병
출생 : 1875. 11. 24 사망 : 1952. 10. 2 애국장(90)
8. 고제량(高濟亮, 高聖強) 의병
출생 : ? 사망 : 1907. 10. 11 독립장(63)
9. 공성찬(孔成瓚) 의병
출생 : ? 사망 : 1909. 9 애국장(91)
10. 기우만(奇宇萬) 의병
출생 : 1846. 8. 17 사망 : 1916. 10. 28 독립장(80)
11. 김성현(金聖炫) 군자금 모집
출생 : 1885. 사망 : 1954. 1. 27 애국장(90)
12. 김제중(金濟中) 군자금 모집
출생 : 1893. 5. 24 사망 : 1950. 11. 10 애국장(90)
13. 김중택(金鍾澤) 국내항일
출생 : 1889. 5. 5 사망 : 1920. 8. 26 애국장(90)
14. 김황국(金淸國) 의병
출생 : 1908 사망 : 50세 애국장(95)
15. 노석정(盧錫正, 盧基準, 盧琳壽) 군자금 모집
출생 : 1892. 8. 6 사망 : 1967. 12. 12 애국장(90)
16. 노형규(盧衡奎, 盧塚弼) 군자금 모집
출생 : 1876. 12. 3 사망 : 1947. 11. 27 애국장(90)
17. 문달환(文達煥) 의병
출생 : 1851. 8. 21 사망 : 1938. 3. 7 애국장(90)

강진원

1907년 고종황제가 퇴위(退位)되자 항일투쟁선전에 뛰어들었다. 1908년 동향의 우국지사인 김명거(金明巨), 김화삼(金化三), 권덕윤(權德允), 김병학(金炳學) 및 곡성의 김양화(金良化) 등과 더불어 결의하고 그해 6월에 의병부대를 인솔하고 승주군의 조계산(曹溪山)으로 나아가 유진(留鎭)하면서 훈련하였으며, 7월에는 죽음을 맹세한 동지 33명이 이 의병진에 합세 가담하였다. 그후 보성 곡성 등지에서 활약하던 조규하(趙圭夏)와도 동맹하니 그 휘하의 의병군 40여명이 다시 합류한 뒤 조규하와 더불어 작전술을 숙의하였다. 1908년 8월 곡성군 석곡면의 조지촌(鳥枝村)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접전하였는데 불행히도 조규하가 이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이 후 목사동(木寺洞)으로 진격하여 일본군과 교전(交戰)하였으며, 8월 25일에는 곡성의 통명산(通明山)에다 진을 쳤다. 또한 9월 23일에 적을 기습 공격하여 일본군 3명을 사살하는 전과(戰果)를 거두었고 10월초에는 남해 장도(樟島)에서 전개된 해전(海戰)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어 10월 5일 전남 고흥군 과역면(過驛面) 과역리 시장에서 일본군과 접전하여 적 수명을 사살하고 무기 등 다수를 노획하였다. 그러나 그 달 9일에 여수 회양면 원포리(遠浦里)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패배하여 의병진을 수습한 뒤 승주군 쌍암지역으로 회군(回軍)하게 되었다. 그후에도 부하들로 하여금 각지에서 유격전을 전개하도록 지시하면서 자신도 승주 곡성 및 화순 등지에서 산병전(散兵戰)을 펼쳐 관내를 휩쓸면서 적을 교란시켜 격파하니 전라도 일대에 그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이듬해 1909년 1월부터 4월에 걸쳐 승주군 서정(西亭)병참소를 습격하는 등 많은 항일투쟁을 전개하고 나서 4월에 남원으로 의병진을 이끌고 진격하여 곡성부근 섬진강의 지류인 압록강(鴨綠江)에서 적군 병참소를 습격하였다. 4월말에 곡성의 서순일(徐淳一) 의병부대가 이에 합류하니 총 240명 정도의 병력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어 5월에 석곡(石谷)의 일본군 병참소를 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6월 11일 강진원 의병진이 승주군 서면 당천리(堂川里)의 색천사정(索川社亭)에서 노숙하던 중 일본군의 앞잡이 김원학(金源學)이 인솔하던 구례군 헌병대의 기습을 받게 되어 참패하고 퇴각하였다. 그런데 1909년 일제의 의병초토화작전으로 인해 많은 의병

항쟁이 종과부적으로 쇠퇴됨에 따라 강진원의 의병진도 6월의 패전 이후 활동하지 못하다가 그해 말경에 해산된 듯하다. 즉 강진원은 1909년 8월 중순 남해의 통영 연내도(蓮內島)로 일단 피신하였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두모리 오성산(五聖山) 외딴 동굴에서 은거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그 뒤 그의 은신처가 발각되어 체포되자 자결 순국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註 휘응록(강진원 제) / 진중일기 / 강진원의병정략전(민족문화협회)

고광문

전남 담양(潭陽) 사람이다.

호남의병장 고광순(高光洵)의 동생으로 전남 일대에서 의병의 거의를 추진하였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乙巳條約)'이 강제로 체결되자 고광문은 무력투쟁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고자 의병의 재기를 도모하였다. 그는 전남 일대에서 활동하던 고광순(高光洵) 의병장이 패산하자 1907년 11월 남원(南原)에서 활동하였던 이평국(李平局)과 순창(淳昌)에서 활동하였던 강사과(姜司課) 등과 함께 전남 곡성(谷城) 일대에서 군사를 규합하고 군수물자를 제조하는 등 재기를 추진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註·暴走에 관한 編冊(1907. 11. 10 6 1 2. 2)

고광순

북천 고광순은 단발령이 내려지자, 대장 기우만을 호종하면서 각 고을로 통문을 돌려서 2월 30일 광주에서 회합할 것을 알렸다. 그러나 의거는 미연에 그치고 말았다.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1906년 4월 면암 최익현이 순창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고제량(高濟亮)과 함께 면암을 찾아갔으나 이미 면암은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된 후였다. 1907년 1월 24일 고광순은 인봉과 더불어 창평 저산(猪山) 분암(墳庵)에서 창의의 기치를 세웠다. 이때 광훈 광수 광채 그리고 윤영기(尹永淇) 박기덕(朴基德) 등이 참여하였다. 고광순이 주장(主將) 되었다. 이때 남원의 양한규(梁漢奎)로부터 남원합동작전의 연락을 받고 2월에 남원으로 진격하였으나 도착하기 전에 양한규 등의 의병이 이미 실패하였기 때문에 일시 남원성 포위전을 벌이다가 퇴각하였다. 4월 25일 다시 대열을 정돈하고 윤영기(尹永淇) 등과 함께 화순읍으로 진격하여 점령하고, 일본군에 협력하는 자들의 가옥을 모두 불태웠다. 26일 다시 동북으로 진군하였는데 광주부에서 파견된 관군들과 도마치(圖馬峙)전투에서 패배하여 산중으로 숨어 수시로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8월경부터 고광순은 고제량 윤영기 신덕균(申德均) 등이 다시 창평 제심리(昌平 齊心里)를 중심으로 집합 연락하여 대규모의 거사를 계획하였다. 9월 11일 고광순은 도독(都督)이 되어서 박성덕(朴聖德)과 고제량을 도총(都總) 및 선봉으로 삼고, 신덕균(申德均) 윤영기 등을 참모로 삼고행군하여 동북 땅을 지나 곡성군 구룡산(谷城郡 九龍山) 아래에 이르

렀다. 9월 14일 새벽에 동북읍내를 점령하고 적들을 해산시킨 다음 다시 남원 곡성 등지를 지나며 격문을 각지로 보내었다.

1907년 9월 17일 지리산 화개동(花開洞)으로 들어가 군사들을 훈련시켰다. 이때 동북 순천(順天) 곡성 광양(光陽) 구례 등지에서 군사로 참가한 자가 1천을 헤아렸다. 그러나 동년 10월 11일 적의 기습을 만나 고광순을 비롯하여 고제량 등 10여명이 화개동 연곡사(燕谷寺)에서 전사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註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155 181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권 245 246 248 249 250 402 403 404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2권 522 635 636 637 685 688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3권 281 282 283 285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1권 568 834면

고광채

전남 담양(潭陽)사람으로 본은 고흥(高興)이다.

고광채는 고제량(高濟亮) 고광훈(高光薰) 고광수(高光秀 光德) 등과 함께 북천 의진에서 활약하였다. 북천 의진은 1907년 1월 24일 창평 저산 분암(昌平 猪山 墳庵)에서 창의 기치를 세우고 고광순을 주장(主將)으로 하고 각처에 연락하여 함께 의병거사를 계획하던 중 남원의 양한규(梁漢奎)로부터 남원 합동작전을 연락 받고 곧 행군을 개시하여 2월에 남원으로 진격하였으나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양한규 의진이 이미 실패하였기 때문에 일시 남원성 포위전을 벌였으나 곧 퇴각하였다. 다시 병력을 증강하여 능주로 진격하여 4월 25일 이를 점령하였다. 이튿날 동북으로 진군하였으나 광주부에서 파견된 관군과 접전하다가 패배하여 군사가 일시 흩어졌다.

9월 11일에 고광순을 도독(都督)으로 삼고 지리산 아래에서 장기 항전을 계속하기 위하여 동북을 거쳐 곡성군 구룡산(谷城郡 九龍山)아래에 이르렀을 때 참모 신덕균의 제의로 동북을 토벌하기로 결정, 9월 14일 새벽 동북읍을 점령하고 적들을 궤멸시켰다. 9월 17일 지리산 화개동으로 들어가 유진하고 군사들을 훈련하는데, 소문을 듣고 인근에서 의사들이 몰려와 군사 1천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0월 11일 구례 연곡사(燕谷寺)의 본영으로 적군이 내습해 들어왔다. 군대를 2대로 나누어 끝까지 분전하였으나 고광순 고제량이 전사하고 많은 의사가 체포되는 등 크게 패하여 군사들이 흩어졌다. 그중 일부는 운봉(雲峰) 함양(咸陽) 순창(淳昌) 정읍(井邑) 등지로 전전하면서 의병운동을 주도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註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권 402 403 404 592 593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2권 635 636 637 639면

고광훈

전남 담양(潭陽) 출신으로 본은 고흥이다.

음미호남의병장 북천 고광순(鹿泉 高光洵)의 동생으로서 그

의 아들 재춘(在春)은 후사 없이 돌아간 녹천의 양자로 출계하였다. 고광순을 비롯하여 인봉 고제량(麟峰 高濟亮) 고광수(光秀 光德) 고광채(光彩) 등이 그와 함께 의병운동을 전개하였다. 고광훈은 을미조약을 계기로 일어나서 군대해산 이후까지 의병운동을 전개한 형 녹천의 의진에 투신하였다. 1907년 1월 24일 창의기병 고광순을 의병장으로 하고, 의병을 일으킬 것을 꾀하였다.

이때 남원(南原)의 양한규(梁漢奎)로부터 남원합동작전을 전개하자는 제의를 받고 2월에 남원으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양한규 의진이 적에 의하여 궤멸 당하였기 때문에 일시 남원성 포위전을 전개하였으나 곧 퇴각하였다. 1907년 4월 25일 윤영기와 함께 화순으로 진격하여 점령하고 적 거주민들의 가옥을 불태웠다. 4월 26일 다시 동복(同福)으로 진군하였으나 광주부에서 파견된 관군과 도마치(圖馬峙)에서 접전하다가 크게 패하고 군사들이 일시 흩어졌다.

9월 11일 다시 형 녹천을 도독(都督)으로, 정하고 9월 12일부터 행군을 시작하였다. 곡성군 구룡산에 이르렀을 때 참모 신덕군의 제의로 9월14일 새벽 동복읍을 점령하고 적들을 격산시켰다.

9월 17일 녹천 의진은 지리산 화개동(花開洞)으로 들어가 유진하고 군사들을 훈련하는데, 불행하게도 10월 17일 적의 내습을 받았다. 이 전투에서 녹천과 고제량이 전사하고, 고광훈은 체포되어 3년간 진도(珍島)로 유배(流配)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0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註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권 401 402 403권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2권 635 636 639권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3권 281 282권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77면

고석진

전북 고창 신림(全北 高敞 新林) 출신이다. 을사(乙巳)년에 거의할 때 벼슬은 의관(議官)이었고, 면암 최익현(勉菴 崔益鉉) 의진에서 활약하였다. 4월 15일 면암은 군사를 거느리고 태인을 향하여 출발하였는데 고석진은 최학업 노병희(魯炳熈) 고제만(高濟萬) 등과 함께 종성리에서 의진을 맞이하였다. 4월 13일 면암이 태인 무성서원(武城書院)에서 최고운(崔孤雲) 선생 영정을 봉심(奉審)하고 고석진을 비롯한 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맹서하였다. 의진은 이튿날인 4월 14일 아침부터 행군하여 정읍(井邑) 한교(閑橋)에 이르러 모군하니 백여 명이 합세하였다. 이때 고석진은 김재구(金在龜) 강중회(姜鍾會)와 함께 포군 30여 명을 거느리고 와서 성세가 더욱 떨쳤다.

4월 16일 순창읍으로 들어가 총포와 포수를 보완하고 쫓아온 왜병을 성밖에서 물리쳤고, 17일 곡성(谷城)을 거쳐 18일 남원(南原)으로 향하려다 군대가 기다리고 있다 하여서 순창으로 향하던 중 오산촌(鰲山村)에서 유진하였다. 20일 의병을 해산하라는 고시문(告示文)이 내도하였고, 전주와 남원의 진위대(鎭衛隊)에 포위되자 면암은 선비들을

해산시켰다. 모두 돌아가고 22명만이 남아 면암을 호종하였다. 드디어 관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면암 등은 동쪽끼리 박해할 수 없다 하여 앉아서 기다리던 중 유탄이 날아와 정시해가 순국하였다. 시체를 이렛방으로 옮겨 놓고 앉으니 고석진을 위시하여 모두 13인이었다. 윤 4월 23일 서울로 호송되었다. 오랜 취조 끝에 6월 25일 고석진은 4개월 감금 선고를 받았다.

그밖에 면암은 3년, 임병찬은 2년 대마도 유형 선고를 받았고, 최재학은 4개월, 양재해 이용길 임현주 김기술 문달환 조우식 조영선 유해웅 나기덕 9인은 각각 태(笞) 1백대를 선고받았다. 10월에 면암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전보를 받고 면암의 장남 영조(永祚)와 함께 수의를 준비해가지고 부산으로 달려갔다. 11월 5일 대마도에 도착하여 면암을 면회할 수 있었다. 다시 부산으로 나와 몇 가지 약재를 준비하고 면회하고자 할 때 11월 17일 이미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고 부산에서 설위 망곡(設位望哭)하였다. 1914년 2월 독립의군부의 참모총장 직명을 받아 활약하였다. 1919년에는 다시 파리강화회의에 보내는 파리장서(巴里長書)에 서명하여 독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註 기려수필 102면
 매천아록 382 386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권 369 373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8권 935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2권 56 57 80 62 68 75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102 216 222면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77면

고예진

고예진은 그의 형 고석진(高石鎭) 고용진(高龍鎭)과 함께 면암의 의진에서 활약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면암은 오랫동안 동지를 규합하고 있었으나 동지 규합이 여의치 않아 실망하고 있을 때, 고예진과 고석진 그리고 고제만(高濟萬) 등 청년들이 정산(定山)에서 면암에 호응하여 거사할 것을 함께 모의하였다. 이들은 격문을 작성하여 8도에 배포하고 12월 충남 노성(魯城)에서 각지로부터 소모(召募)된 7백여 명과 함께 거의하였다. 1906년 4월 13일 태인 무성서원(武城書院)에서 강회(講會)를 열어 태인 일대의 유림인사를 규합할 때 함께 거의하였다. 여기에 그의 형 고용진이 포수 30여명을 이끌고 참가하여 기세를 올려 주었다. 그 이후 고예진은 면암 휘하에서 정읍(井邑) 순창(淳昌) 곡성(谷城)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그러던 중 순창 귀암사(龜巖寺)에서 포진(布陣)하고 적과 접전하다가 크게 패하고 체포되어 전주옥(全州獄)에 투옥되었다가 12월 27일 석방되었다. 1914년에는 황제의 밀명에 의하여 독립의군부 서기관(獨立義軍府書記官)으로 임명되어 국권회복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에는 만국평화회의에 보내는 파리장서(巴里長書)에 서명한 137인 중의 1인으로 서명하는 등 국권회복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

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註 연암문집부록 4권
송천집 3권
칙령서
고동경찰요사 251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138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2권 84 635 636면

고제량

고제량은 전남 창평에서 출생하였으며 1905년 을사조약 체결에 반대하여 의병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1906년 4월에 녹천과 함께 면암을 찾아갔으나 이미 의거에 실패하고 서울로 연행된 후였다. 다시 이들은 기우만(奇宇萬) 백낙구(白樂九)와 더불어 의병을 일으킬 것을 언약하고 기일을 정하고 돌아갔는데 이일이 누설되어 기우만과 백낙구가 모두 붙잡혀 갔다. 이들은 독자적으로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정하고 녹천을 주장(主將)으로 모시고 자신은 부장(副將)이 되어서 창평 저산 분암(昌平 猪山 墳庵)에서 창의의 기치를 올렸다. 그때 그들의 휘하에는 고광훈(高光薰) 고광수(光秀 光德) 고광채(光彩) 등의 일본 청년들과 윤영기(尹永淇) 박기덕(朴基德) 등이 종사하였다. 1월 그믐에 남원(南原)의 양한규(梁漢奎)로부터 남원 합동 작전을 피하자는 연락을 받고 행군을 개시하였다. 2월 초 남원으로 진격하였는데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양한규는 계획이 적에게 탐지되어 이미 적의 탄환에 맞아 순국하였다. 1907년 4월 25일 화순읍에 진격하여 점령하고 적 거주민의 가옥을 모두 불태워 관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튿날 다시 동복(同福)으로 진군하였으나 광주부(光州府)에서 파견된 관군과 도마치(圖馬峙) 전투에서 패배하여 일시 군사가 흩어졌다. 8월경 고제량은 신덕군과 함께 창평 제심리를 중심으로 집합할 것을 연락하며 대규모의 재기를 계획하였다. 9월 11일 녹천을 도독(都督)으로 삼고 9월 12일 행군을 시작하였다. 곡성군 구룡산(谷城郡 九龍山)에서 유진하고 9월 14일 새벽 동복읍을 점령하고 적들을 귀산시켰다. 8월 11일 구례 연곡사(燕谷寺)로 들어갔다. 이 때에 적의 내습으로 녹천과 고제량은 순국하였다. 나머지 군사들은 운봉(雲峰) 함양(咸陽) 순창(淳昌) 정읍(井邑) 등지로 흩어져 산발적으로 의병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의 활약상은 정미의진의 선구로서 후기의병운동의 전개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註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권 402 403 592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2권 599 637 639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3권 288 287 288 310면

공성찬

전남 구례(求禮) 사람이다. 1908년 2월경부터 김성구 의진(金聖九 義陣)의 부장(副將)으로서 부하 수십명과 함께 전북 남원(南原), 전남 구례, 곡성, 옥과(玉果), 순천군(順天郡) 일대에서 항일활동을 폈다. 동년 11월에는 전남 곡성(谷城)에서 일제 순사대와 교전하였으며 1909년 2월 26일 임세묵(林世默) 등 10여명과 함께 무장하고 남원군 두동방(豆洞

坊) 거주 양극중(梁極仲)과, 동년 3월 1일 동군 수지방(水旨坊) 거주 박해창(朴海昌)으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그러던 중 1909년 4일경 일군에 피체되어 5월 7일 광주지방 재판소에서 소위 강도죄로 교수형을 언도받고 항고하였으나 동년 8월 17일 대구공소원과 9월 7일 대심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교수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기우만

본은 해주이며 전남 장성 사람이다. 벼슬은 참봉(參奉)을 하였으며, 참판 기정진의 손자로 올미, 정미의병운동에서 의병장으로 추대되었다. 1896년 1월 의암 유인석(柳麟錫)의 격문을 받고서 분연히 일어나 각 읍에 격문을 띄워 의병을 모집하여 근왕(勤王)할 계획을 세웠다. 2월 향교에서 기병을 논의하고 고광순(高光洵) 기삼연(奇參衍) 기주현(奇周鉉) 앙상태(梁相泰) 기동관(奇東觀) 이승학(李承鶴) 기재(奇宰) 기동노(奇東魯) 등과 함께 2월 11일 나주(羅州)로 나아갔다. 22일 광주로 행군하여 향교로 들어가 몇 차례의 상소를 올려서 구제도와 구신(舊臣)을 쓸 것을 건의하였다. 1906년 1월 각 읍에 통문을 보내어 곡성(谷城)에서 회집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일로써 10월 광주 경무소에 수감되었으나 오래지 않아 출감하였다. 그러나 1907년 1월 녹천 고광순, 성암 김상기(省庵 金相琦) 금포 이항선(錦圃 李恒善) 등 의병이 송사를 찾아와 순천에서의 패전에 관하여 의견을 나눈 일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3월에 다시 영광 경무서에 수감되어 광주로 압송되었다가, 4월에 목포 경무서를 거쳐 서울로 압송되었다. 1909년에는 「호남의사열전」을 집필하였다.

기삼연(奇參衍) 고광순(高光洵) 김봉규(金奉奎) 김용구(金容球) 박경래(朴慶來) 전수몽(全垂庸) 김영엽(金永燁) 김익중(金翼中) 김치곤(金致坤) 박영건(朴永健) 정원숙(鄭元淑) 성경수(成卿洙) 등의 악전을 기술하였다.

1910년 5월 경연(經筵)에서 송사의 시호를 문간공(文簡公)이라 정하고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증직하였다. 7월 국망하였다는 비보를 접하자 토굴(土窟)속에 은거하고 종신토록 일화배척(日貨排斥)과 각종 세금을 불납하는 등 개인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8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註 며천야록 198면
독립운동사(박성수) 263면
항일의병시집(신동환, 서문문고 193) 41 42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2권 67 595 679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3권 21 25 27 34 35 37 38 40 43 44 46 56 65 66 75 77 78 79면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84면

곡성의 진산 봉두산의 산림군락에 대하여

김천식(옥과교 교사)

봉두산(鳳頭山)은 한반도 남단 소백산맥의 지맥으로 곡성군과 승주군 등 2개 군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약 75Km의 면적을 가진 산으로 주변에 비래봉, 신유봉, 삼산, 히아산, 천덕산 등이 있으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대황강(보성강)은 여름철 유원지로 유명한 압록에서 섬진강과 합류하여 구례군으로 흐른다.

봉두산은 옛명이 동리산(桐裏山)으로 신라 선종 중 구산의 하나로 명승 혜철이 개산하여 도선국사가 득도한 도장으로 태안사가 자리하고 있다. 동리산은 여지도서(餘地圖書)에 보면 광주 무등산(無等山)에서 나왔으며 곡성현의 동남쪽 60리에 있다고 하였고,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곡성현의 남쪽으로 60리 되는 순천과 경계지점에 동리산이 있다고 하였다. 중앙기상청 기상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곡성지방은 연평균기온이 11.9, 강수량은 연 1445.4mm로서 높은 편이며 68.7%가 6,7,8,9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월평균 최고기온은 20.4, 월평균 최저기온은 6.2 이고 월최고는 8월의 31.3 월최저는 1월의 -6.6 였다. 따라서 봉두산은 온난기후에 속함을 알 수 있다.

토양조건은 전체적으로 사양토와 양토이며 84.4%가 양토(loam)이고 나머지가 사양토이다. 고도별로 보면 500m 이상 지역이 화학적 토성이 양호하게 나타났고 출현 개체수와 밀도가 높았는데 이는 토양이 습윤하고 유기물의 함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봉두산의 자생식물은 총 568종류로 1문 4강 37목 121과 364속 490종 1아종 69변종 8품종으로 분류한바 있으며 우점종으로는 교목층에 굴참나무 소나무, 서어나무, 신갈나무, 아교목층에 매죽나무, 졸참나무, 노린재나무, 히어리, 관목층에 조릿대, 땅비싸리, 국수나무, 초목층에 참억새, 기름새, 대사초, 그늘사초 등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특이군락으로 목본은 히어리 군락과, 털조장나무 군락, 초본으로는 수정난풀이 있고 특이 식물로는 털조장나무, 히어리, 이나무, 이팝나무, 흰철쭉, 수정난풀, 부시깃고사리, 땅귀개, 나도송이풀, 열레지, 은방울꽃 등이 있다.

개발 가능한 식물로는 식용으로 개미취, 곰취, 복분자딸기, 왕머루, 참마, 고로쇠나무, 두릅나무, 더덕, 도라지, 머위, 고들빼기 등 11종, 약용으로는 석창포, 진황정, 여로, 개죽도리, 산삼, 숙단, 배풍등, 음나무, 꽃향유, 구절초, 산국, 초피나무 등 12종 그리고 관상용으로 족제비고사리, 제비난, 히어리, 이나무, 흰철쭉, 붉은병꽃나무, 참나리, 바위말발도리, 노각나무, 이팝나무, 구절초, 산죽, 참빗살나무, 쇠물푸레, 고향나무, 보춘화, 각시붓꽃, 각시원추리, 하늘말나리, 나리난초 등 20종을 발췌한바 있다. 따라서 봉두산에 생육하는 식생에 대한 연구가치가 있으며 봉두산의 임상을 보존하고 생태학적 식물사회학적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봉두산의 특이식물 중 히어리 군락은 북쪽과 남

쪽의 능선에 분포되어 있고 털조장나무는 서쪽 능선과 계곡부에 위치하여 졸참나무, 굴피나무, 서어나무 등과 군락을 형성하고 있고 수정난풀은 600m 부근 동쪽이나 남향의 굴참나무 낙엽 사이에 분포되어 20cm 깊이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봉두산의 자생식물의 용도로는 식용 248종, 공업용 48종, 섬유용 7종, 약용 178종, 사료용 88종, 용재용 48종, 유독 38종, 관광용 211종 등으로 선별하였다.

이와 같이 곡성지역에 자생하는 식물이 많이 있으며 특히 봉두산에는 히어리 군락지와 수정난풀이 서식하고 있어서 매우 다행스런 일이며 일반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야생의 식물 중에서 개체군의 크기가 매우 적거나 감소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때 희귀식물 또는 보호식물로 지정하여 종의 감소를 막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 보전법을 제정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식물을 '특정야생식물'로 규정하고 126종을 선정하여 희귀정도에 따라 멸종위기종, 감세추세종, 특산종, 희귀종 등으로 구분한바 있다. 그리고 학술적 가치나 국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야생식물은 '보호야생식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곡성의 자생식물 중 특이식물로 분류되는 수정난풀은 노루발과에 속하는 부생식물로 수정난, 수정초, 석장초라 불리기도 한 다년생 초본이다. 높이는 10~20cm이고 뿌리는 덩이같이 되며 여러 개가 모여서 난다. 뿌리를 제외한 모든 줄기는 순백색이며 윗부분에 깃털이 있고 비늘 같은 퇴화된 잎이 어긋나 달려있다. 인편은 긴 타원형, 좁은 난형 또는 세모진 난형으로 끝이 둔하고 약간의 틱니가 있기도 한다. 꽃은 7-8월에 은백색이 피고 8-9월에 열매가 맺는다.

서식환경을 보면 우리나라 제주도, 남부지방, 중부지방의 고산지대 나무 그늘 아래서 자생하며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흰색이며 썩은나무의 부식질 토양에 잘 자란다. 수정난풀은 식용으로 쓰이고 민간에서는 전초를 이뇨제 등 약초로 쓰기도 한다. 봉두산에 자생하는 수정난풀은 1990년 봉두산의 8부 능선에서 만났으며 강원도 대덕산, 제주도 등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며 1997년 산림청 선정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로 지정되어 보호가 요청되는 식물이기도 하다. 수정난풀은 은은한 향기가 있으며 구상난풀과 같이 숲 그늘이나 낙엽층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곡성의 대표적 특이군락으로 히어리를 들 수 있는데 조록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관목으로 높이는 1~2m로 송광납판화, 송광꽃나무라고도 한다. 작은 가지는 황갈색이나 암갈색으로서 껍질눈이 뾰뾰이 난다. 겨울눈은 방추형이며 털이 없고 2개의 아린(芽鱗)으로 덮여 있다. 잎은 어긋나며 달걀 모양의 원형이고 길이는 5~9cm, 나비 4.5~8.2cm로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표면은 녹색, 뒷면은 회백색으로 꽃은 4월에 황록색으로 피며 8~12개의 꽃이 총상꽃차례를 이룬다. 꽃받침은 5개로 갈라지며 털이 없으며 수술은 5개, 암술대는 2개이다. 열매는 삭과이며 9월에 익는다.

이처럼 곡성에는 식물군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학술적 연구 과제를 부여하여 곡성지방의 식물분포와 식생을 조사하여 생태학적, 식물사회학적 분석을 통하여 일반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천식(金千植)

- 옥과고등학교 교사
- 전남대학교 농대 임학과 졸업-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보길도 상수원 댐건설 검토위원(조경분야)
- 논문 : 봉두산 심령군락의 식물사회학적 연구 외

모심기 노래

곡성을 구원리, 1986. 10. 22. 지춘상·나승만 조사

앞소리 : 김임기 남·62

뒷소리 : 김학무 남·65, 김학서 남·65, 김형두 남·56, 양태용 남·53, 김주기 남·55

[김임기] 여~여~여허~여~루

상~사~뒤~여~

여~여~여허 여~루 상~사~뒤~

니가잘나서 일올시겠나

내눈이어두와 환장이네~에~

여~여~여허~여~루 상~사~뒤~여

오동복판 거문고는

출만골라도 잡소리나네~에~

여~여~여허 여~루 상~사~뒤~여

심각신불량이(1) 비가온다

농부님들은 우장삿갓을 들벗고나

여~여~여허 여~루 상~사~뒤~여

일낙서산 헤는진디

월출동영의 날이솟네

여~여~여~여~루 상~사~뒤~여

형제봉밑에서 태어나서

이상하기 방송국노래를 허네

여~여~여~여~루 상~사~뒤~여

까막까치는 쪽지가날개고

인생만이는(2) 활개가날개로다

여~여~여허~여~루 상~사~뒤~여

아서라말어라 네그리마라

아까운청춘이 다늘어간다

여~여~여~루 상~사~뒤~여

잠을주고 화초자헌디

목동요지가 행회촌이로고나(3)

여~여~여허~여~루 상~사~뒤~여

다되얏다 다되얏다

노소간이늘다가(4) 잘되얏고나(5)

여~여~여허~여~루 상~사~뒤~여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노인보고 웃지를 마소

여~여~여허~여~루 상~사~뒤~여

주

(1) 심각산 머리

(2) 人生은 오직

(3) 杏花村이로고나

(4) 老小間에 놀다가

(5) 잘되얏고나

대나무가 담양의 상징(담양문화원)

경주시민문화재단 사무국장

담양은 죽향고을이라 불리울 정도로 대나무로 유명한 고장이다.

담양의 산과 들은 물론 사람이 사는 마을에는 어김없이 대나무가 자생하고 있다.

대나무는 벼과에 속하는 상록성 목본으로 수십 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대나무는 우리 인간과 너무도 밀접하여 옛부터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아주 가까운 존재로 각광을 받아오고 있다.

담양의 대나무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천혜의 자원으로 어느 지역 대나무보다 단단하고 질이 좋아 옛 삼국시대 이전부터 대나무 제품을 만들어 일상생활의 도구로 사용해 왔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제품이 달랐으며 머리를 기르고 상투를 틀었던 시절에는 참빗을 만들어 사용했고, 종이가 없는 시절에는 대를 얇게 깎아 죽석을 만들어 방에 깔았고, 곡식을 타작할 때 껍질을 날리는 킨을 만들어 사용하는 등 대나무를 이용한 생활용품이 점차 발달하여 중국이나 몽골 등 동남아로 수출하는 등 지난 7 80년대에는 '생금발'이라 하여 아주 귀하게 여겨 왔으며, 어려웠던 시절에 자녀를 대학까지 보낸다 하여 한때는 대학나무로 호황을 누리어 왔었다.

담양에서는 고려초부터 매년 음력 5월 13일을 죽취일(竹醉日) 또는 죽술일(竹遮日)로 정하고 마을마다 전주민이 동원되어 마을 주변이나 야산 등에 대나무를 심고 작업이 끝나면 죽엽주 등을 마시면서 마을 주민들의 단결과 친목을 도모하는 화전놀이를 했다고 전해오고 있으나 최근에는 사라진 듯 하다.

담양은 대나무로 인하여 중요무형문화제 2인(낙죽장, 채상장), 지방무형문화제 2인(참빗장, 죽렴장)이 있으며, 각종 대나무 제품을 진열하여 소개하는 대나무 박물관이 세워져 있다.

대나무는 우리군의 향토산업이면서 농업 외 큰 소득원이 되어 각광을 받아왔으나 산업화로 인한 플라스틱 제품과 최근 값싼 외국산 제품으로 인해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지금은 특화산업으로 연구 개발하여 값비싼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다.

지금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나무를 활용하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어 공해 없고 지역민이 살기 좋은 고장을 가꾸기 위해 대나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등 무한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신바이오 산업과 대나무식품 개발(대잎차, 죽순요리, 대통솔 등)하여 특화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대나무 축제를 통해 대를 이용한 수십가지의 체험장을 열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대나무의 활용도를 널리 알리는 좋은 축제로 거듭나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적인 행사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나무는 사군자의 하나로 문화적인 의미와 예술성이 넓고 크다고 하겠다. 대나무는 푸르고 곧게 자라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 있고, 일찍이 선인들은 대나무를 벗삼아 노래하고 풍류를 즐겼다.

대나무로 노래한 구절이 많지만 하나 예를 들면 코 훌리게 같이 자란 친구를 竹馬故友라 한다.

고산 윤선도의 五友歌에서는 대나무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나모도 아닌 거시 풀도 아닌 거시

꽃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뷘연는다

더러코 사시(四時)에 프르니 그를 도하 하노라」

고산 윤선도 오우가 中에서

위와 같이 대나무는 경제성, 예술성, 바이오 산업 등 인간과 밀접한 관계로 담양의 자량이 아닐 수 없다.

담양문화원에서도 청소년들에게 대나무의 중요성과 죽세고장의 긍지를 살리기 위해 청소년 문화행사를 매년 10월, 대나무박물관 일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청죽의 기상을 높이기 위해 대나무 주제를 넣어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문화 강좌, 문화유적지 답사, 지역민들의 취미생활을 위해 문화강좌를 통해 배운 솜씨를 알리는 발표회를 연말에 가질 예정이며, 회원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문화 향수를 접할 수 있는 문화탐방, 특히 영남의 자매문화원과 문화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종교문화 발굴 등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그 해의 발자취를 담아 보는 문화지를 발간할 예정이다.

곡성문화원 중국어 강의를 받으면서

류우리(곡성중 3년)

작년 겨울 방학, 나는 처음으로 중국어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되었다. 그 전까진 중국어라면 한글자막이 뜨는 중국 무협영화를 통해 접한 것이 고작이었다. 땅도 넓고 인구도 많은 나라 중국, 그러한 중국어를 배우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 나는 처음 중국어를 배울 때 설레임 반, 과연 내가 잘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우려함 반으로 시작했다. 처음은 많은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과 같이 시작했으나 모두들 학년이 올라가고 방학이 끝나면서 중국어 배우기를 차츰 그만두면서 지금 남은 친구들은 나를 포함한 서희, 혜경, 유지, 천주교 곡성교회 신부님 등 몇 명 뿐이다. 처음은 웅성웅성하게 시작한 중국어 강의는 현재는 선생님과 몇 명의 친구들과 도란도란 배우게 되었다. 일주일에 세 번, 한시간씩 하던 중국어 강좌는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씩만 하고 있다. 중국어를 가르쳐 주시는 여자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또 가끔은 간식도 사다주셨다. 선생님 덕분에 중국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고 또한 중국 사탕도 맛 볼 수 있었다.

중국어를 시작한지도 몇 달이 지났지만 나의 끈기와 노력이 부족했던 탓인지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가 않게 느껴졌다. 내가 중국어를 배우면서 알게 된 것은 중국어는 성조의 4성에 의해 말을 하게 되는데 성조를 잘 못 하게 되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것과는 상관없는 다른 말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나니 중국영화에서의 배우들이 높낮이를 다르게 하면서 말

했던 것이 괜히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중국어라면 '니 하오' 밖에 할 줄 몰랐던 나는 중국어를 배우고 나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중국어가 나오면 귀를 기울이고 내가 아는 단어 혹은 문장이 있으면 뿌듯하게 보게되었다.

하지만 내가 중국말 배우기에 충실하지 못했던 탓인지 배웠던 중국말도 잊어먹기 일쑤였다. 중국말은 솔직히 말하자면 모르는 말이라서 그런 건지 어렵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가끔은 중국어를 빼먹은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몇 안되는 단어들이지만 그래도 내가 중국어를 안다는 것이 좋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국말 배우는 것을 그만 두지 않은 듯 하다.

중국어 선생님께선 갈 때마다 복습을 시켜 주신다. 지금까지 배웠던 단어나 문장들을 한글로 물어보시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 그 덕에 한번만 배웠다면 전혀 모를 듯 한 단어들도 기억에 남게 되었다.

중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언어로 듣게 되면 재미있게 들리는 말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말들은 더욱이 머릿속 깊이 박히게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는 중국어 배우는 것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든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앞으로는 예습, 복습도 하며 중국어 기본을 닦아 놓을 것이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초에 열심히 배우고 익히겠노라 는 다짐을 지킬 것이다.

호기심이 만든 중국어 소녀

김혜경(곡성중학교 3학년)

"겨울 방학 동안 중국어를 배울 학생들은 점심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선생님한테 와서 신청해 주십시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안내방송을 들은 나는 귀가 솔깃했다. '중국어? 한번 배워볼까?'하는 맘으로 친구와 함께 중국어를 신청하러 갔다. 하지만 친구와 내가 중국어를 신청하려갔을 때는 이미 문화원에 신청자 명단이 적힌 팩스를 보낸 뒤였다. 우리는 선생님께 사정사정하여 어렵사리 중국어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어렵게 신청한 중국어였기에 진짜 열심히 배워야겠다고 다짐했다. 더구나 원어민이 가르친다고 해서 '중국인은 어떻게 생겼을까? TV에서 본 중국 사람들과 똑같이 생겼을까?', '우리말은 잘할까?' 등 별별 생각들이 머리를 가득 매웠다. 드디어 처음으로 중국어를 배우러 가는 날! 선생님께 잘 보이기 위해 자세도 바르게 하고 친구와 속닥거리면서 선생님의 인상착의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선생님은 재중교포로 우리말을 잘하셨다.

처음으로 들어본 중국어는 매우 낯설고 심지어는 이상한 한국말 같기도 했다. 하지만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기쁨으로 열심히 읽고 외웠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교재를 볼 때도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중국어 배우기는 어려웠다. 발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우리가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많은 칭찬과 격려를 주셨다. 그리고 가끔씩 중국에서 판매하는 캔디와 과자를 가져와

나눠주기도 했다. 이때 중국 사탕을 처음 먹어 보았는데 너무 달아서 느끼할 것이라는 내 예상과는 달리 우리 나라 사탕보다도 더 맛있었다.

어느덧 중국어를 배운지 거의 반년이 지났다. 그동안 중국어를 배우면서 중국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었다. TV에서 본 중국사람들은 쥐고기나 인체의 한 부위를 먹는 등 이상한 모습 뿐이었지만 최향화 중국어 선생님을 통해 들은 중국사람들은 우리 나라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예전에는 중국 닭과 우리 나라 닭이 우는 소리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꼬끼오'하고 운다는 것도 알았다.

이제는 웬만한 단어는 중국어로 말할 수 있고, 간단한 문장도 중국어로 말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제 2외국어로 중국어를 선택할까 생각중이다. 엄마 아빠는 장난으로 '혜경이는 중국으로 시집보내야 겠다'하고 말씀하신다. 호기심으로만 시작했던 중국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다. 물론 중국어를 배우러 가는 게 가끔은 귀찮기도 하다. 친구들과 함께 놀러가고 싶기도 하고 이유 없이 쉬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중국어를 배우러 가는 날인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진다. 이미 중국어는 아직은 어설픈 중국어 소녀인 나에게 호기심이 아니라 생활이 되었기 때문이다.

곡성에서 만난 아름다운 이웃

김은아

내가 이곳 곡성에 온건 순전히 남편 때문이다.

작년에 그이가 공중보건의사로 전남으로 배정 되었을 때 우리는 대전과 가장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곡성을 선택하였다. 당시에는 곡성이라는 이름도 생소하던 곳이었다.

나즈막한 산들 속에 자리 잡은, 전혀 특별한 것 없는 시골마을. 내게 곡성은 그냥 스쳐 지나고픈 그런 곳이었다. 억양 때문이었을까? 처음 이곳 사람들을 접했을 때 왠지 모를 소외감이 느껴졌다. 3년이란 임기만 지나면 언제 살았을까 싶게 잊어버리고 지낼 수도 있는 곳이라 미리 맘으로 정해두고 시작한 생활은 처음엔 무료하기 그지없었다.

1년이 지난 지금 내 생활은 어떠한가? 대도시 아파트에서 화초처럼 자라던 우리 아들, 그래서인지 아토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언제 그랬는가 싶게 매끈하고 거무스름한 피부로 이제는 흠장난 재미에 푹 빠져있다. 주말이면 별의미 없이 찾아가던 대형할인 마트나 백화점 대신 이제는 아들과 함께 도서관에 가는 재미로 바뀌었다. 빼곡히 자리 잡은 책들을 보면 학창시절 가슴 설레게 했던 작품들도 다시 만날 수 있어 좋다. 아이들 책도 제법 많아서 뭘 고를까 고민하는 아들을 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사치를 누리는 기분이 든다.

얼마전 주변의 권고로 시작하게 된 주부독서모임(자운영)도 내겐 빼놓을 수 없는 기쁨이다. 엄마로 아내로 그 밖의 여러 일들로 다들 바쁠텐데 틈틈이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를 찾아가는 모습은 주부라기보다 꿈많은 소녀들의 모임 같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덩달아 신이 난다. 화요일, 목요일 저녁이면 읍사무소 2층엔 건강한 모임(요가)이 있어 좋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바닥에 누운 자세로 시작해서 구렁에 맞춰 하나씩 하나씩 요가를 익히고 나면 한 시간이 훌쩍 지나고 촉촉히 베어난 땀방울은 앞으로 백년이라도 건강하게 살 것 같은 희망을 준다. 도시의 번잡함에 너무나 잘 길들여진 내게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르쳐준 곡성 사람들 덕분에 처음 올 때 가졌던 내 맘속의 울타리는 이젠 없어져 버렸다. 한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듯 없는 듯 살고 싶었던 내게 먼저 손내밀어준 고마운 이들..

이사할 집이 없어 전전공공할 때 여기저기 수소문하여 지금의 멋진 전원주택을 마련해주신 의료원 한 여사님, 강아지를 예뻐하는 아들에게 이제 막 젖을 땀 강아지를 선뜻 내주시는 뒷집아주머니, 멀리 제주에서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귀한 감자며 마늘을 한 소쿠리나 보내주는 쌍둥이 엄마,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농사일이 서툰 우릴 대신해서 텃밭의 야채를 돌봐주시는 주인댁 할머니, 모두 모두 고마운 사람들이다. 물질적으로 풍요하진 않을지라도 마음은 한없이 후덕한 곳, 고립된 듯 보여도 누구라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곳 곡성이 바로 이런 곳 인 것 같다. 이런 시골에 날 데려왔다고 바가지 긁었던 남편에게 이제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다.

곡성의 목도놀이

옛날에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생활방식으로 목도라는 수단을 사용해 상호 협동정신을 발휘하고 운반의 성력화(省力化)를 이루었다.

예부터 산에서 나무내리기·다리놓기·집나무 운반·묘석운반·땅다지기·생활도구 운반·확돌·절구통·구시·디딜방아·연자방아 등 다양한 형태의 놀이가 전승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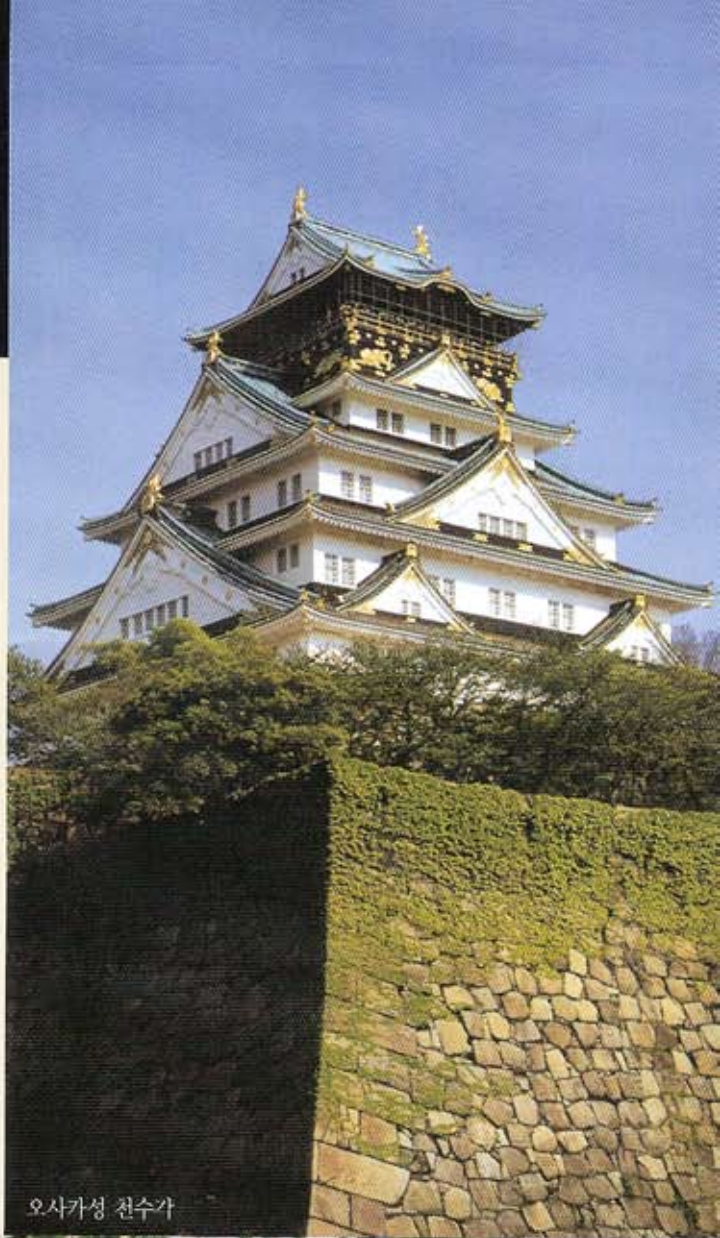
특히 험준한 산이나 사잇길로 무거운 짐을 운반·다리놓기·묘석세우기 등은 힘이 많이 드는 관계로 「쉬기도 하다」「올가간다」「내려간다」등 선소리를 통해 지형지세를 살피기도 하고 주변환경을 익살로 묘사하면서 피로와 고통을 달래고 농요와 농악에 맞추어 운반의 조화를 이루면서 한바탕 흥겹게 노는 민속놀이이다. 1986년 제15회 남도문화제(86. 9. 23~9. 24 광주실내체육관)에 곡성군에서 출연한 바 있다.

문화기행

일본문화답사

지난 4월 20일 부터 24일(4박 5일)까지 시행한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사업이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해외에서의 바람직한 답사자의 자세를 보여 주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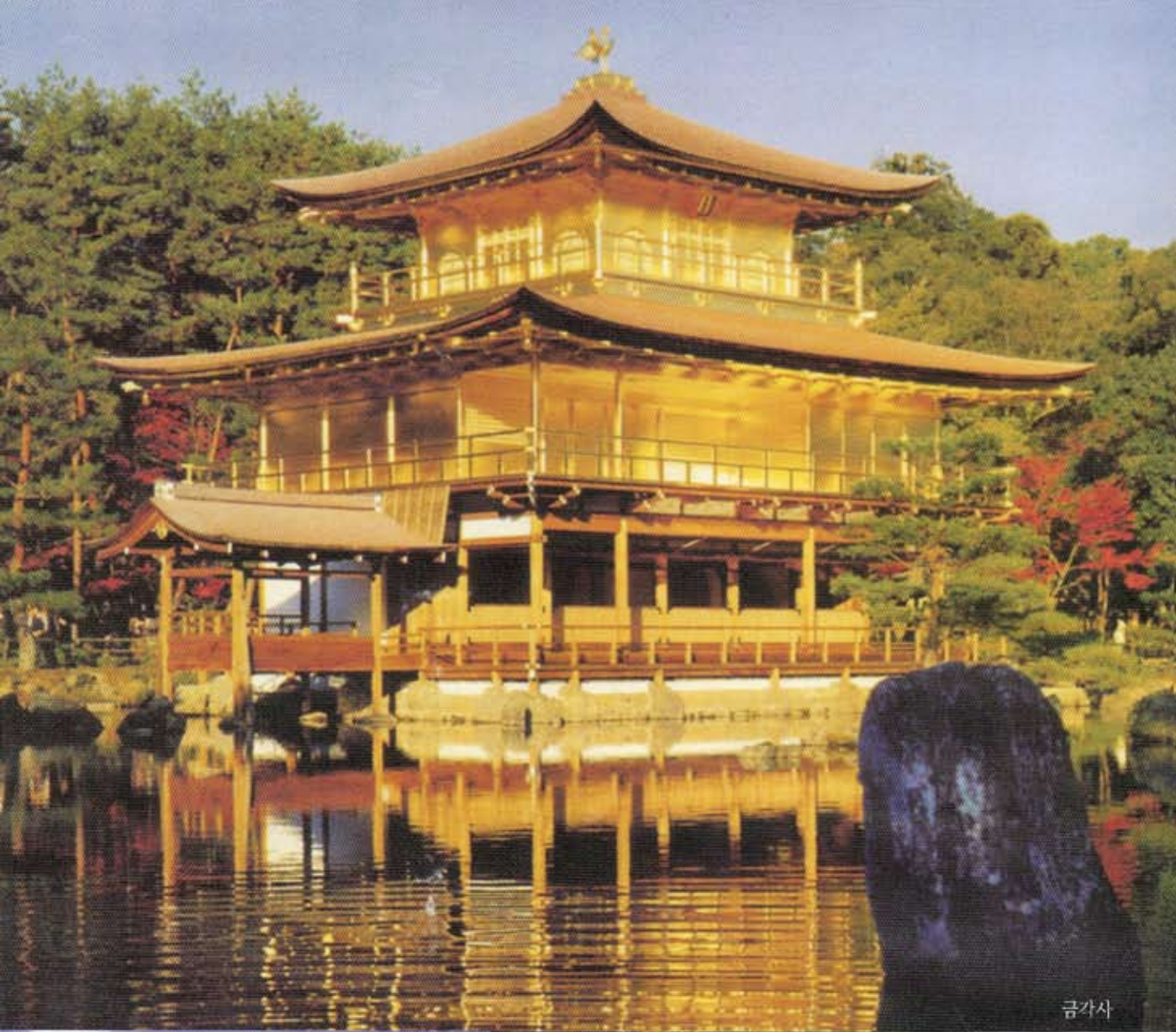
일본의 문화유적을 답사함으로써, 우리와 일본의 문화유산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과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는 문화유산이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좋은 기회였다.



오사카성 전수가



왕인박사 유적지



금각사



해중진방탑



원위동





논어·천자문비



도성사



도성사 불상(국보)

섬진강문화학교



섬진강문화학교는 2003년 건립된 우리지역의 문화시설인 '조태일 시문학 기념관'과 '부설 시집전시관', '부설 문화교실'을 말한다.

'조태일 시문학 기념관'은 우리고장 출신이자 문단에 길이 남을 민족시인 조태일 시인의 문학 세계를 기리고자 고인의 유품 2,000여점과 문학적 업적, 그를 기리는 많은 문인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으며, '부설 시집전시관'은 희귀본을 포함한 우리나라 근·현대 시집 3,00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부설 문화교실'은 폐교를 활용하여 산악사진가 임소혁씨가 지리산과 섬진강 등을 테마로 한 지리산 사진갤러리를 운영중에 있다.



위치

- 조태일시문학기념관, 부설 시집전시관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799, 산18-24번지
- 부설 문화교실
곡성군 죽곡면 동계리 269(구 동계초교)

규모

- 조태일 시문학기념관, 부설 시집전시관
부지면적 5,859㎡ 건축연면적 558.83㎡
- 조태일 시문학 기념관 : 245.76㎡ (지상 1층, 지하층)
- 부설 시집 전시관 : 313.07㎡ (지상 1층, 지하층)
- 부설 문화교실 : 부지 8,568㎡ 건축연면적 1,369.2㎡

주요 전시품

- 조태일 시인 유품 : 2,000여점
- 우리나라 근·현대 시집 : 3,000여권
- 지리산 사계, 섬진강 등 사진 : 200여점
*후관일 매우 밀모일 단, 부설 문화교실구 동계초교은 별도 후원원이 없습니다.

상설 및 기획 프로그램

- 섬진강, 지리산, 야생화, 별자리 등 테마 사진전시관 상설 운영
- 민족문학작가회 주관 시낭송회 : 7~8월
- 구름과 생활기상교실 운영
- 사진촬영강좌 및 사진교실 운영

조태일 시인 연보

- 1941년 9월 30일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 1리 동리산 태안사에서 대치승 조봉호와 모친 신경임 사이에서 7남매 중 넷째로 태어남.
- 1947년 동계초등학교에 입학했으나 1년 뒤 1948년 여순 사건을 만나 2학년때 광주로 피난.
- 1950년 수창초등학교 4학년 때 6·25가 일어나 3년간 휴학하다가 극락초등학교를 거쳐 다시 수창초등학교로 전학하여 1956년에 졸업.
- 1959년 광주서중학교 졸업.
- 1962년 광주고등학교 졸업, 전남일보 신춘문에 시 「다시鐵道에서」 당선,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입학.
- 1964년 경희대학교 2학년 재학당시 「경향신문」 신춘문에 시 「아침선박」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옴.
- 1965년 제1시집 「아침 선박」(선명문화사) 간행.
- 1966년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육군 소위로 임관(ROTC 4기).
- 1968년 육군 중위로 예면.
- 1969~70년 월간 시전문지 「詩人」을 창간하여 1년여간 주재했으나 당국의 압력으로 폐간.
- 1969년 초등학교 교사인 진정순과 결혼.
- 1970년 제2시집 「식칼론」(시인사) 간행.
- 1972년 장남 천중 출생.
- 1973년 창제인쇄공사에 입사, 덕성여대 출강. 연년생으로 딸 현정 출생.
- 1974년 뜻있는 문인들과 함께 표현의 자유와 민주정취를 위해 자유실천문인협회를 창립하여 간사직을 맡고 유신 독재체제와 맞섬, 민주수호국인협의회창립에 참여.
- 1975년 제3집 「국토」(창작과비평사)를 간행했으나 긴급조치 9호로 판매금지 당함.
- 1976년 막내 형준 출생.
- 1977년 양성우 시인의 시집 「거울공화국」발간 사건으로 연루되어 긴급조치 9호로 고은 시인과 함께 투옥.
- 1978년 일본 이화서방(梨花書房)에서 한국현대시선 시리즈로 「국토」가 일역되어 출간.
- 1979년 4월중 한밤중에 자택 옥상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유신독재체제를 비판한 언설을 했다는 이유로 투옥, 29일만에 석방.
- 1980년 계엄해제를 촉구한 지식인 124명 서명에 참여.
- 7월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임시총회와 관련 계엄법 및 포고령 위반으로 신경림, 구중서 등과 함께 구속되어 보통군법회의와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확정.
- 1981년 평론집 「고여 있는 시의 움직이는 시」(전예원)를 간행했으나 판매금지 당함.
- 1982년 항일민족시선집 「아아 내나라」(시인사)를 엮어 간행.
- 1983년 제4시집 「가거도」(창작과비평사)를 간행했으나 판매금지 당함.
- 1984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과를 졸업(석사학위 논문 「김현승시연구」), 경희대학교, 단국대학교 출강.
- 1985년 문학선집 「연가」(나남출판)간행.
- 1987년 제5시집 「자유가 시인더러」(창작과비평사)간행.
- 1988년 자유실천문인협의회가 민족문학작가회의로 바뀜과 함께 초대상임이사를 맡음.
- 1989년 광주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됨.
- 1991년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김현승 시정신 연구」로 문학박사학위 받음.
- 제6시집 「산속에서 꽃속에서」(창작과비평사) 간행. 이 시집으로 제1회 편운문학상 수상.
- 시선집 「다시 산하에게」(미래사) 간행.
- 1992년 공저 「문학의 이해」(한울아카데미) 간행. 제35회 전남도문학상 문학부문 수상.
- 1993년 성목문화상 예술부문 대상 수상.
- 1994년 2월 민족문학작가회의 부회장 피선. 3월 광주대학교 예술대학 초대 학장에 취임. 문예창작과 교수.
- 1994년 이론서 「시창작을 위한 시론」(나남출판)간행.
- 1995년 제7시집 「물꽃은 꺾이지 않는다」(창작과비평사) 간행. 이 시집으로 제10회 만해문학상 수상.
- 1996년 민족문학작가회의 부이사장 피선.
- 1996년 산문집 「시인은 밤에도 눈을 감지 못한다」(나남출판) 간행.
- 1998년 이론서 「알기 쉬운 시창작 강의」(나남출판)와 「김현승 시정신 연구」(태학사) 간행.
- 1999년 제8시집 「혼자 타오르고 있었네」(창작과비평사) 간행.
- 곡성군민의 상 수상, 9월7일 간암으로 별세. 용인 공원묘지에 묻힘. 9월9일 보관문화훈장 추서.

UNESCO 무형 문화유산『판소리』

(사)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판소리』진흥회

「판소리」의 출현 背景과 동기

1392년 조선조의 역성혁명에 의한 유교성리학을 국시로 한 신권계급사회 제국이 건설되면서 진보하는 인류사에 순응코자 한 선진 사립들의 등장과 이를 거부한 사대주의 훈구척신들과의 끊임없는 투쟁은 4대 사화의 국난을 겪게 되고, 이상사회 건설을 지향했던 선진 사립들은 교수형 내지 유배를 당하면서 몰락양반, 몰락토호세력, 승려집단, 적서(嫡庶)등의 반정 지식층이 양산되고 이들로부터 사회 개혁의 성토성 문화가 조성되어 지면서 개혁문화는 지하학문화가 되는 길고 긴 역정(歷程)속에서.

1500년경 주자 "관학"은 사회발전과정과 불합리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을 수용코자 한 실사구시 양명학 "민학"이 태동하여 이를 받아들인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사회개혁을 이루어 선진 현대화 국가 건설이라는 대업을 이룩한 반면 우리는 사회개혁의 주창자들을 국시(國是)에 반한 역적으로 몰아 교수형과 더불어 삼대멸족 또는 유배를 보냄으로써 그 개혁의 근원을 없애고 시대적 발전을 기여하는 수구신권통치 사회가 이어져 오게 되므로

민중을 노예화하고 특권층만을 위한 계급사회의 부도덕성을 성토하면서 평등사회 이상국가 건설을 주창하다 유배된 선비와 몰락한 지식층의 분노가 한(恨)으로 쌓여 저항성의 시가(詩歌) 가사(歌辭) 문학들이 저작자를 밝히지 못하고 출현 되어 노예 제도로부터 자유해방을 갈망하던 민중들에게 다가가게 되어 지므로 성토성 작문들을 판으로 짜 장문의 사설로 엮어 예술 미적으로 포장하여

소리로 표출시켜진 것들이 불가사의하면서 신묘한 판소리로 출현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는 판소리

- ① 1550-1600년 작가미상 년대미상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등 국문소설이 홍길동전과 동시대 출현으로 전하고 있음 * 1550년 이전 소리인지 소설인지가 있었다는 증거.
- ② 1754년 고흥출신 유진한의 만화본 춘향가 최초 기록으로 전하고 있음.
- ③ 1769-1884년 송만재(여산-송씨)판소리 12바탕이 기록되고 있음.
- ④ 1821-1884년 고창 신재효 판소리 5바탕 개작정리기록되고 있음.
- ⑤ 1835-1906년 보성 박유전 우조와 계면조로 구분하고 있는 소리제를 등, 서편제로 구분 탄생케 함.
- ⑥ 1882-1969년 순천 이영민 국악인詩寫를 남김으로 현대 국사 사료가 되고 있음.
- ⑦ 1886-1937년 순천 김종익 국악 판소리 후원 조선성악연구회를 조직 지원(현시가 100억) *현 판소리 보존회 전신임.
- ⑧ 1891-1965(1940)년 김재 정노식 조선 창극사 발간 최초 판소리 문헌.

「판소리」의 기능과 역할

1. 판소리는 韓 민족 고유의 구비전승 예술문화의 극치이건만 호남지역의 대표문화로 치부시 되어 호남문화의 천대멸시(賤待蔑視)로 차별(差別)화되고 있으며, 호남 또한 이러한 현실 정서를 감수하면서 판소리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형극(荊棘)의 족쇄(足鎖)인양 몸부림치는 한(恨) 어린 삶의 역정을 이어왔다.

2. 이러한 판소리는 해학(諧謔)과 풍자(諷刺)의 저항문화예술로 사대주의 식민사관에 젖은 지역 이기주의로 불이익의 저항성 민중문화를 배척(排斥)하므로 정착지를 찾지 못한 판소리를 호남에서 인류애적 정감으로 안아주어 호남지역에 등지를 틀고 앉아 호남이 부도덕을 배척하고 정의사회를 갈망(渴望)하는 저항성이린 행동양식(行動樣式)의 민주화 성지의 고장이 되고 있다.

3. 그 결과로 정여립 기축옥사, 충무공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 동학 농민혁명, 4·19혁명, 광주학생운동, 5·18광주 민주화운동 등의 국난 위기시마다 분연히 궤기(蹶起)되어져 국난 극복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나 열악(劣惡)한 집권세력은 권력의 위기의식으로 작동 반역(叛逆)문화란 족쇄의 덫터기를 씌워 민족정기가 서린 구비전승 민중사적 문화들을 식민사관의 관점에서 고찰케 하고 있어 민족정기가 실종되고 있는 현실이다.

4. 이를 극복 시정하기 위하여 생동(生動)하는 판소리문화를 유네스코 인류결작(人類傑作) 문화유산으로 등록하여 판소리의 심묘함과 불가사의한 합을 세계인에 각인케함으로써 韓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갖게하고 이를 보존관리해온 관계자들의 탁월(卓越)한 민족애적 정신을 입증(立證)케 하여 조상(祖上)의 한(恨)을 풀고 후손에 영광을 안겨주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절대 절명의 사명(使命)으로 간주하고 판소리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등록추진을 하였던 것이다.

5. 이제 우리들은 지역정서를 초월(超越)하고 민족정기를 보존하여 오늘날 민족적 영광을 가져온 자부와 긍지로 판소리 문화를 진흥확대하고 세계화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으므로 이를 체계화하여 민족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다 함께 힘

을 합하여 형극의 족쇄를 털어 버림은 물론 이와 국가발전과 후진양성에 적극매진케 함으로써 「판소리」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 21세기 국제사회에 기여케 하고자 한다.

호남문화의 정의

양심 있는 지식인 학자들이 본 「판소리」문화의 정체

리영희 선생(저)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중에서

한민족의 극치인 전라도지방
그윽한 민중예술과 삶의 문화

민족과 사회의 기세가 막힐 때마다
처절한 몸부림으로 그 고비를 돌파해온 역사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 恨의 문화라고 한다.
때로는 민족전체가, 때로는 억압 받은 계층이
행동을 이끌어 갈 지도적 영감이 아쉬워 지면
어디서나 전라도에 눈을 돌렸다.

언제나 그들이 필요로하는 사상과 문화와
인재를 마련하고 제공했다.

호남은 언제나 이 민족의 가장 귀한 물질과
정서와 두뇌의 보급창 노릇을 해왔다.

이것은 긴 왕조사와 일제 식민치하
해방 후 오늘까지 민족사를 통하여

전라도 恨의 문화가 말아온 역할이었다.

「판소리 보호, 보존, 관리」

-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으로서의 「판소리」 체계화와 가치정립.
- 「판소리」의 심묘함과 불가사의한 인류결작 문화 전국화·세계화 추진.
- 국민 참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관리 극대화 추진.
- 학교 교육 및 사회 평생학습 활성화로 「판소리」저변 확대.

「판소리」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록되기 까지

- 1) 1989년 유네스코총회 전통 민속 문화 보호제도 "권고안" 채택.
- 2) 1993년 제142차 유네스코 집행위원회 한국 무형 인간문화재 제도 각 회원국에 권고 결정.
- 3) 1995년 판소리는 호남지역에 정체되어 있는 민족정기문화로서 이를 발굴 세계화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호남인의 소명임을 인식 (저항의 소리)「서편제바로보기」를 저서 출간하고 판소리 유네스코에 등록코자 추진.
- 4) 1997년 유네스코 제29차 총회 및 제155차 집행위원회 "인류구전 및 무형 문화유산 걸작 선정에 대한 규약채택.
- 5) 1999년 12월 유네스코 본부의 무형 문화유산 등록제도 "안"완료 확인.
- 6) 2000년 4월 25일 유네스코 순천협회를 창립 판소리등록 추진 모체로 함.
- 7) 2000년 5월 15일 유네스코 본부로부터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등록제도 규정 "안" 결정통보 접수.
- 8) 2000년 7월 25일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등록절차 관련 관계 전문가 회의.
- 9) 2000년 8월 11일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등록신청서 작성 「판소리」 문화재청 접수.
- 10) 2000년 10월 17일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잠정목록 1호 판소리 지정(문화재청).
- 11) 2001년 8월 9일 전남·북·광주광역시 및 호남권 관련기관 단체 추진 협의회 구성.
- 12) 2000년 11월~2003년 10월까지 「판소리」등록을 위한 세미나 개최 15회.
- 13) 2002년 6월 판소리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신청서 유네스코 본부접수 (문화재청).
- 14) 2002년 10월 27일 신청서 보완요구에 의하여 보완 작성 제출.

15) 2003년 8월 유네스코 전문위원 1차 심사 통과.

16) 2003년 11월 7일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판소리」등록 발표함.

17) 2004년 4월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판소리」진흥회 설립.

아름다움을 꿈꾸는 기업 - (주)韓國콘크리트



(株)韓國콘크리트는 영산 지리산과 맑은 강 섬진강이 흐르고
맞은편엔 전라선과 국도17호선이 평행선을 이루며,
강과 도로는 평화로운 지리산 줄기가 감싸고 있는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에 위치하고 있다.

대표이사 한남숙

(株)韓國콘크리트의 특징은

첫째, 국가개발기간사업인 전력과 철도에 들어가는
전주 및 침목과 도로, 공동주택, 대단위 토목공사 등
에 사용되는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레미콘 등 콘크
리트 2차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장
으로 국가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최신설비에 의한 저비용 고강도의 우수하고,
저렴한 제품을 생산하여 국가 기간산업 망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고용창출과 원, 부자재 및 소모품의 인근지역
구입으로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발전
에 이바지 하고 있다.

넷째, 동종업계 연대를 통한 공동판매 등 영업전략
개선, 폭넓은 전산망 구축으로 인한 원가절감, 관리
개선, 아웃소싱(소사장제) 등을 통한 고효율의 경영
으로 이익을 창출코자 한다.

(株)韓國콘크리트가 자랑하는 전국최고의 정화시설
은 곡성의 커다란 장점인 맑고 깨끗하며 자연친화적
인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의 이미지를 살리고 오
염 없고 깨끗한 강과 산을 지키는 회사, 살기 좋은
곡성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회사는 이익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정진해야
겠지만 발생하는 수익은 지역과 사회에 환원해야 합
니다. 라고 단답하게 말하는 한남숙 대표이사의 목소
리에서 회사의 밝은 미래가 눈앞에 펼쳐 보여 진다.



• 기업제명: (株)韓國콘크리트

• 대표명: 한남숙(韓南淑)

• 소재지

- 본사: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17번지
TEL. 061)363-0475 TEL. 061)373-0476

- 광주지사: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518-80번지
TEL. 062)511-3288 TEL. 062)511-9808

- 공장: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17번지
TEL. 061)363-0475 TEL. 061)373-0476

• 업종: 콘크리트 2차제품 제조업, 레미콘

• 계열사

(株)韓國綜合建設産業

(株)韓國設備産業

(株)韓國레미콘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는 1986년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린이찾아주기 사업을 위탁받아 미아찾기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미아발생 신고와 접수/상담, 전국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아동카드 접수/열람,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미아찾기, 미아포스터 제작/배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아예방 캠페인, 미아예방 교육 등의 미아예방사업과 미아가족 심리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미아찾기 전문기관입니다.



1. 미아발생 전 예방지침

(1) 부모님 수칙

- 1) 자녀와 함께 다니고, 자녀를 집에 혼자 있게 하지 않기
- 2)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부모님 이름 등을 기억하도록 가르치기
- 3) 우리아이 기록카드를 이용하여 자녀에 대한 신상정보를 미리 작성해 두기
- 4) 자녀사진을 최소 1년 단위로 미리 찍어두기
- 5) 자녀 신상정보를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기입해 놓기
- 6) 위급상황 시 대처방법을 알려주고 몇 번씩 연습 같이 해보기
- 7) 길을 잃었을 경우 돌아다니지 않고 자리에서 멈춰서 있게 가르치기
- 8) 길을 잃었을 경우 부모에게 전화 또는 (긴급통화) +112에 신고하도록 가르치기
- 9) 미아예방 꼭꼭이 3단계 구호 "멈추기" "생각하기" "도와주세요" 를 암기시킴
- 10) 외출 시 아동 착의사항을 기억해 두고, 항상 아동 사진을 갖고 다니기

(2) 아동 수칙

- 1) 어디에 가는지 또 장소가 바뀔 때마다 말씀드리기
- 2) 내 이름, 부모님성함, 전화번호를 기억하기
- 3) 어디 갈 때 친구들과 함께 큰길로 다니기
- 4) 길을 잃으면 일단 제자리에 서기
- 5)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님 또는 (긴급통화)+112에 전화하기
- 6)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 선물 같은 것을 받지 않기.
- 7)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않기

2. 미아발생 시 대처법

(1) 부모님 대처법 - 미아 발생 신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 보며 주위를 살살이 찾아봅니다.
안내방송을 요청하거나 미아발생 신고를 합니다.

전국 미아발생 신고접수처 -

- 1)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 전화 : 02-777-0182
- 홈페이지 : www.missingchild.or.kr
- 내방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5-47

2) 경찰청 미아찾기센터 - 전화접수

- 전화 : 02+182번

3) 해당지역 치안센터(파출소) 및 시·군·구청

(2) 아동 대처법

1단계 - 멈추기 (자리에 움직이지 말고 서서 부모님
을 기다려요.)

2단계 - 생각하기 (침착하게 부모님이름, 자기 이름,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3단계 - 도와주세요 (부모님이 오시지 않으면 부모님,
(긴급통화) 112에 전화하거나 경찰아저씨,
주위에 아주머니, 가까운 가게로 가서 도움
을 구해요.)

엄마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꼭꼭이의 3단계 구호"를
기억하세요!

3. 유괴예방 수칙

(1) 부모님 수칙

- 1) 자녀의 주변 사람들(친구, 친구의 가족, 이웃 등)에 대해
서 미리 알아두세요.
- 2) 낯선 사람이 함께 가자고 할 때 따라가지 말고 비록

아는 사람이라도 같이 가지 않고 부모님께 얘기하도록
교육해 주세요.

- 3) 외출 시 이름이나 인적정보가 바깥에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4) 낯선 차나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차량 근처로 가지 않게
하세요.
- 5) 공공장소에서 자녀를 혼자 두지 마세요.
(차에 혼자 두거나, 화장실을 혼자 보낸 다면지, 아이를
맡기고 쇼핑을 한다면지 등)

(2) 아동수칙

- 1) 누군가 강제로 데려가려 하면 "싫어요!!"라고 소리치고
발버둥치고 밝고 사람이 많은 안전한 곳으로 뛰어가
도움을 청해요.
- 2) 인적이 드물거나 나무가 우거진 그늘진 곳 말고
밝고 넓은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아요.
- 3) 집에 혼자 있을 때에는 누가 찾아와도 대답하거나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 4) 늦게까지 바깥에서 놀지 않고 귀가 시간을 부모님과
약속해서 잘 지켜요.

4. 미아 발견 시 일반인 대처법

- (1) 우선 절대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지 않도록 하기
- (2) 겁먹은 아이를 잘 달래서 진정시켜 주기
- (3) 그 자리에 서서 아이의 부모를 같이 기다리기
- (4) 아이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물어보기
- (5) 안내방송이나 주위에 도움 요청하기
- (6) 발견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인근 파출소에 데려다 주기
- (7)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02-777-0182,
경찰청 182로 신고하기

(자료출처: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미아발생 신고전화 / 제보전화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찾아주기종합센터

tel: 02-777-0182

fax: 02-332-7565

<http://www.missingchild.or.kr>

e-mail: reunion@kwf.or.kr

주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5-47

조통장군과 성황당 목조신상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노인당 만취정(晩翠亭) 안쪽 옥산사(玉山祠)앞에 조그마한 기와집에 성황당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고려 신종(神宗 1197~1204)때 곡성군 입면 약천리 출신 한림학사(翰林學士)를 지낸 조통(1197~1204) 장군과 장군을 사랑했던 공주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는 유물 목조신상이 있다. 아왕(我王)공주 또는 아랑공주라는 설도 있다.

조통장군은 체격이 크고 용모가 훌륭하였으며, 경사백가(經史百家)에 능통한 대학자이고 진사시험에 합격한 뒤 명주의 부름을 받아 고공원의랑을 거쳐, 금나라 사신으로 갔다 3년동안 역류를 당하는데 금나라에서 그의 학식과 인품을 가상히 여겨 귀국시켰다는 일화도 전한다. 귀국후 태자문헌을 거쳐 서경유수(西京留守)를 역임하였고 한림학사(翰林學士)에 이르러 관직

을 버리고 낙향 하였다고 한다.

고향인 입면 약천리로 돌아와 손수 한림정(翰林亭)을 짓고 최당, 백광신 등 9인과 더불어 기로회(耆老會)를 만들어 말년을 유유자적하게 지냈다고 한다. 고려사는 조통이 높은 벼슬에 올랐음에도 초가에 실면서 맑고 깨끗한 성품을 잃지 않은 청렴한 선비로 기록하고 있다.

또 어떤 시인은 세상의 명리에 초연한 그의 성품을 지상선인(地相仙人)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인품과 학식이 뛰어난 조통을 공주가 사모하여 실성할 정도로 짝사랑하고 있어, 임금은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금은 보화와 노비를 팔리어 공주가 원하는 대로 낙향을 승낙하니, 공주는 개성을 떠나 조통의 고향 마을까지 찾아 왔으나, 그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가슴에 한을 품고 죽었다고 전한다.

이후 이 지역 무당들이 죽은 공주의 한을 풀어주고 애절한

사랑을 짝지워주는 신통력을 얻기 위해 조통장군과 아랑공주의 상을 나무로 조각하여 한 자리에 모시고 해마다 무당들이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장군상은 높이 80cm 두께 20cm, 공주상은 높이 70cm, 두께 15cm 조통장군은 차분하고 후덕한 느낌을 주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이는 호남의 무당들의 원조라고 하여, 민속분야에 크게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문화원의 입장

지난 1월 29일(목) 오전 11시 서울 한국의집에서 전국 220개 지방문화원장들이 모여 제43차 정기총회 를 갖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우리 지방문화원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발굴·보존·전승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강국 건설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중국정부의 반역사적인 고구려사 왜곡을 좌시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중국정부는 2002년 2월부터 5년 기간으로 이른바 '동북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이라는 거대한 국책사업을 통해 동북(만주)지방의 역사와 제반 현상에 대한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동북공정에서 고구려인의 뿌리는 고대 중국의 소수민족이며, 고구려의 건국 당시의 영토 및 기본 관할 범위가 중국경내라고 왜곡하고 있다. 또한 고구려가 중원왕조의 책봉을 받는 종속관계 운운하면서 고구려 멸망 이후 대다수의 유민이 중국의 한족(漢族)으로 편입했으며 고려는 고구려의 계승국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역사적 연속성도 전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북공정의 목적은 개혁·개방정책 이후 중화적 국가주의를 통한 소수민족의 독립의지와 민족분쟁 차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강화, 한반도 통일 이후 불거질지도 모를 영토 문제를 미리 차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중국권력 서열 7위 안에 드는 중앙위 정치국원 겸 사회과학원장을 비롯, 동북 3성의 최고위관료 등 행정조직과 대학 등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고구려사를 비롯한 고조선사와 발해사까지도 자의적으로 왜곡하여 중국 지방정권의 역사에 편입하고, 고구려의 활동무대였던 한반도 북부까지도 중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만주와 한반도에서 농경생활을 하던 예맥족과 한족(韓族)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고조선 이후 고구려, 신라, 백제 등 삼국의 역사로 계승되었다. 7백여 년간 만

주지역과 한반도를 활동무대로 강성한 국가를 형성한 고구려사는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고구려가 중국 지방정권의 역사에 불과하다면 우리나라는 공간적으로 한반도 중부이남으로 국한되게 된다.

지난 2001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으로 자국의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중국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동북공정을 통해 우리의 고구려사를 왜곡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역사는 사실(史實)에 근거,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함은 물론, 진실을 왜곡한 역사는 허구에 불과할 뿐 역사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양국의 외교적 관계마저 악화시키는 패권주의적 고구려사 왜곡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중국정부의 역사왜곡 중단과 올바른 한국사의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중국 당국은 고구려사에 대한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중국정부에 강력한 외교조치로 우리의 역사왜곡을 시정토록 하라

1. 정부는 고구려사를 비롯한 고대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국책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중등교육 교과과목중 한국 사교육을 강화하라

1. 전국 지방문화원은 올바른 국사관의 정립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우리 문화·역사에 대한 현장교육을 강화한다.

2004. 1. 29

전국 문화원장 일동

문화관광부의 지역문화 활성화대책

아래의 내용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5월 25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발표한 지역문화 활성화 대책입니다.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발전의 원동력으로 육성,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지방문화원 · 지방대학을 지역문화 발전의 원동력으로 문화부, 지역·생활 친화적 지역 문화 활성화 대책 보고】

문화시설에 대한 직원 채용시 보조금 지원으로 전문인력을 확대하고, 문화시설 간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1,200여 개의 우수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지방문화원이 지역문화 활성화의 중심역할을 맡게 되고, 지방대학은 민·관·학의 밀접한 연계를 통해 지역문화 발전의 핵심적 요소가 된다.

또한 주민 밀집 지역에는 작은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기초 단위 마을은 전통문화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된다.

지역문화 진흥이 국가 균형발전과 균형적 문화복지를 위한 토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과 심각한 문화격차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고속철의 개통과 FTA 체결 등의 외부적 환경변화는 새로운 문제점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었다.

기존의 문화 격차 현실에 더해 소외 지역의 문화적 황폐화와 지역간 문화 격차심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보고된 이 날 대책은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라는 점이 또한 강조되었다.

이 날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인력과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활성화 문화예술교육의 확대를 통한 지역의 문화적 활력 제고 민·관·학 연계를 통한 지역문화 발전체계 정립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진흥의 구심체로 육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운영 문화·관광을 통

한 기초단위 마을 살리기 운동 추진 등을 주요과제로 각 과제에 대한 세부적 대책이 마련되었다.

▶ 인력채용 적극 지원으로 전문인력 확대

우선 지역문화 발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력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다.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중 전문직이 없는 101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별 전문직원 채용시 50%의 경비를 지원, 전문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전공학생 등 전문 보조인력의 인턴제 도입을 지원하고 문화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재교육 실시를 지원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문화시설 전문인력의 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 전문강사 파견 등 우수 프로그램 공급

프로그램 분야의 지원을 위해서는 전국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 집 등 550개 시설을 대상으로 1,200여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전문강사 파견, 문화시설 간 네트워크화를 통한 우수 프로그램 공급 등을 통해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 문화예술 교육 확대를 통해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문화예술 교육의 확대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활력을 높이기 위해 3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 교육청, 문예단체, 학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기구를 운영하여 지역별·연령별·계층별로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 지역문화 발전의 핵심적 역할 수행 위한 지방대학 지원

지역문화의 활성화라는 주제에 걸맞게 그 실행인력 또한 지역문화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실시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계에 필요한 분야를 선정,

지방대학 내에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 및 조정하고 관련 과정 수료자를 고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고용촉진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방대학 내에는 문화공간 연계활용, 지역축제 육성, 문화관광자원 개발 등의 컨설팅팀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지방대학이 지역문화 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관·학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스스로 문화 발전체계를 정립하는데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 **지원과 경쟁을 통해 지방문화원 중심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또한 각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진흥의 구심체로 육성 발전시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전문 인력의 공개채용 확대 등으로 지방문화원의 운영체제를 혁신하고 매년 16개 우수문화원을 선정, 인력·예산·프로그램 등을 대폭 지원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 **주민 밀집지역에 작은 도서관 등 문화공간 조성 운영**

정책의 대상이자 주체인 주민들의 직접적 참여를 위해서도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주민 밀집 지역에 소규모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아파트단지 부수 시설 중 활용도가 낮은 공간과 쇼핑센터, 지하철 역광장 등 주민 왕래가 잦은 지역을 문화공간화 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또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을 조성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 **기초마을 살리기 운동으로 기초단위 마을에 활력 부여**

지역문화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기초단위 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또한 마련되었다. 인구감소, 노령화, FTA 체결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기초단위 마을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을 통한 기초마을 살리기 운동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2004년에 문화역사마을 3개소, 아름다운 우리마을 3개소를 선정하고 2005년 이후에는 매년 문화역사마을 9개소, 아름다운 우리마을 9개소씩

을 선정하여 지원 하기로 했다.

▶ **전통문화를 활용한 현지 문화체험 프로그램 시행**

또한 향교·사찰·서원·고택 등의 전통문화를 활용하여 청소년 및 외국인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현지 문화체험 숙박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예정인데 실태 조사 후 각 시도별로 2개 프로그램을 시범지원 하기로 했다.

문화관광부는 이와 같은 지역문화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통합복권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지역문화 진흥 분야에 투입 하기로 하고 2004년 문화예술부문 지원금 446억원 중 364억원을 지역문화부문에 지원 하기로 했다.이와 더불어 외국인 대상 출국납부금의 추가 부과를 통해 관광진흥 개발기금을 확충, 지방문화관광 진흥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부문 투입비율을 현행 2%대에서 4%대로 확대하기 위해, 중앙지원 예산을 활용한 인센티브제, 매칭펀드제도를 통해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보고된 지역문화 활성화 대책은 분권과 자율, 참여의 기조에 입각한 지역 중심의 정책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동안 발표되었던 정책들이 시설 위주의 정책, 중앙에 의한 프로그램 보급 중심이었던데 반해 이번 대책에서는 지역주민 스스로를 그 주체로 내세움으로써 명실상부한 지역문화 활성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문인력의 채용 지원과 지방대학, 지방문화원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분권화와 지방화라는 추세에도 발맞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이 날 보고된 지역문화 활성화 대책과 별도로, 지역문화진흥 중장기 정책을 새예술정책(가칭)에 포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창의한국-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

문화관광부는 6. 8(화),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창의한국-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을 보고하였다.

이번 비전은 지난해 참여정부 출범후 8월부터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체육과학연구원, 청소년개발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주축으로 연구기획팀을 구성하여 10개월간의 연구와 현장 전문가와의 워크숍, 문화관광부 실·국과의 토의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 출범후 발표된 「새문화관광정책」 이후 참여·자율·분권의 국정운영의 가치와 변화된 문화환경, 현장의 목소리 등을 수용하면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청소년의 전 영역과 의제를 집대성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문화부의역사상 유례가 없는 작업이었다.

주요내용 중 지역의 문화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 중 지방문화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지방문화원의 신규 전문인력 채용 등 운영체제 혁신유도, 지역문화의구심체로 활용"한다는 방안이 있습니다.

왜 "창의한국(Creative Korea)"인가

"영혼 없는 발전"에 대한 문화적 성찰

산업사회시대 지식습득 위주의 표준화된 교육제도하에서 양산된 인력을 통한 고도성장의 신화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 이제 과거와 달라진 시대변화의 흐름속에서 우리가 있고 있거나, 중요시하지 않던 가치를 다시금 살펴봐야할 시점에 온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문화'이다. '문화'의 위상과 긍정적 잠재력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개인과, 사회,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문화의 시각에서 진단,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창의성"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창의성이 많은 국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영국은 1998년 'Creative Britain'을, 미국은 2000년에 'Creative America'를 발표하였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지식은 과거와 같이 암기와 숙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와 혁신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 창의성이 토대가 된 대표적인 발전 모델인 실리콘밸리와 할리우드의 경우 경제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소수의 창의적 혁신자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다.

이제는 국가대표선수 육성체제와 같이 다양한 수준의 창의적인 개인을 상비군으로 양성하지 않으면 사회의 창의성은 쉽게 고갈될 수 있다. 개인, 지역, 국가적차원에서 창의성을 키우고 풍부하게 해야 할 것이다.

창의성을 길러주는 인큐베이터로서의 "문화"

이러한 '창의성'은 가르치거나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현되는 환경속에서 배양되는 것이다. 문화는 특성상 그 자체가 창의적 과정의 산물이자 영적, 지적, 정서적, 신체적 활동의 최고 결정체로서 가장 직접적으로 창의성을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창의성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그 토양이 되는 문화의 융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새로운 문화의 비전을 '창의한국'으로 설정하게 된 것이다.

"창의한국(Creative Korea)"의 모습

3가지 목표

창의한국의 3대 추진목표는 창의적인 문화시민, 다원적인 문화사회, 역동적인 문화국가이다. 이는 개인, 지역, 국가 차원에서 추구해야할 가치와 목표를 도출한 것이다.

창의성(creativity), 다양성(diversity), 역동성(vitality)은 창의한국의 세 가지 키워드이다. 여기에서 창의성은 나머지 가치를 낳는 동력이라는 점에서 핵심 키워드이다. 창의성은 다양성을 만들어 내며 다양성은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다양성이 모일 때 역동성이 생겨난다.

이러한 관계에서 볼 때, 창의적인 문화시민이 모여 다원적인 문화사회를 구성하며 다원적인 문화사회는 창의적인 문화시민이 숨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다원적인 문화사회가 모일 때 역동적인 문화국가가 만들어진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개인의 창의성이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국가의 역동성을 만드는 근간이다.

창의적인 문화시민

창의적인 문화시민은 다원적인 문화사회와 역동적인 문화국가를 만드는 근간이다. 창의적인 문화시민은 개인이 가진 다양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통능력을 가진 시민이다. 이는 어려서부터 문화적인 교육을 받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문화를 즐기는 가운데 길러진다.

다원적인 문화사회

다원적인 문화사회는 일과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여유 있는 사회,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을 문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성이 넘치는 사회이다. 다원적인 문화사회는 문화민주주의를 통해 만들어지는데, 문화민주주의는 차이를 차별이 아닌 다양성으로 존중하고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참여민주주의를 공고히 해준다.

역동적인 문화국가

모든 지역이 다원적인 문화사회가 될 때 다양한 지역문화가 꽃피고 국가 전체의 역동성이 살아난다. 세계 12대 경제강국에 걸맞는 긍지와 자신감을 갖고 문화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와 호흡하는 문화국가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과거의 역동성이 고성장 과정에서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면 창의한국이 지향하는 역동성은 사회 저변으로부터 올라오는 생명력이 분출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5대 기본방향과 27대 추진과제

새로운 문화정책의 중심축 설정: 개인, 지역, 국가

그동안 문화부문의 정책은 문화창조와 문화경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은 창의적인 문화시민, 다원적인 문화사회, 역동적인 문화국가를 이루기 위해 투입되어야 할 자원이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 지역, 국가를 문화정책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설정하였다.

문화창조와 문화경제는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며 이들의 산물은 개인의 창의성을 길러내는 매체를 제공한다. 문화창조와 문화경제는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양대 축이다. 문화 개념의 확대와 정책영역의 재편에서 문화창조에는 문화유산, 예술, 전문체육이, 문화경제에는 문화산업, 관광, 스포츠산업이 속한다. 이 양자는 전자가 자원이며 후자가 이를 산업화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역에 문화자원이 풍부할 때 문화경제가 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지역은 창의적인 문화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문화교육과 문화복지, 다원적인문화사회를 이루기 위한 문화창조와 문화경제, 역동적인 문화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중심적인 위치를 가지며, 다양한 지역문화와 자생적 발전동력을 통해 국가간 문화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문화와 개인 : 문화 참여를 통한 창의성 제고

늘어나는 여가시간은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모든 국민이 어려서부터 문화를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문화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이주노동자 등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계층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1.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

문화예술교육은 평생에 걸쳐 문화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인 문화이해력(Literacy)을 높여준다. 문화를 이해하는 시민들은 스스로 문화를 즐기고 표현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창의성이 길러진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을 지식중심에서 문화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 문화시설에서 누구나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진과제 2.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심신의 조화 발달

정신과 신체의 균형적인 발달은 창의적인 사고와 감수성의 바탕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체육종목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즐겁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체육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과 운동장을 개선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며 기능교육위주인 학교운동부를 자발적인 학교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추진과제 3. 문화활동 증진을 통한 여가문화의 질 향상

여가는 국민복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를 통해 삶의 질이 결정된다. '생산적 여가'는 개인의 창의성과 함께 기업의 생산성의 바탕이 된다.

자기계발형 여가활동을 통해 문화향수자 및 아마추어로서의 문화창작, 자기성장을 위한 문화향수 등을 취함으로써 개인 창의성이 증가한다.

추진과제 4.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생활체육은 사회 구성원인 일반국민이 여가시간에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의지에 의하여 다양한 체육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문화활동이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체육 참여의 질 확대를 위한 스포츠클럽 조성, 신규 레저스포츠 활성화, 과학적 국민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이다.

추진과제 5. 창의적인 청소년 문화의 육성

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청소년은 문화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창의적인 집단이다. 다양성을 구현하는 문화창조자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청소년 문화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사회적 창의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지식을 강조하는 입시 위주의 교육적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의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추진과제 6. 양성평등 문화 확립

오늘의 세계는 창의성과 다양성, 감성과 지성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여성의 시각과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를 옮겨가고 있다. 여성의 잠재력을 가치있게 여기는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변화만큼이나 시민과 사회의의식과 문화의 변화가 중시되어야 한다.

추진과제 7. 문화적인 노후생활 보장

행복한 노후생활은 경제적 안정, 건강, 정신적 만족의 조화에 있으며 노후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이다. 문화주체로서 노인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들의 체육·문화 예술·여가활동을 확대하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추진과제 8.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권 신장

사회적 취약계층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문화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문화와 사회 : 문화의 정체성과 창조적 다양성 제고

창의성을 길러주는 문화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좋은 문화는 투자에 비례한다. 선조가 남긴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새로운 문화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정신적, 감성적, 신체적 최고 수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적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9. 새 언어문화의 형성

언어문화는 사회적·민족적 창의성의 원천이다. 그 민족의 언어는 건강하고 창조적인 문화를 떠받치는 신경망이다. 시대에 맞는 새 언어문화가 활발한 소통성을 가지면서 사회적 차원의 창의성을 이루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한다.

추진과제 10. 열린 민족문화로 다가서는 문화정체성

민족문화는 고정된 실체라기보다 역사를 통해 구성되고 일상적인 삶의 방식과 문화를 통해 끊임없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다. 이제는 단일 민족문화를 전제로 한 폐쇄적 시각에서 벗어나 융화적 태도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 민족문화의 핵심가치와 상징체계를 발굴하고 재정비함으로써 열린 문화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추진과제 11.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통의 현대적 계승

문화유산은 그 나라 역사의 물질적·정신적 결정체로서 민족 구성원의 사상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개인의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반이다. 그동안 문화재정책이 원형 보존에 치중하다 보니 문화재를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앞으로는 문화재 원형보존의 질적 수준을 높이면서도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재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다.

추진과제 12. 예술의 창조적 다양성 확대

예술은 창의적 과정의 산물이자 인간 정신활동의 최고 결정체로서 가장 직접적으로 창의성을 인식할 수 있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예술은 창의성을 길러주는 가장 중요한 매체이다. 예술이 시민, 지역, 국

가의 창의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술의 창조성을 증진하고, 예술의 자생력을 신장하는 한편, 향유자 중심의 예술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추진과제 13. 스포츠시스템의 개편과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

대부분의 체육선진국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토대로 엘리트체육이 발전되는 체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선수저변이 풍부하고 엘리트선수 공급이 원활한 편이다. 우리나라도 국가올림픽위원회 체제로 체육단체를 전환·개편하고 선수공급시스템을 다원화하며 기초종목을 기반으로 다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문화와 경제 : 문화를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화

지식기반사회에서 문화는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자원이다. 사회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산업, 관광, 스포츠산업 등 창조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시장유통, 마케팅 등 산업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문화공공성에 대한 철학을 바탕으로 창조산업의 열매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문화적 유통과 수용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

추진과제 14. 문화산업의 고도화

문화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한류열풍으로 한국 문화산업의 세계시장 진출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제한된 콘텐츠 수준을 넘어서는 창의적이고 복합적이며, 다양하고 질 높은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

세계 문화산업 5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산업 경쟁력 기반 강화, 문화콘텐츠 창작·유통구조 개선, 국내 수요기반과 해외진출 역량 강화, 문화산업 환경인프라 확대, 지원기관 효율성 강화, 지역문화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다.

추진과제 15.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

관광산업은 외화획득과 함께 부가가치가 높아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산업이며 문화산업, 레저스포츠산업과 함께 다양화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경협

을 중시하는 국민의 관심에 적극 부응하여 계층을 초월한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관광한국을 이루기 위해 관광자원과 상품의 고품질화, 관광사업 투자여건 획기적 개선, 관광을 통한 활력있는 지역발전 등을 추진할 것이다.

추진과제 16. 스포츠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스포츠산업은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등 기존 산업과 정보기술, 멀티미디어 등 지식산업이 연계된 복합산업이다. 최근 뉴미디어시대의 도래로 미디어의 스포츠콘텐츠 확보경쟁이 치열해지고, 체육활동의 증가에 따라 스포츠용품에 대한 수요 확대, 용품의 다양화, 첨단화 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스포츠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프로스포츠 활성화, 스포츠산업 육성기반 구축 등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문화와 지역 : 국가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 구축

지역의 불균형 발전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기반을 상당부분 와해시켰다. 이제 문화는 대도시에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지역이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문화를 통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부문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17. 지역의 문화역량 제고

지역문화의 자생력 배양을 통한 특색있고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중심으로 지역문화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주민생활 밀착형 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문화공간을 운영하며 지역적으로 특색있고 자생적인 문화 프로그램을 등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추진과제 18.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환경 조성

공간환경 정책은 인간의 정서와 행동에 미치는 공간환경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창의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지

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현장을 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지구와 문화벨트 조성, 가로·광장·공원을 걷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하고 도시역사문화공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

추진과제 19. 문화시설의 균형적 확충과 운영 활성화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주민친화형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최소기준의 수립과 문화시설 조성의 계획적 접근, 문화시설의 수적·질적 확대와 지역적, 계층적 균형조성으로 전국민의 문화향수 기회증대, 문화시설의 다양성 확대와 이용률 제고를 통해 지역 중심시설로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추진과제 20.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정보체계 구축

원하는 정보를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고품질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구축, 문화정보 접근성과 활용성 강화, 문화정보화를 통한 열린 문화행정구현 등의 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추진과제 21. 지역문화의 역동적 특성화

문화를 통한 지역의 역동적 발전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살린 문화중심도시의 건설과 지역 문화산업, 지역별 관광, 레저스포츠의 특화 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추진과제 22. 농어촌의 문화환경 조성

농어촌이 도시와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주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관광을 통한 주민소득기반 창출에 힘쓸 것이다.

추진과제 23. 신행정수도 문화기획

기존 도시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신행정수도를 주민간의 소통이 원활한 도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문화적으로 쾌적하고 한국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문화도시로서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행정수도 이전후 세종로 권역을 시민문화공간

으로 조성하는 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문화와 세계 :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증진

세계화와 동북아 지역의 불룩하는 국제관계에서 창의적인 전략을 필요로 한다.

쌍방향의 문화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공고히 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를 강화하여 국가브랜드 파워를 증진시켜 나가고자 한다. 남북이 문화를 통해 성숙한 내면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동북아 평화의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아시아 문화의 발전을 선도하는 문화적 리더 국가로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다.

추진과제 24.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 향상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언론을 통한 공보 중심에서 자국의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고 널리 알리는 문화홍보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장기적, 전략적 문화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홍보 핵심기능의 통합·집적화,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한 문화홍보의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추진과제 25.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문화 다양성 증진

국가가 주도하는 선진국 중심의 일방적 문화교류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축이 되어 우수한 해외문화를 받아들이고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쌍방향 문화교류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부문의 국제기구 활동을 강화하고 국가간 전략적 문화교류를 추진할 것이다.

추진과제 26. 동북아 문화협력 강화

동북아에서의 진정한 평화협력 구현과 호혜적인 문화조성을 위해 동북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문화산업, 관광, 스포츠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추진과제 27. 남북 문화교류 확대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상생의 통일문화를 위해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남북간 문화교류를 다양화하고 제도화하면서 민족화합의 기틀을 닦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창의한국(Creative Korea)"의 6가지 비밀

"계획"이 아닌 "비전"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문화의 위상이나 문화의 잠재력을 사회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5년, 10년 단위의 제한적인 실현 가능한 정책처방뿐만 아니라, 문화적 상상력을 통해 꿈꿀수 있는 미래의 설계도를 지향하였다.

단기간에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미래지향적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할 사항은 포함하였음.

분야와 의제를 포괄하는 문화부문 정책 지침서

문화예술, 체육, 청소년 등 과거의 분야 중심의 정책비전과 달리, 분야와 의제를 포괄하는 문화정책에 대한 충실한 안내서이자, 기본적인 정책의 지침서가 되고자 하였다. 광의의 문화개념을 설정하고, 공간환경, 여성문화, 소외계층 등 새로운 의제들을 문화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하였다.

문화개념의 확대와 정책영역의 재편

그동안 "문화"의 개념을 문화관광부의 정책영역중 문화예술, 관광, 문화유산으로 한정함으로써, 체육, 청소년정책과의 유기적 연계성을 발휘하기 어려웠고, 나아가 문화적 접근이 필요한 건설교통, 교육, 보건복지, 여성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가 제의한 문화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문화정책의 영역을 민족적 정체성, 교육과 학습, 자연적이고 인공적인 공간, 관광, 스포츠와 레저 활동까지를 포함하여 정책의 틀을 만들게 되었다.

유네스코 국제회의에서 제시된 문화의 정의는 "광의의 문화란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독특한 영적, 물질적, 지적, 정서적 특성들의 총체적인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예술과 문자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체계, 전통, 믿음을 포함한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살아있는 정책유기체

이번 비전은 광의의 문화 개념을 채택하고 정책영

역을 확장함으로써 그동안 소홀히 다루었던 문제들에 대한 고민과 정책개발에 노력하였으나,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완성된 정책을 한 번 발표하고 마는 결과물로서의 비전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비전'이 될 것이다. 이번 발표와 동시에 「창의한국」은 다시 시작되고,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 각각의 영역에서 서로를 느끼고 호흡하며 진화해 나갈 것이다.

정부와 민간부문의 소통의 결과, 공동의 작품

「창의한국」은 '03년 4월부터 운영되어온 20여개 TF의 연구성과들이 집대성된 것이기도 하다. 각각의 과제별로 내외부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문제해결의 실타래를 풀려고 고민했던 결실을 여기에 담은 것이다. 따라서 「창의한국」은 정부만의 성과가 아니라,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가 정책입안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얻은 결실인 것이다. 20여개 TF에는 학계, 현장전문가, 연구원 등 200여명이 넘는 인원이 활동하였다.

「창의한국」은 수립과정속에서 이미 존재해왔다?

「창의한국」은 그 수립과정에서 이미 그 존재의 의미를 발휘하고 있었다. 국가 균형발전 5개년수립이라든가, 관광진흥5개년계획, 참여복지5개년계획(복지부)등 기존에 발표되거나 준비중인 다양한 정책계획에 「창의한국」의 기본구상과 정책과제가 반영되는 등 우리부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과정속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003심청축제

(평가보고서)

이 평가보고서는 축제기간에 축제장을 찾는 주민, 관광객, 축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평가와 성과 소원, 읍면의 자체평가 등을 총체적으로 종합하여 곡성군(주관부서)과 곡성심청축제추진위원회에서 분석한 자체 평가자료입니다.

행사개요

가. 행사개요

행사명 : 곡성심청축제2003

GOKSEONG SIMCHEONG FESTIVAL 2003

谷城沈淸祝祭2003

주 제 : "효와 환경이 미래를 연다"

부 제 : 이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심청과 만남

기 간 : 2003. 10. 2(목) ~ 10. 5(일) / 4일간

장 소 : 섬진강 자연생태공원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주 최 : 곡성군

주 관 : 곡성심청축제추진위원회

후 원 :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한국관광공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한국실명예방재단,
광주MBC, KBC광주방송, 목포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나. 주요행사 (6개부문 58개 단위행사)

이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심청과 만남 (6)

『곡성심청』역사관, 심청 공양미삼백석 모으기, 심청테마 이야기(한지공예), 『심청가훈』받아 가세요, 심청캐릭터 상품 전시, 현장 시력건강 점진

심청 문화·공연 한마당 (20)

2003 효녀심청선발대회, 제3회 효문화 학술 심포지엄, 제3회 심청가요제, 제4회 효녀심청 전국청소년 예술 공모전, 심청축제기념 제3회 섬진강 마라톤대회, 심청축제기념 전국정보검색대회, 전국 청소년 그룹댄스경연대회, 뽕파전, 심청길놀이, 심청가 판소리 한마당, 국악 대향연, 곡성·거창군 여성합창단 공연, 장애인 사물놀이패 공연, 심청골 전통농악공연, 『심청 효 콘서트』부모님 전상서, 가을밤의 포크 콘서트, 심청 열린음악회, 곡성국악원 공연, 심청골 분재·야생화 전시, 낙죽금장도 및 백동연죽장 전시

심청골 저잣거리와 전통체험 한마당 (11)

『청아, 청아, 내 딸 청아!』심청마당극, 가상『심청의 집』재현, 대장간 체험, 뽕떡이 주막, 전통 한과점, 방물전, 전통 떡치기 체험, 다듬이·물레질 체험, 옛날 농사일 체험, 짚·풀 공예 전시 체험, 전통민속놀이 체험

수만평 코스모스 속에서 "너랑나랑 체험" 한마당(8)

심봉사 체험, 전통차와 만남, 심청전 주인공과 추억 남기세요(심봉사, 심청, 뽕떡어멈 탈인형), 페이스 페인팅, 봉숭아물들이기, 분경과 압화 체험, 황토 천연염색 체험, 『효의 격언·속담』길거리

섬진강 자연생태공원의 신비체험 한마당 (7)

섬진강 자연생태관, 갈대와 산책로, 섬진강 민물고기 잡기 체험, 섬진강 레포츠, 섬진강의 오리떼, 섬진강과 심봉사 다리, 갈대 속의 동물농장

부대행사 (6)

심청골 농특산품 홍보관 운영, 심청골 향토음식점 운영, 섬진강 자연학습원 운영, 섬진강 자전거 하이킹, 곡성·거창군 사진동우회 사진전시, 우표전시

총평

전반적인 분위기

2003년 10월 파아란 가을하늘 아래, 코스모스와

갈대 그리고 섬진강이 어우러진『곡성심청축제2003』행사는 규모나 행사내용 면에서 많은 관광객들의 찬사와 전국축제로서 손색이 없었다는 평가가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특히, 주제인 [효와 환경]을 [어울림]으로 만들어 낸 이번 곡성심청축제는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음으로써 약 70만 명의 관광객이 행사장을 찾았고, 인터넷·방문소감 등을 통해서 아낌없는 평가를 남겼고, 아름다운 기행문도 남겼다.

“강과 바람이 함께 만든 섬진강의 역새와 코스모스 / 사방에서 모인 흥분과 감격이 어우러진 골짜나라의 가을 축제 / 심청의 옷자락이 사랑과 효행을 가르치고 있는 곳 / 생전에 처음 만난 환상의 심포니 / 옛날 아주 먼 옛날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그 이야기가 사는 곳 / 거기 곡성에 가시면 모든 것을 가슴에 안을 수 있어 좋습니다 (10월 4일 인터넷)

“그 어느 축제보다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많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가 만발해 있는 곳에서 예쁘게 사진 촬영도하고, 효에 대한 좋은 글귀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특산물판매장에서 물건도 사고..... 이렇게 우리가족은 효녀 심청과 만나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10월 4일 인터넷)

“날씨가 쾌청해 모처럼 징검다리 연휴로 가족 동반 나들이가 특히 눈에 띄었고 넘쳐나는 인파로 부득이 발길을 돌린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하니 효를 주제로 하는 테마 축제가 확실히 정착했음을 느낄 수 있었고, 특히 다른 축제와 달리 만고효녀 심청의 [효]가 21세기 인류의 삶에 맑고 소중한 가치로 다시 태어나는데 크게 기여했던 부분은 체험행사가 많아 단순한 관람자가 아닌 참여와 체험을 통해 축제에 동참했던 부분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었다” (10월 5일 인터넷)

“ [효와 환경이 미래를 연다]의 주제에 맞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가 있어 너무 좋다. 특히 요즘 다른 곳에서도 친환경 축제들을 많이 개최하고 있는데 모두가 인위적으로 만든 축제인데 비해 이곳 곡성심청축제는 섬진강의 [자연]을 잘 보존해 활용하고 있어 너무 훌륭하다. 내년에도 또 찾아오고 싶다. (어느 관광객)

또한, 이번 축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해 몇 번씩 행사장이 침수되는 자연현상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수 만평에 이르는 코스모스 단지를 만들어 그 위에 심청의 전통성을 살려 환상적으로 연출해냄으로써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 준 값진 행사로써 우리에게 크게 3가지의 교훈을 남긴 교훈적이고 생산적인 축제였다.

첫째, 자신감과 희망을 준 축제였다

그 동안 많은 군민들이 매년 우수기에 행사장이 침수되어 행사개최가 불투명 할거라는 염려가 이번 축제를 통해서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섬진강자연생태공원에서는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 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자신감을 주었다는 것이다. 금년은 유난히도 길고 잦은 장맛비와 태풍이라는 초유의 자연재해가 행사준비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행사장의 약점과 강점을 잘 활용하여 코스모스·갈대·섬진강, 그리고 초가집의 전통을 살려 심청의 주제를 다양하게 연출해 냄으로써 [곡성심청축제]의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어 군민 대다수가 종전의 우려들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축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축제 관계자들의 축제에 대한 마인드가 한층 높아졌다

두 해의 축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행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운영하는 마인드가 한층 높아졌다는 점이 다. 특히 공무원들이 각 분야별로 담당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해 접목시킴으로서 성공적인 축제로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아이템들을 발굴하여 운영 프로그램에 반영함으로써 [축제를 운영하는 능력]들이 배가되었다는 점이다. 종합상황실, 심청 역사관, 봉숭아물들이기, 동물농장, 옛날 농사일 해보기, 심봉사 체험, 섬진강 자연생태관, 전통민속놀이 등등 이밖에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축제추진위원회나 주관 부서가 요구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준비하고 운영해 주었다는 점이다.

특히, 도내에서 가장 큰 주차장을 갖고 있는 곡성심청축제는 주차장 운영 면에서도 국제행사에 버금간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한다.

셋째, 군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진 생산적인 축제였다

이제 주민들이 축제에 참여하는 계층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새로운 면을 보여 주었다. 종전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들이 축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프로그램 참여에서는 '삼강원 풍물패 공연', '곡성중앙초등학교 무용단' 등의 참여가 한 예이며,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율방범대, 게이트볼협회 등의 자원봉사자들이 정화활동 및 주차 안내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이는 모두 무보상 참여였다는 점이 곡성심청축제의 밝은 미래를 예고해 주는 좋은 예다.

홍보면 또한 각급 기관, 사회단체, 군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는 대부분 관내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정도의 참여에서 금년에는 각종 세미나, 교육, 모임 등을 통해서 홍보물을 직접 배포하는 등 대외홍보에 큰 역할을 했다.

소득 면에서도 군민들의 참여가 지난해와 달리 상당히 적극성을 띠었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향토식당(10개 업소)에 참여만이 축제를 통한 직접적인 소득으로만 알았던 군민들이 축제장을 중심으로 외곽 지역(제방 주변 / 15~20여 개 / 식당운영)에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참여했다는 점이 곡성심청축제가 앞으로 생산적인 축제로 가는 큰 발판이 되는 좋은 예였다. 다만 축제를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그에 따르는 룰[律]을 지키면서 참여해야 한다는 점과 식당운영만이 소득을 올리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주민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보다 다양한 방법을 연구 개발하여 소득증대에 참여해야 한다. 앞으로 심청축제 뿐만 아니라 곡성군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군민들 스스로가 풀어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 산나물·약초 판매장 운영, 된장·고추장·메주 판매장 운영 등을 한 예로 볼 수 있다. 어쨌든 이제 군민들이 축제를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에 조금이나마 눈을 뜨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교훈이며 생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의 각종 문제점 등을 최대한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서 운영했던 '곡성심청축제2003' 행사에도 화장실 부족 등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다. 특히 지난해에 가장 많은 문제점을 남겼던 향토음식점 운영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는 운영주체(군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선해야 할 몫보다는 식당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개선해야 할 [군민의 몫]으로 남았다. 또한 지난해 향토음식점 운영과 더불어 가장 많은 문제점을 도출했던 지역 농·특산품 홍보관 운영, 행사장내 주차 문제 등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농·특산품 홍보관 운영에 따른 장소 선정 문제라든가, 간혹 일부 차량이 행사장내에 주차하는 사례가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 밖에도 [곡성심청축제2003]행사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남긴 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잘된 점

이번 행사에서 가장 돋보였던 부분은 그래도 '코스모스'를 확대 재배하고 개화시기 조절에 성공하였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행사장 배치에 과감한 변화를 주어 행사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 먼저, 첫째의 화려했던 코스모스의 모습이 없이 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아쉬움의 여운 남긴 제막을 내렸던 지난해 축제를 거울삼아 코스모스 조성에 열과 성을 다해 화려한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종전의 향토음식점과 풍물시장으로 활용했던 지역과 제방측면, 운동장 식생블럭, 주차장 주변으로 면적을 확대 조성하였다. 수 차례 수십일 동안 침수되는 지역에서도 그토록 화려하게 조성되는 코스모스를 키워 낼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축제에서 또 한번 우리를 놀라게 했으며 가장 큰 교훈으로 희망을 주었다. 코스모스의 특성과 토질, 그리고 행사장의 강점을 잘 분석하고 활용하여 코스모스를 재배하는 방법 등을 아낌없이 배려해준 전남과학대학(화훼원예과 전미석 교수)의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이제는 축제를 개최하는 주체[곡성군-공무원]나 주관단체[추진위원회]는 물론 군민들은 이번 축제를 통해서 그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보다는 [어떤 문제에 대해 강점과 약점을 잘 분석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불가능이 없다]라는 교훈을 거울삼아 군정발전에 함께 힘을 모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 그리고 행사장 배치에 과감한 변화를 주어 행사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이 이번 축제에서 큰 수확이라 볼 수 있다. 지난해 평가단(배제대학교)에서 행사장 배치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이 있었다. 첫째 행사장 입구에 위치한 향토식당 및 풍물시장이 축제에 대한 선입감을 크게 흐리고 있어 다른 곳으로 이동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과, 둘째 넓은 행사장을 두고 행사 프로그램들이 일직선 동선으로 배치되어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도 전체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감하게 집목시켰다. 먼저 향토식당과 풍물시장을 신급곡교 다리밑(구 주차장)으로 옮김으로써 축제에 대한 선입감을 높였으며, 행사 프로그램들을 제방 밑에서 코스모스 단지 내로 분산형으로 배치함으로써 동선을 원형으로 만들어 관광객들의 체제시간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창출하여 향토식당 등 각종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함께 가져오게 했다.

▶ 또한 그 동안 곡성심청축제가 심청의 효보다는 섬진강의 자연환경을 주제로 하는 축제에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라는 군민들과 전문가들의 많은 우려가 있어 왔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종전의 각종 체험·전시장이 일반부스를 설치하여 운영되었던 것을 초가부스로 제작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심청의 주제에 맞는 전통성을 살리는데 성공적이었다는 평이다. 또한 심청테마 이야기(한지공예), 현장 시력건강 검진, 장애인 사물놀이패 공연, 심봉사 체험, 심봉사·심청·뽕떡어멈 등 탈인형 운영, 페이스 페인팅(심청+코스모스), 효의 격언·속담 길거리 조성, 가상 심청의 집 재현 등 심청을 주제로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으며, 그 동안 심청을 주제로 하여 산만하게 운영해 오던 곡성심청 역사관, 심청캐릭터 상품 전시, 심청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 심청가훈 받아가세요 등의 프로그램들을 한 곳으로 집단화·대형화하여 [심청과 만남의 장]으로 만들어 축제장의 첫 관문에 배치함으로써 심청의 주제를 크게 부각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여 축제가 주제인 '효와 환경'이 잘 조화된 축제였다는 평가였다.

▶ 곡성심청축제가 가장 자랑할만한 강점으로 잘 보존된 섬진강 자연생태의 자연미를 최대한 활용하여 각종 참여·체험거리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물농장, 심청마을 저잣거리, 자연생태관, 갈대아 산책로, 오리떼, 심봉사 다리 등은 금년 역시 많은 관광객들에게 정감과 찬사를 받았다.

▶ 축제 홍보면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이어 범 군민으로 확산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원화되었다. 우

선 곡성군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의 현지방문 홍보는 귀감이 되었으며, 관내 기관·단체·기업·개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는 다시 한번 군민의 힘을 한곳으로 모아 군민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관내 기관·단체, 개인들이 각종 세미나, 교육, 모임 등을 통해 홍보물을 배포하는 사례들은 이번 축제의 홍보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일로 평가되었다. 또한 전국 유치원 1,000여 곳에 홍보물을 배포하였고, 예년과는 달리 축제 주관방송사인 광주MBC의 '화제집중'을 행사전일에 녹화 방영하였고, 섬진강 마라톤대회를 행사전일 홍보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뉴스보도 되는 등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또한 진일보했다는 평이다.

이 밖에도 행사장의 가장 취약점인 그늘막이 없어 늘 우려했던 부분을 잔디광장에 파라솔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쉼터를 제공하였고, 직원들의 행사진행 수준의 향상, 주무대를 초가형 전통무대로 꾸며 축제의 전통성을 살린 점이 이번 행사에 있어서 그래도 자랑할 만한 부분으로 남았다

미흡했던 점

이번 행사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미흡했던 점에 대한 군민이나 관광객들의 반응이 지난해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운영상 몇 가지 미흡했던 점들이 도출되었다. 관광객 수요에 미치지 못한 화장실 부족, 행사기간 중 코스모스 관리 미흡으로 행사 마지막 날 코스모스가 거의 손상되는 등 예기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고, 그 동안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개선을 요구했던 향토식당 및 풍물시장의 운영상 문제점, 일부 프로그램의 장소 변경에 따른 문제점, 주무대 행사장 및 잡상인 단속 미흡, 군민들의 의욕만 앞선 참여 형태의 문제, 마라톤대회의 개최 문제, 탈인형 및 페이스 페인팅 등이 운영상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 화장실 부족 및 코스모스 관리(행사기간 중) 미흡 등 예기치 못했던 사안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두 해의 경험으로 관광객 수요에 맞는 화장실을 설치함에 국한하여 관광객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데서 오는 문제점으로 향후 증설하여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코스모스단지에 경계선 미설치 및 사진촬영 장소 미지정 등으로 인해 행사기간 중에 많은 코스모스들이 손상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 바가지 요금 근절, 전통적인 음식 개발 등 [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요구했던 향토식당 및 풍물시장의 운영에 이번 행사에도 개선되지 못 한채 다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외형상에 큰 변화를 주어 개선한 점은 괄목한 성과로 볼 수 있으나, 참여자(관내식당 및 관외식당)의 지나친 상업의욕이 앞서 가격에 비해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을 토로했다. 또한 관내 주민들이 참여하여 운영했던 향토식당 등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아 공무원들이 이를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행사를 담당하는 부서별로 잘 해보겠다는 의욕이 앞서 일부 프로그램이 장소를 변경하여 운영함으로써 장소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여론이 많았다. 특히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이 당초 주차장 도로변에서 [심청과 만남의 장]내로 변경 운영함으로써 전체의 이미지를 흐렸다는 여론들이었다. 그러나 농·특산물 홍보관은 운영상에서 지난해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 매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무대 행사 진행관리나 잡상인 단속에 이번 행사에도 개선되지 않아 행사진행에 많은 문제점을 도출시켰다. 두 개 부서를 담당으로 지정하다보니 업무의 한계로 서로 미루는 현상이 발생되어 무대에 필요한 집기 등이 시간 내에 준비되지 않아 공연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발생되었으며, 매일 관람객을 통제할 요원이 없어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 다른 축제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을 초래했다.

▶ 이번 행사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일이며,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지역주민들의 주민소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욕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제방을 중심으로 간이 음식점을 설치하여 주민소득에 적

극 참여하려는 의욕은 향후 축제를 발전시켜 가는데 있어서 [주민 참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상당히 바람직한 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코스모스 등 많은 외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로 제공해야 할 자원을 무시한 체 훼손(일부)하는 사례와 중장비를 동원하여 일부 갈대밭을 정지작업을 해 버린 사례는 주인의식이 결려되는 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많은 군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필요로 축제에 참여하는 방법 등을 제시해 주지 못한 주최측에서도 책임이 함께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군민과 함께 연구할 부분으로 남았다.

▶ 마라톤대회 일정확정이 너무 늦었고 또한 전국대회가 집중되어 있는 일자를 사전검토 없이 확정해 버려 늦은 홍보와 마라톤 매니아들의 다른 대회 참여로 인해 지난해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의 대회를 개최했어야 했음이 다음대회를 준비하는데 큰 교훈으로 남았다. 또한 주관단체가 관내단체로 대회를 전국화 시키지 못함이 이내 아쉬움으로 남았다.

▶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상 관광객들의 호응도를 예측하지 못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관광객들의 체험행사에 큰 아쉬움을 남기는 문제점을 낳았다. 탈인형(심봉사, 심청, 뽕덕어멈) 및 페이스 페인팅 운영을 예산문제로 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사례와, 압화체험(무료)의 재료 제공 한계로 인한 운영 중단, 심봉사 체험의 증정할 기념품 부족으로 시간을 제한하였으며, 봉숭아 물들이기 역시 재료 부족 등으로 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웠다.

향후 개선방향

▶ 코스모스는 곡성심청축제와 불가분 관계로 이제 그 자리매김을 확고히 했음은 그 동안 3번의 축제를 개최하면서 확인된 가장 소중한 자원이 되었다. 따라서 금년에 시험 조성한 제방측면, 운동장 식생블럭 등의 코스모스 단지 조성이 성공됨으로써 운동장 측 제방측면 및 식생블럭, 주요 간선도로변 등으로 코스모스 면적을 확대 조성하여 축제 효과를 배가시켜야 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금년 행사에 코스모스 관리 대책이 미흡하여 행사기간 중 상당한 면적의 코스모스가 훼손되어 관계자들을 안타깝게 했던 것을 거울삼아 경계선 설치 및 사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사진촬영 장소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행사장 모형을 타 지역축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부스의 모형에서 과감히 초가부스 모형으로 하여 코스모스와 갈대밭에 분산시킴으로써 심청축제의 전통성을 살려내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행사장을 매년 심청축제의 주제에 맞도록 전통성을 살린 새로운 변화가 있는 행사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 매년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향토식당 운영에 대해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향토 음식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매년 참여식당들에 대한 [평가단]을 군민들로 구성하여 직접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2~3개 식당에 대해서는 다음 대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참여식당에 종사하는 종사원은 모두 옛날 복장 차림(남자 - 하얀 바지, 저고리 / 여자 - 까만 치마, 하얀 저고리)을 함으로써 심청축제의 전통성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제 군민들이 축제를 통해서 소득증대에 참여하는 정도가 적극 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군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 대책으로 행사장의 일정한 장소에 [옛날 시골장터] 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다만 군민이 참여하는 향토식당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터국밥 판매, 막걸리 판매, 약초·

산나물 판매, 채소류 판매, 된장·고추장 판매, 김치 판매, 콩 등 곡류 판매]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또한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로 해야 한다. 최소한 금년과 같이 무분별한 간이식당 운영은 적극 지양할 수 있도록 대금민 홍보를 하면서 연초부터 참여 희망 농가들을 파악하여 그 규모와 운영방법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 이번 행사에 가장 우수한 사례는 각종 행사 프로그램들을 장르별로 편성하였다는 점이다. 총 6개 마당으로 편성하여 관광객들의 참여가 용이할 수 있도록 원형의 동선으로 배치하여 운영했다. 그러나 조금은 산만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종합안내소에서 안내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 따라서 장르별로 그룹화 하여 운영하고 부스 형태도 일괄 초가부스보다는 기와부스, 갈대부스 등 다양한 형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접목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

이 밖에도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2004년도 행사에 적극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는

- ▶ 주무대 행사진행을 위해 단일 담당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고 주무대 뒤에 대기소를 마련 비품관리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며
- ▶ 마라톤 대회는 일정과 담당부서와 주관단체를 연초에 확정하고 그 규모를 풀 코스 도입 등 전국대회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며
- ▶ 관광객들의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산 확대지원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 ▶ 행사장을 안내하는 도로표지판 증설 및 안내소 설치 등이 해당된다

관광객 추이 분석

▶ 『곡성심청축제2003』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 수는 약 70만 명으로 추정한다. 첫째날인 2일(평일) 8만 명으로 추정하고, 둘째날 3일(공휴일) 20만 명, 셋째날 4일(토요일) 15만 명, 넷째날 5일(일요일) 20만 명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행사 전후(1개월 간)로 전국 각지 유치원생, 초·중학생과 일반 관광객 등 7만 명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곡성심청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의 추이를 보면 매년 비슷한 현상을 나타냈다. 유치원생부터 70~80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참여하였다. 효과 환경의 학습장으로 활용하려는 가족단위 참여가 주를 이루었다.

▶ 또한 심청축제장을 찾았던 관광객들을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광주 등 외래 관광객이 90%이상, 지역주민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 다만 외국인 참여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곡성심청축제]가 풀어가야 할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었다. 해외 홍보 대책, 해외 자매결연 자치단체 주민 참여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예산 집행 및 수지 분석

▶ 『곡성심청축제2003』 행사와 관련한 총 예산액은 [축제예산 371백만원](군비 350백만원, 도비 10백만원, 민간자본 11백만원)과 축제장 정비 20백만원, 코스모스 관리 5백만원, 기타 축제장 조성 10백만원 그리고 문화관광부의 농어촌무대지원사업인 '열린음악회', '청소년 그룹대신 경연대회', '마라톤 대회 등 실과소원에서 연중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축제에 접목한 행사비 104백만원(군비 87백만원, 국비 17백만원)을 합해 총 510백만원이며, 이중 약493백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이는 예산액 대비 96.7%을 집행한 것이다.

▶ 총 집행예산 중 229백만원(48.9%)은 관내 업체 및 개인으로 하여금 참여케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환원하였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심청마당극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들은 불가피하게 관외 단체가 참여 할 수밖에 없었다.

▶ 또한 이번 축제를 통해서 주민의 직접소득 약 542백만원으로 추정 분석한다. 행사장 현지 조사에 의하면 향토식당 및 심청저갯거리 주막 등 공식 참여식당에서 207백만원, 제방주변 등 간이 음식점 비공식 참여식당에서 60백만원, 농·특산물 홍보 판매 12백만원, 압화판매 4백만원 등 약 283백만원(2002년도 142백만원 대비 100% 중)의 직접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관내 업체 및 개인이 축제행사 사업에 참여 229백만원의 직접소득을 올렸고, 관내 숙박시설 및 식당가, 주유소 등에서 약 30백만원의 직간접 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한다.

▶ 간접소득은 지난해 16억원의 경제파급효과(평가단)를 창출했다는 결과로 볼 때 이번 축제에서는 참여 관광객 대비 그 이상의 경제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한다.

행사별 분석 및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심청과 만남

행 사 명	문 제 점	개 선 방 향
곡성심청 역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관 내부시설 및 관람장소 협소 추진부서 일괄성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규모 확대 설치 및 추진부서 일괄성 유지
현장 시력건강 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스설치에 있어 정밀 검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밀한 검진을 요하는 분야로써 칸막이 등이 설치된 별도의 부스 마련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소 선정 위치 부적절 (안쪽 구석진 곳에 설치로 관광객 참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객이 많은 곳으로 설치 검토
심청가훈 받아 가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료 접수 배부로 신청량이 폭주 (대기시간 길어져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비를 받아 심청공양미 삼백석 모으기 행사의 성금으로 활용
심청캐릭터 상품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제품 전시 행사로 현장 판매가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인기품목에 대해 소량 제작하여 행사기간중에 판매하는 방안 검토
심청테마 이야기 전시 (한지공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7마당으로 연출을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다소 혼선을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개 마당정도를 추가 제작 전시 방안 검토

심청 문화·공연 한마당

행 사 명	잘 된 점	잘 못 된 점	개 선 방 향
심청가요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막 프로그램으로 많은 관광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추진부서 일괄성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노래자랑 참여자 중복 참여 홍보 미흡으로 관외 참여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노래자랑 참여자 중복 참여 고려 시상금제 도입으로 유명 가요제로 추진 검토
제4회 효녀심청 전국 청소년 예술 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수 민간단체 주관 추진 '곡성심청'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효과 시상 훈격을 높임으로써 참여폭 높아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시기 늦어 아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전 계획 및 홍보 시기 조정

행 사 명	잘 된 점	잘 못 된 점	개 선 방 향
전국 청소년 그룹댄스 경연대회	•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 기회 제공 • 청소년에 대한 관심 제고 기회 마련	• 토요일 행사로 학생들 참여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개최 방안 검토
뽕파전	• 심청축제의 이미지 부각	-	-
심청가 판소리 한마당	• 유명 국악인(조통달)과 곡성출신 국악인 초청공연으로 군민 관심 유발	• 주제에 맞는 심청가 판소리가 아닌 일부 다른 판소리를 하는 흠점이 도출	• 심청가 판소리로만 제한 운영
국악 대향연	• 전통 민요 및 가무로 축제의 전통성 살림	-	-
거창·곡성군 여성합창단 공연	• 자매결연단체 참여로 우호증진은 물론 축제 분위기 조성기여	• 주무대 행사진행 요원이 없어 무대 설치가 원활하지 못했음	• 주무대 관리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도록 조치
장애인 사물놀이패 공연	•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를 주는 계기 마련	-	-
심청골 전통농악 공연	• 우리 군이 가지고 고유의 문화를 많은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기회 제공	• 농번기로 인한 대원 참여 고충	• 대원 참여도를 높이는 대책 마련
'심청의 효 콘서트' 부모님 전상서	• 다양한 분야의 연예인 초청 공연으로 '효'이미지 부각 • 녹화 중계로 2차 홍보 창출	• 리허설 시간 미표시로 관광객들에게 불편 초래	• 리허설 시간 표시 등으로 관광객들의 이해 도모
가을밤의 포크송 음악회	• 30~50세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좋은 반응 보임	• 지난해 초청한 가수들이 대부분으로 신선한 맛이 떨어짐	• 한번도 초청되지 않는 가수 초청 검토
심청 열린 음악회	• 도동북, 오고무, 국악가요 등 소개 • 신·구 연예인 초청 공연으로 큰 호응	• 안내시간보다 지연 불편 초래 • 불꽃놀이 미흡	• 안내 시간 정확히 표시(리허설 등) • 불꽃놀이 규모 확대 검토
곡성국악원 공연	• 순수한 군민으로 구성된 솜씨 자랑으로 곡성국악 발전 가능성을 보여줌	• 체계적인 연습 부족으로 공연 미숙 초래	• 공연 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국악 강좌 운영
낙죽금장도 및 백동연죽장 작품 전시	• 우리 군의 전통문화를 대외 홍보 효과 창출	• 모래먼지로 인한 작품 훼손 우려와 관광객들에게 불편 초래	• 장소선정 검토
심청골 분재·야생화 전시	• 압화 및 절화의 판매를 병행운영 4백만원의 소득 창출	• 전시장 부스가 협소 • 압화 및 절화 판매가 '분경과 압화체험과 중복 초래	• 노천 전시장 검토 • 프로그램 단일화 추진

심청골 저자거리와 전통체험 한마당

행 사 명	문 제 점	개 선 방 향
심청 마당극	• 내용면 '곡성심청'이미지 부각 미흡 • 공연운영 시간 재조정 필요	• 공연자와 사전협의 추진 • 공연시간을 오전, 오후로 조정 운영
옛날 농사일 체험	• 체험거리 다양성 미흡	• 체험거리 및 농기구 다양성 확보 운영
전통 떡치기 및 전통민속놀이	• 전통 떡치기 체험 단순화 및 관광객 직접참여 미흡	• 쑥떡 인절미 등 종류 다양성 개발 및 관광객 직접 참여 운영

행 사 명	문 제 점	개 선 방 향
가상 심청의 집 대장간, 방물전 다듬이·물레체험	•방물전 전시대 미확보와 다듬이 물레 체험장 준비 소홀로 관광객 참여가 미흡	•방물전 전시대 확보 및 체험장 준비 철저
짚풀공예 전시 체험	•비단갈판 등 준비물 미흡	•사전 점검 등 준비물 확보
한과점	•전시 위주보다 판매에 치중	•선정시 생산현장과 전시 품목 사전 점검 추진
뽕덕어멈 주막	•당초 행사목적을 벗어난 상술행위가 강하다는 흠	•참여자 공개 모집 등 다른 운영 방안 검토

수만평 코스모스 속에서 "너랑나랑 체험" 한마당

행 사 명	문 제 점	개 선 방 향
심봉사 체험	•참여자 많아 시간 제한 운영 •체험시설이 다소 미흡	•체험기간 및 시간 확대 운영 •새로운 체험시설 개발 운영
심청주인공과 만남 페이스 페인팅	•운영 시간 제한 운영으로 관광객 아쉬움 많음	•예산확대 지원 등 운영시간 조정 운영
황토 천연염색 체험	•다량의 천연염색 체험 부족 (2종의 염색체험)	•황토를 이용한 다양한 색상의 염색재료 발굴 등
봉숭아 물들이기	•관광객을 예측하지 못한 재료 준비 특정일 제한 운영	•충분한 재료 확보
분경과 압화체험	•무료체험으로 참가자 많아 재료 부족으로 운영상 어려움 •심볼마크 외부 부착으로 장기 보관 어려움	•재료 판매제(2002년도) 재 도입 적극 검토 추진
전통차와 만남	•많은 관광객 참여에 따른 운영 애로	•장소변경 운영 및 판매제 도입 검토 추진
효의 격언·속담 길거리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 등 설명문 부족	•보조 놀이와 설명문 설치 필요

섬진강 자연생태공원의 신비체험 한마당

행 사 명	문 제 점	개 선 방 향
섬진강 자연생태관	•전시물 조명시설 부족 •살아 있는 생태물 전시 미흡	•조명시설 보완 •섬진강을 주제로 다양한 살아 있는 전시물 발굴
갈대속의 동물농장	•예산 부족으로 다양한 동물 전시 불가	•예산확대 지원 운영
섬진강 민물고기 잡기 체험	•부가적인 교육요소가 부족	•어린이 민물고기 그리기 등 교육적 요소 가미 운영
섬진강 레포츠	•계류장 및 휴식공간 미흡	•계류장 및 휴식공간 확보 운영

부대행사

행 사 명	잘 된 점	잘 못 된 점	개 선 방 향
심청굴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	•판매보다 홍보위주로 전시 운영 → 12,065천원 매출 (2002년:7,000천원)	•위치 선정 부적절 •토속적인 농산물(돈부콩, 고구마) 조달이 미흡	•장소 선정 고려 •토속적인 농산물 확대 발굴 (시골창터 운영 검토)
심청굴 향토식당 운영	•참가 업소명을 심청축제의 주제에 맞도록 선정 운영	•가격 및 질 저하 •쓰레기 처리 부적절	•가격과 질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쓰레기 수거 등 사 전교육 실시
섬진강 자연학습원 운영	•상시 프로그램을 축제 프로그램으로 활용	•서블버스 운행 미흡 (대부분 자가용 이용)	•서블버스 운행 검토

행 사 명	잘 된 점	잘 못 된 점	개 선 방 향
자전거 하이킹	• 축제 프로그램으로 접목 운영	• 셔틀버스 이용자 전무	• 셔틀버스 미 운행
심청골 사진 전시	• 잔디광장 휴식공간을 활용 전시	• 코스모스 전경을 고려하지 않은 현수막 설치 초래	• 현수막 설치 등 축제장 전체의 배경을 고려 설치
방송·통신망 설치	• 통신망 등 확대 설치로 휴대폰 이용 용이	-	• 배터리 충전기 설치
오메수 처리 시설	• 식당 위치 변경으로 오메수 처리 시설 재설치	-	-
화장실 운영	• 자원봉사자 정화활동 및 매일 분뇨수거	• 관광객 수요에 미치지 못한 화장실 비치	• 화장실(이동식) 증설 검토
쓰레기 대책 및 먹는물 공급	• 자원봉사자 활용 수시 쓰레기 수거 • 상수도 관로 설치로 영구 물공급책 마련	-	
축등 설치	• 민간단체(곡성을 청년회) 참여 행사	• 설치시기 다소 늦음	• 설치시기 검토 추진
주차장 운영	• 주차장 확대 설치 • 유관기관단체 참여 • 자원봉사자 참여	• 주차장 근무요원 편의시설 부족 • 민간인 참여 미흡	• 근무요원 편의시설 확충 및 민간인 주차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
셔틀버스 운행	• 셔틀버스 운행으로 군민과 관광객의 축제 참여 편의 제공	• 셔틀버스 참여업체 적극 참여도 미흡	• 무대행사 시간에 맞추어 유동적으로 운행
전기 가설	• 코스모스를 활용한 야경 볼거리 제공	• 서전기 용량 부족 및 예산배정 불여측	• 전기 용량 확충 및 담당부서와 협의 예산배정
꽃탑 설치	• 축제 분위기 고조	• 설치시기 늦음 • 시가지보다는 곡성을 관문에 설치	• 설치시기 검토 • 읍관문인 우회도로 삼거리에 설치안 검토
꽃동산	• 다양한 꽃으로 장식 관광객 사진촬영지 및 볼거리로 활용	• 주무대 설치된 부스로 인해 가려짐 • 축제에 관한 글자 삽입이 부적절	• 주무대 부스 설치 검토 • 글자보다는 마크 활용

2004심청축제

본 계획서는 기초계획서로
실제 행사 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심청의 원류에 관하여

고대소설에는 근원설화 또는 배경설화가 있습니다. 「관음사 사적」으로 전해진 효녀 "원홍장"의 이야기는 1930년대 김태준 선생의 「조선소설사」에서 「심청전」의 근원설화로 소개된 이래 "가장 직접적인 설화"로 국문학계의 공인을 받고 있습니다.

관음사는 백제 분서왕(300년)에 창건된 오래된 절로서 곡성군 오산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음사 사적은 순천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관음사 사적」이 사찰의 역사기록이라는 점에 착안, 관음사가 창건된 시기 300년대 곡성지역의 역사로 복원한 연구 성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철의 주산지였던 곡성으로부터 섬진강을 통해서 중국 관음불교의 성지인 양자강 어귀 보타섬에 이르는 효녀 홍장의 항로가 추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원홍장의 실화(역사)가 가공(문학)의 「심청전」으로 발전한 경로도 제시되었습니다. 원홍장이 곧 심청이요, 심청이 곧 원홍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연하게도 곡성뿐만 아니라, 섬진강의 주변에는 설화 같은 인물이야기가 많습니다. 남원의 춘향과 흥부가 있고, 섬진강변은 아니지만 장성에는 홍길동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지역적인 연관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심청전」을 역사적으로 접근한 최초의 이 연구의 성과가 2000년 4월 KBS 1TV 역사스페셜 「역사추적! 심청의 바닷길」로 널리 소개된 바 있습니다.

곡성군은 「심청전」 근원설화 발상지라는 국문학계의 공인과 역사적으로 뒷받침까지 받게 되어 「곡성 효녀심청」을 더욱더 소중하게 잘 키워 나아갈 것입니다.

I. 곡성심청축제의 의의

1. 심청축제 개최배경

곡성은 산간오지 지역으로 1700여년전 만고효녀 「심청」의 고향으로 심청의 효를 새롭게 재조명하고 새로운 효 문화를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 곡성군이 「효의 본산」임을 널리 알리고, 효녀 심청은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현대적인 새로운 가족관계를 정립하는 표본으로 삼아 곡성의 새로운 이미지인 「친환경 가족도시」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며, 이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지역 이미지의 인지도를 높이고 외래 관광객 유치와 지역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2. 심청축제 개최 성과 및 반성

2001년도부터 지난해까지 3개년동안 심청의 역사성과 섬진강이라는 환경의 뒷받침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참여·체험형 전통문화 축제를 개최.

- ① 대외적으로 곡성에 대한 인지도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 ② "곡성=심청"이라는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 ③ 보고 지나가는 관광에서 머물다 가는 체험 관광지로 부상되어
- ④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심청사업만큼은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군민들의 일체감과 화합에 기여.

그러나 축제장의 읍내권에서 떨어져 있는 부분과 숙박시설 등 관광기반시설의 여건 부족으로 지역

에 미치는 직접적인 파급효과가 크게 미흡함.

3. 『곡성심청축제 2004』에는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전 국민의 화합과 참여 속에 전국 축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야겠으며, 관내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연계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경주 하고, 심청축제로 고품격의 관광 상품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

II. 행사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행 사 명	곡성심청축제2004 (영문) GOKSEONG SIMCHEONG FESTIVAL 2004 (중문) 谷城沈淸祝祭2004	
주 제	효와 환경이 미래를 연다	
부 제	자연속의 가족마을에서 심청이를 만나보세요	
기 간	2004. 10. 14(목) ~ 10.17(일) / 4일간	
장 소	섬진강 자연생태공원(곡성군 곡성을 장선리 일원)	
주 최	곡성군	
주 관	곡성심청축제추진위원회	
후 원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방송사, 한국관광공사, 배재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등	

- 검 토 : 부 제(안)
- 2002년도 : 심청의 기적! 섬진강에서 체험 하세요
- 2003년도 :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심청과의 만남
- 2004년도 :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에서 심청이를 만나보세요(잠정)

III. 추진방침

- 곡성군 지역마케팅 및 이미지 통합사업의 전략에 맞는 부제와 프로그램을 발굴
- 효 문화사상고취와 가족단위 중심의 주제를 발굴 차별화된 축제로 육성발전
- 심청축제를 고품격의 관광 상품화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반마련
- 방송 및 언론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로 가시적인 효과를 극대화
- 문화관광부축제로 지정을 받아 인지도 높이고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발전

IV. 축제와 관련 주요 검토구상(안)

기존프로그램 (6개부문 58개 단위행사)

구 분	내 용	비 고
이 세상에서 가장아름다운이름, 심청과의 만남(5)	• 곡성심청 역사관 • 심청캐릭터 상품전시 • 심청공양미 삼백석 모으기 • 심청가훈 받아 가세요 • 심청테마 이야기	

구 분	내 용	비 고
심청문화· 공연한마당(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시력건강검진 나의 눈 건강할까? • 제3회 효녀심청선발대회 • 제3회 심청가요제 • 제5회 효녀심청 전국어린이예술공모전 • 전국정보검색대회 • 전국청소년 그룹댄싱경연대회 • 심청가 판소리 한마당 • 곡성,거창군 여성합창단 공연 • 심청골 전통농악 공연 • 심청의 효 콘서트 부모님 전상서 • 가을밤의 포크송 음악회 • 낙죽금징도 및 백동연죽장 작품전시 • 제3회 심청학술대회 • 제3회 섬진강마라톤대회 • 뽕파전 • 심청길놀이 • 국악대향연 • 장애인 사물놀이패 공연 • 심청 열린음악회 • 곡성국악원 공연 • 심청골 분재,아생화 전시 	
심청골 저잣거리와 전통체험 한마당(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아! 청아! 내 딸 청아! 심청마당극 • 가상 심청의 집 재현 • 전통한과점 전시 • 전통떡치기 체험 • 옛날 농사일 체험 • 전통 민속놀이 체험 • 대장간 체험 • 뽕덕이 주막 • 방물전 • 다듬이 물레질 체험 • 짚,풀 공예 체험 	
수만평 코스모스속에서 "너랑나랑체험" 한마당(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봉사 체험 • 심청전 주인공과 추억남기세요(심봉사, 심청, 뽕덕어멈, / 탈 인형) • 봉숭아 물들이기 • 페이스 페이팅(코스모스+심청캐릭터) • 분경과 압화체험 • 효의 격언·속담 길거리 • 전통차와 만남 • 황토 천연염색 체험 	
섬진강 자연생태공원의 신비체험 한마당(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봉사 체험 • 심청전 주인공과 추억남기세요(심봉사, 심청, 뽕덕어멈, / 탈 인형) • 봉숭아 물들이기 • 페이스 페이팅(코스모스+심청캐릭터) • 분경과 압화체험 • 효의 격언·속담 길거리 • 전통차와 만남 • 황토 천연염색 체험 	
부대행사(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청쌀 시식회 및 심청골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 • 심청골 향토음식점 운영 • 우표전시 • 심청골 사진전시 • 섬진강 자연학습원 운영(옥과 옥수분교) • 섬진강 자전거 하이킹 (청소년 야영장) 	

V. 일정별 프로그램 (잠정)

일정	일정	전 행사	첫째 날 (10. 14. 목)	둘째 날 (10. 15. 금)	셋째 날 (10. 16. 토)	넷째 날 (10.17. 일)
09:00~10:00		제4회 심진강 마라톤대회				
10:00~11:00		10. 3(별도)		농악 시연	농악 시연	농악 시연
11:00~12:00		제4회 심청 학습 대회		도립국악단 공연	국립민속국악원 공연	중국어타구 및 지매결연기관 축하공연
12:00~13:00		10. 6(수)				
13:00~14:00			농악공연			
14:00~15:00				심청마당극	심청마당극	청소년 문화 마당
15:00~16:00		심청길 열기	가요제 리허설	장예인 공연	행파전	
16:00~17:00				2004 효녀 심청선발대회	심청가 판소리 한마당	부모와 자녀한마당 (동화구연)
17:00~18:00		개막식 및 식후 행사 (합창단 공연)				
18:00~19:00						
19:00~20:00		제4회 심청가요제 • 불꽃놀이		기차결연 영화상영 (태극기 휘날리며)	가을밤 가족음악회	• 가을밤의 추억 • 소원성취 • 불꽃놀이 • 폐막
20:00~21:00						
			전시행사, 참여·체험행사 등은 상시운영			

본 행사 프로그램은 잠정 기본구상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5회 효녀심청 전국 어린이 예술공모전

어린이들의 문화예술 발전과 진흥에 기여하며 참다운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5회 효녀 심청전국어린이 예술공모전”을 개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주최 곡성문화원

후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전국문화원연합회,
전라남도, 곡성군

공모자격 전국 초등학교 재학생

공모부문

- 글짓기부문 : 장르 구분 없이 응모 가능
- 그림부문 : 장르 구분 없이 응모 가능

공모주제 자유

공모요령

- 완성된 작품 1부
- 학교·학년·성명·주소·연락처 기재
- 제출된 작품은 일체 반환치 않음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단체접수 및 개별접수

접수기간 2004. 9. 10(금) ~ 10. 9(토)

접수처

1)방문접수사: 곡성문화원(곡성군 곡성읍 군민회관 본관 뒷편 우측에 위치)

1)우편접수사: 우)516-805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776-4 곡성문화원 사무국

심사위원

각 분야별 권위자 위촉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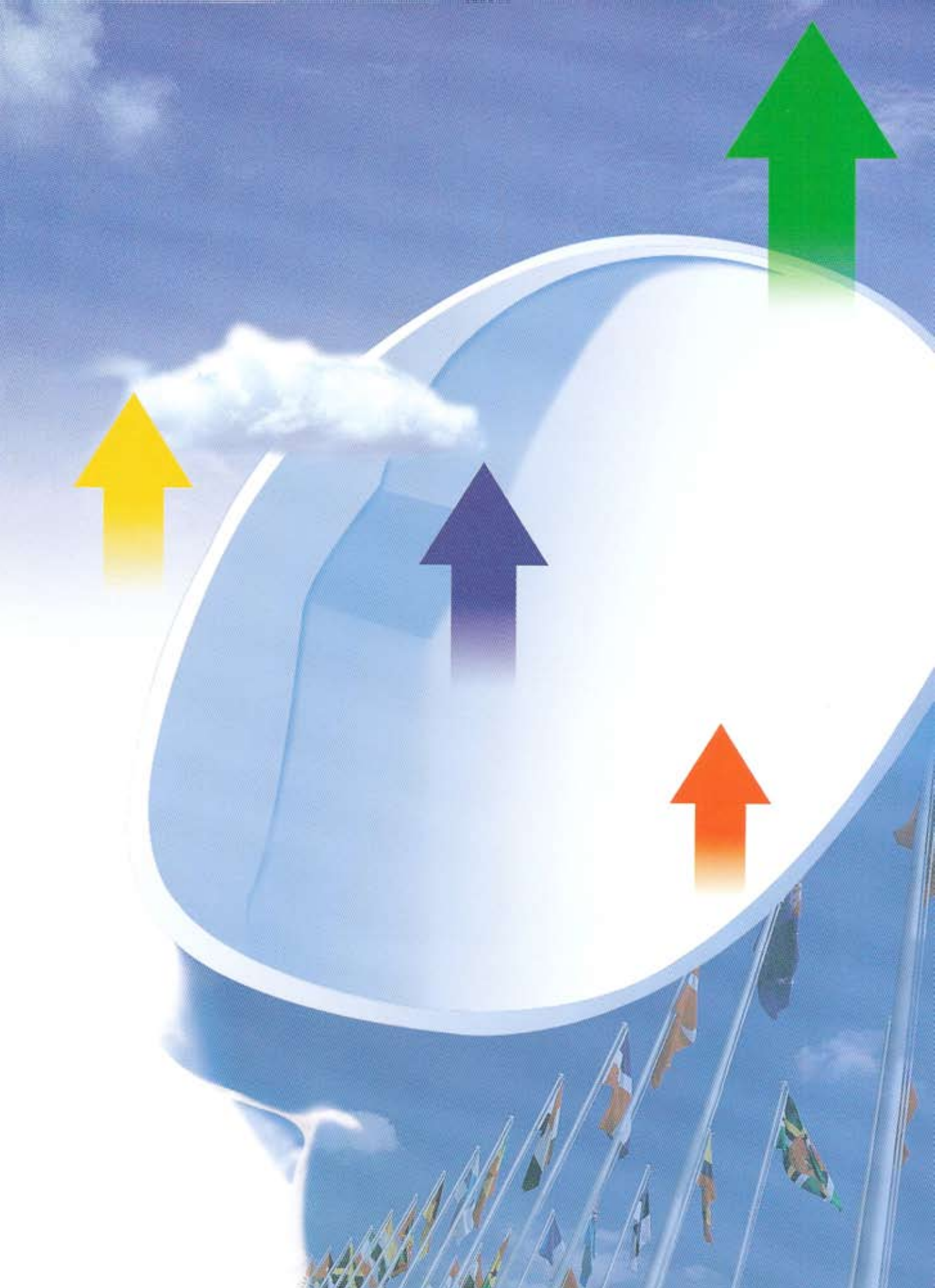
- 2004년 10월 25일(월)
- 1) 곡성문화원 인터넷 홈페이지 www.gs-culture.or.kr
- 2) 전국문화원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kccf.or.kr

문의처

곡성문화원 사무국 전화 061)362-0890, 363-7300

시상내용

구분	시상내용	수량	부상
대 상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1명 (각부문)	상장·상패·부상(50만원 상당)
금 상	전라남도지사상	1명 (각부문)	상장·상패·부상(25만원 상당)
	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	1명 (각부문)	상장·상패·부상(25만원 상당)
은 상	곡성군수상	1명 (각부문)	상장·상패·부상(10만원 상당)
	전·문·연 전남도지회장상	1명 (각부문)	상장·상패·부상(10만원 상당)
동 상	곡성문화원장상	각부문 다수	상장·상패·부상
장려상	곡성문화원장상	각부문 다수	상장·부상



21세기 지도력은 한국에서

다기 함영희(국사편찬사료조사위원)

새 千年(천년)의 偉大(위대)한 指導力(지도력)이 韓國(한국)에서 나온
답니다.

이 말에 믿음이 간다면 먼저 옛날 三綱五倫(삼강오륜)을 다시 붙잡고
謙虛(겸허)한 자세로 돌아가 自身(자신)의 本分(본분)을 되찾아 본보기
가 되도록 살아간다면 自然(자연)스럽게 家庭(가정), 教育(교육), 經濟
(경제), 社會(사회)의 제반 問題(문제)들이 順理(순리)테로 풀려갈 것이
니, 이것이 偉大(위대)한 指導力(지도력)이요, 그 核心(핵심)이 바로 버
리 綱(강)입니다.

버리 綱(강)은 根本(근본)이요 紀綱(기강)이기에 自己(자기) 自身(자
신)에게 最善(최선)을 다하여 他(타)의 模範(모범)이 되는 일을 몸소 實
踐(실천) 躬行(궁행)하는 일이라 남에게 말하거나 強要(강요)하지 아니
하여도 스스로 感伏(감복)하여 尊敬(존경)하고 따르는 理致(이치)이니,
이 以上(이상)도 以下(이하)도 아닙니다.

바야흐로 世界(세계)의 碩學(석학)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偉大(위
대)한 指導力(지도력)이 東洋(동양) 특히 韓國(한국)에서 나온다고 注目
(주목)하면서 期待(기대)하는 소리가 우리의 안방까지 들려 오고 있습
니다.

이것은 바로 共同體(공동체)로서의 基本(기본)倫理(윤리)인 三綱五倫
(삼강오륜)에 근거한 것이며, 그 傳統(전통)과 바탕이 바로 우리 底力
(저력)의 근간임을 滿天下(만천하)에 闡明(천명)함이니, 이러한 感激의
(감격적)인 소식을 엮은 아이를 다시 찾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받아드려
다시 보고 또 봅시다. 너무나 分明(분명)하고 確實(확실)하며, 아무리
보아도 잘생긴 圓滿(원만), 具足(구족)한 우리의 玉童子(옥동자)가 아니
옵니까?

참고

가. 綱 : 버리 강, 근본 강, 기강 강, 강령 강

나. 버 리 : 그물을 끌어 올리는 줄

다. 闡明(천명) : 의사나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밝힘

리. 三綱(삼강) : 아버지는 자식에게 본보기(근본)가 되고 임금(윗사람)은 신하(아랫사람)에게 모범(기강)이 되
며 남편은 아내에게 버리(리더)가 된다.



1982년 곡성읍





곡성군청



곡성군 농협



곡성경찰서



곡성군 모자보건센터



곡성교육청



곡성산림조합



곡성군 한전



곡성동기소



곡성군 보건소



곡성읍 우체국



곡성농산물검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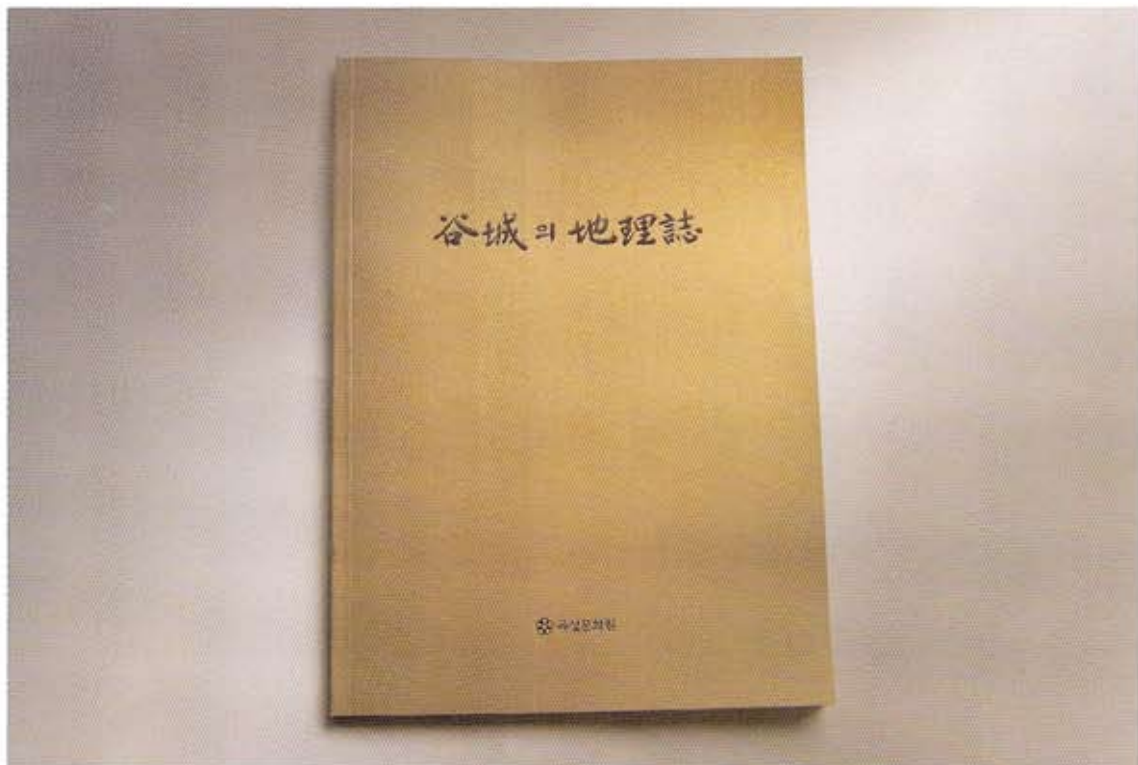
곡성전매서

신간도서 - 곡성지리지 발간

2000년 『곡성실록』, 2001년 『곡성군지』, 2003년 『조선환여승람 곡성편』에 이어서 올해도 곡성의 지리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곡성의 지리지는 삼국사기지리지, 고려사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여지도서, 대동지지, 호남읍지 등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국지리지에서 곡성과 관련된 자료를 발췌하여 전문학자의 지도를 받아가며 이를 체계적으로 번역, 편집하여 곡성의 역사에 대한 사료를 누구나 쉽게 볼수있도록 하고, 우리고장의 향토사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수있도록 발간하였습니다.

곡성문화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 연구하여 년차적으로 출간할 계획입니다.





2004 상반기 전국 문화원 신간 안내

1. 송파문화원 서울 백제왕성 풍납토성
2. 신안문화원 선원록징 서사장청 김이수 전기
3. 군포문화원 군포시 문화예술 시정평가 및 수요조사
4. 경주문화원 경주문화논총
5. 삼척문화원 척주 선생안
6. 포천문화원 전국한시 백일장시집
7. 경기도지회 경기향토시화
8. 기성문화원 기성의 매장문화 연구
9. 광주문화원 남한비사
10. 성남문화원 금석문대관
11. 평창문화원 평창의 전통음식
12. 김천문화원 김천문화원 오십년사
13. 강진문화원 강진병영성의 역사 산책
14. 안양문화원 제1회 전국한시백일장 발표집
15. 영월문화원 단종연구논총
16. 대덕문화원 대덕의 풍수
17. 무안문화원 우리 고장 무안의 방인
18. 대전동구문화원 신희의 생애와 문학
19. 무안문화원 조선왕조실록 무안시료집
20. 임실문화원 운수의 전통과 향기
21. 강화문화원 강화 보호수지
22. 징음문화원 태인의 유교전통문화
23. 양평문화원 양평독립운동사 자료집
24. 청도문화원 오산지
25. 강북문화원 강북문화
26. 화성문화원 화성시의 선사문화
27. 청도문화원 제16회 학생학예경시대회 입상작품집
28. 충주문화원 충주의 향토사
29. 문경문화원 학생수상작품집
30. 이천문화원 이천의 민간신앙
31. 횡성문화원 횡성 민족운동사
32. 동두천문화원 택리지
33. 동두천문화원 다시쓰는 택리지, 2, 3
34. 용산문화원 사료로 보는 용산의 역사
35. 속초문화원 속초의 민요
36. 속초문화원 속초시 피난민 정착사 2000
37. 문경문화원 문경의 금석문 2
38. 고령문화원 고령문화
39. 고령문화원 고령의 나루터
40. 구미문화원 구미의 문화유산
41. 안동문화원 안동시 군자마을 조사보고서
42. 성남문화원 제2회 학술토론회
43. 완도문화원 국역 조선환어승람 완도
44. 과주문화원 과주 역사 문화기행
45. 김제문화원 우리고장 일제36년사
46. 용인문화원 모현면지
47. 남해문화원 고서속의 남해시료
48. 영덕문화원 영덕시료집, 영덕의 지명유래
49. 합천문화원 육전고부군 출토
50. 합천문화원 조선 최고의 고승 무학대사
51. 철원문화원 철원금석문대관
52.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53. 대구중구문화원 건틀바위
54. 순창문화원 순창의 구전설화 下
55. 송파문화원 서울의 백제고분 석촌동고분
56. 조치원문화원 가정의례 요람
57. 영양문화원 경상북도 영양군지
58. 의성문화원 비안현의 문화와 오늘의 삶
59. 안동문화원 안동 김씨와 소산미술
60. 경기도지회 경기누정문화, 경기도 논맹소리
61. 경주문화원 경주읍지
62. 제주도지회 서제집, 노봉문집
63. 함안문화원 경상도 함안군 총쇄록
64. 하남문화원 하남금석문대관
65. 곡성문화원 곡성지리지

곡성문화재 안내지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의 문화에 대한
작은 관심 하나가
우리 문화발전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 적인선사조륜칭정탑(보물 273호)



• 광지대사탑(보물 274호)



• 광지대사비(보물 275호)



• 태안사 바라(보물 956호)



• 가곡리5층석탑(보물 1322호)



• 도림사괘불탱(보물 1341호)



• 태안사동종(보물 1349호)



국가 지정 문화재

- 보물**
- 1 적인선사조륜칭정탑 (273호 / 태안사)
 - 2 광지대사탑 (274호 / 태안사)
 - 3 광지대사비 (275호 / 태안사)
 - 4 태안사 바라 (956호 / 태안사)
 - 5 가곡리5층석탑 (1322호 / 오산면)
 - 6 도림사괘불탱 (1341호 / 곡성읍)
 - 7 태안사동종 (1349호 / 태안사)
- 중요 무형문화재**
- 8 곡성들살나이 (32호 / 갑정순 / 석곡면)
 - 9 낙죽정도 (60호 / 현병문 / 목사동면)
- 중요 민속자료**
- 10 군지은정사 (155호 / 입면)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

- 유형문화재**
- 1 총열문 (51호 / 입면)
 - 2 태안사능파각 (82호 / 태안사)
 - 3 태안사일주문 (83호 / 태안사)
 - 4 옥과향교 (109호 / 옥과면)
 - 5 함해정 (160호 / 옥과면)
 - 6 도동묘 회현실가목판 (210호 / 오곡면)
- 무형문화재**
- 7 죽동농악 (35호 / 박대업 / 곡성읍)
- 지방기념물**
- 8 용산재, 덕양사 (56호 / 옥사동, 오곡면)
 - 9 도림사 계곡 (101호 / 곡성읍)

- 민속자료**
- 10 옥과성황당목조신상 (2호 / 옥과면)
- 문화재자료**
- 11 도림사 (22호 / 곡성읍)
 - 12 태안사 (23호 / 죽곡면)
 - 13 관음사 (24호 / 오산면)
 - 14 유월마정교 정연각 (25호 / 옥과면)
 - 15 곡성향교 (27호 / 곡성읍)
 - 16 석곡리석불입상 (28호 / 석곡면)
 - 17 도동묘 (29호 / 오곡면)
 - 18 덕산사 (120호 / 오곡면)
 - 19 수성당 (129호 / 오곡면)
 - 20 수도암갯나무 (147호 / 옥과면)
 - 21 영류재 (167호 / 죽곡면)
 - 22 태안사 3층석탑 (170호 / 죽곡면)



- ① 적인선사조륜청정탑
- ② 광자대사탑
- ③ 광자대사비
- ④ 태안사 바라
- ⑤ 태안사동종

지역문화선언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지역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정한 국민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또한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고, 정보화사회의 진전은 이 모든 것을 촉진하여 근본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삶의 양식을 창출해 내고 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시대를 바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지역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풍족함을 창조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 문화예술은 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개인에게 있어서도 문화감수성의 역량이 곧 그 자신의 삶의 질의 결정 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물질주의 가치에만 치우쳐 왔던 자세를 반성하고, 국민 모두의 일상적 삶을 문화적으로 충실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당한 세계인으로서 나아가는 조건임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는 지역문화시대의 도래를 믿으며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첫째, 우리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뿌리로 한 문화적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튼튼히 할수록 민족문화와 세계문화의 다양성은 더욱 풍요롭게 될 것이다.

둘째,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은 지역자치의 뿌리이다.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문화적 자존심으로 새롭게 일구는 실천적 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적 삶이란 스스로 참여하여 창조하는 삶 그 자체이다. 지역의 자생적 문화단체의 활동이 최대한으로 활성화되도록 돕는 일이 문화행정의 책임과 의무이어야 한다.

넷째, 국민적 차원에서도 지역문화진흥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의 문화적 발상을 대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실질적인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1995. 11. 1

지역문화행정 전문가 일동

GOKSEONG SIMCHEONG FESTIVAL 2004




곡성심청축제 2004

- 기간 : 2004. 10. 14(목) ~ 10. 17(일)
- 장소 : 곡성 섬진강 자연생태공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심청축제장 곳곳에는 다양하게 펼쳐지는 볼거리와 재미가 있습니다





(주)한국콘크리트는
꿈, 그 이상의 가치를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株)韓國 콘크리트
(株)韓國 레미콘
(株)韓國 綜合建設産業
(株)韓國 設備産業

본사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17
TEL 061) 363 0475 FAX 061) 363 0476

광주지사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518-80(한국B/D)
TEL 062) 511 3228 FAX 062) 511 9808